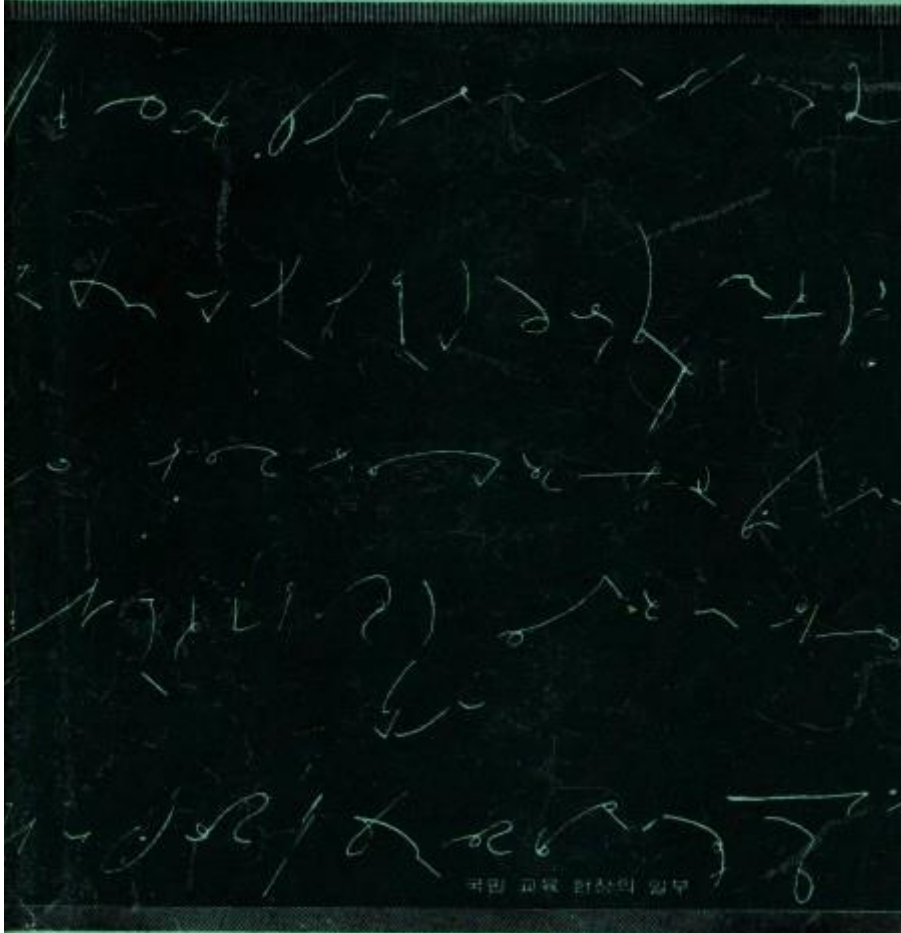


逸 波 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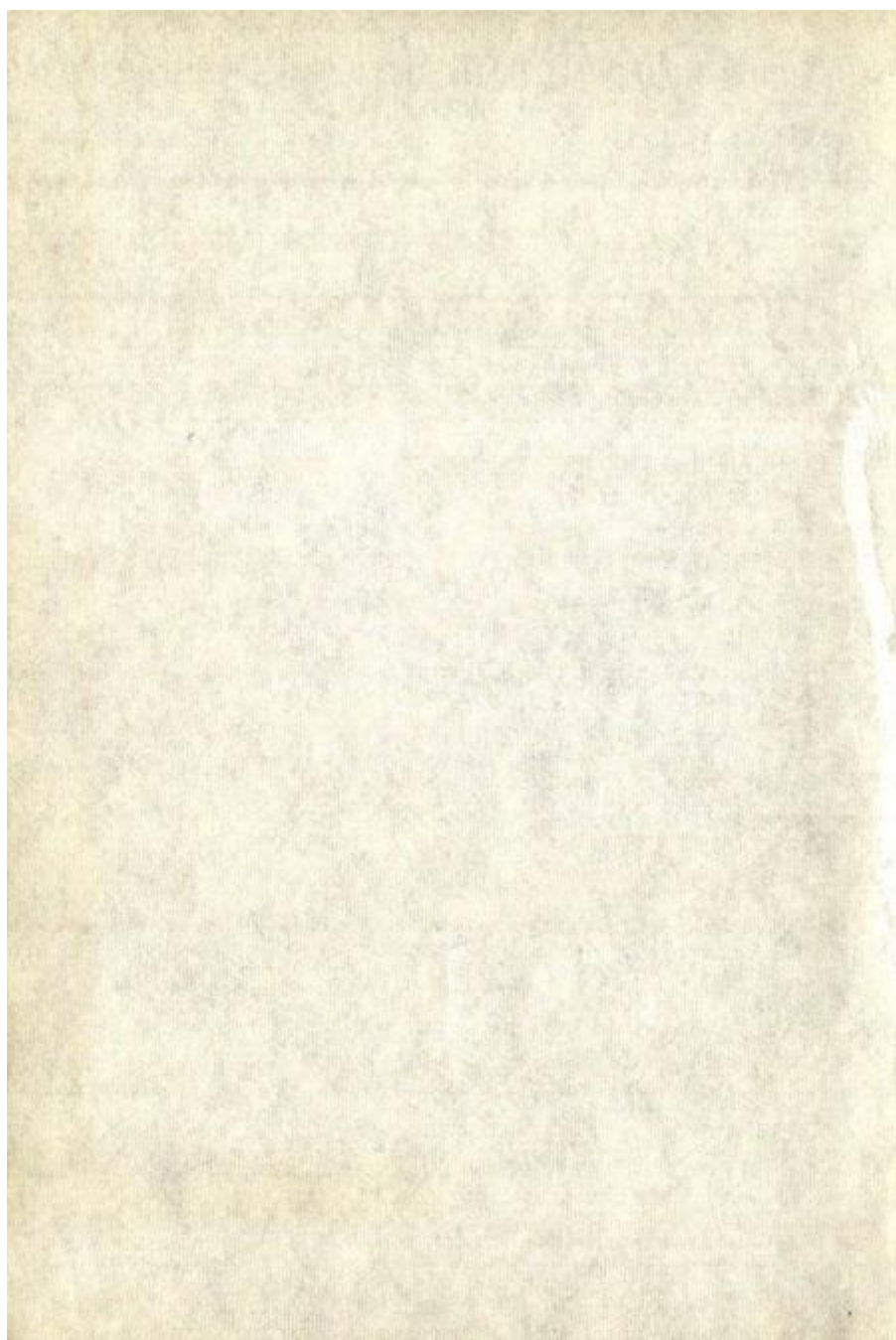
# 實用速記

張 基 泰 著



實用速記 附註的 圖解

松園文化社



逸 波 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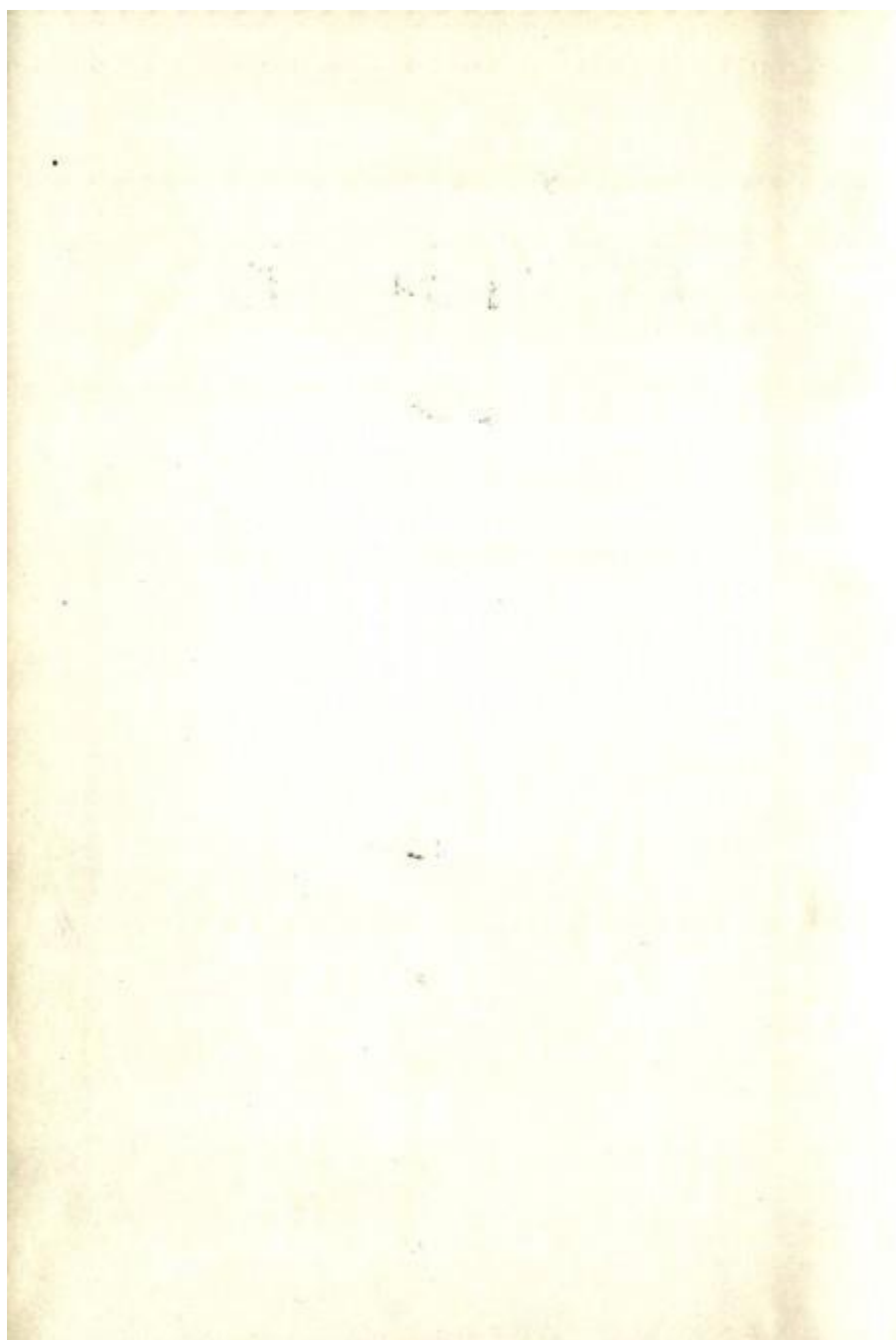
# 實用速記

張基泰著

惠存



松園文化社



☆☆☆ 15가지 선(線)의 모임과 흩어짐 ☆☆☆

<모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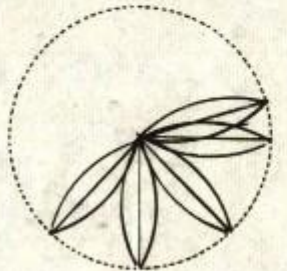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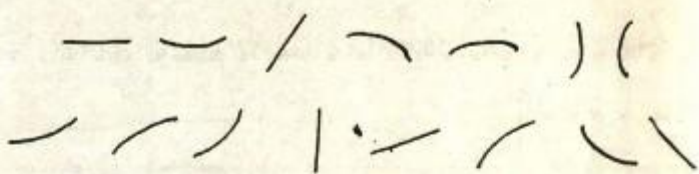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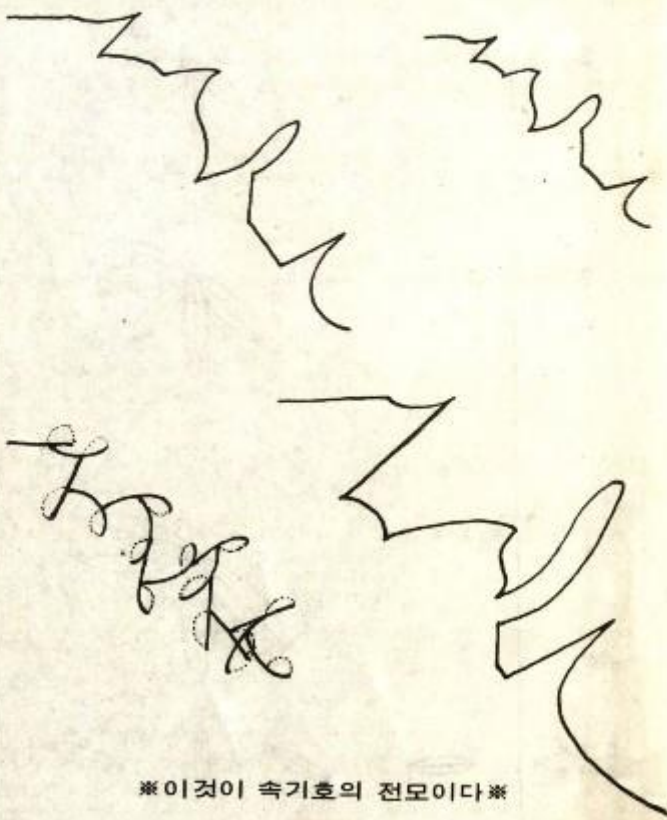
<5개로  
흩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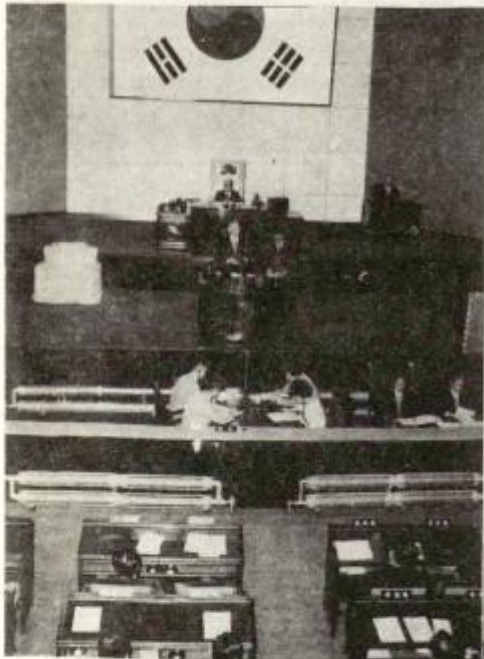
<15개 모  
퓌어집>



이어서  
모임



※이것이 속기호의 전모이다※



국회 속기 광경  
<중앙 단상 앞의 4사람>



국회 본과 위원회 광경  
<중앙의 2사람이 속기하고 있다>





## 추 천 문

국회와 속기는 불가분(不可分)의 관계가 있다. 국회의 속기록은 순전히 속기사가 기록한 것이다. 그리고 국제 회의나 기타 여러 가지 회의에도 속기사 없이는 회의록을 기록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금번 한국 속기학의 선구적(先驅的) 역할(役割)을 한 "일파식(逸波式)"이 많은 제자를 배출(輩出)함에 뒤이어 획기적(劃期的)인 책자를 낸 것은 참으로 경하(慶賀)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독학자(獨學者)의 환영이 클 것으로 믿어 마지 않는다.

1959년 4월 일

국회의사국장

김호경

"용이 날개를 얻었는 격이다"

속기의 역사가 짧은 우리 나라에서 출판 사상(史上) 처음 보는 기호학(記號學)의 출간(出刊)을 경축(慶祝)하는 바이다

"일파식"으로 공부한 선배들의 뒤를 이어 속속 속기사의 배출을 희망하며, 이 "실용 속기"가 출간됨으로써 독학으로 공부하려고 하는 여러 학도나 습학자에 많은 도움이 될수 있는 동시에 회소식이 될수 있는 것이다.

한국 속기계의 일대 쾌사(一大快事)라고 아니할 수 없다.

1969년 4월 일

대한속기협회회장

李 源 石

남의 발언(發言)을 올바르게, 그리고 빨리 파악 기록하는 데는 속기 없이는 불가능하리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신문사로서도 속기를 습득한 기자(記者)채용을 염원(念願)하고 있는 현실(現實)이다.

외국 신문사의 지국(支局)과 본사(本社)간에서는 속기사 끼리 속기호로서 기사(記事)연락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가까운 장래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는 바이다.

다행히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출간(出刊)된 이 "실용 속기"는 그 방면에 뜻을 둔 학도나 독학자들에게 다시 없는 등불이 되는 동시에 길잡이가 되는 것임을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

금번 속기학의 선구자 "일파(逸波)" 및 속기학 출판에 이바지한 송원문화사(松園文化社)의 쾌거(快舉)에 환영의 뜻을 표하는 바이다

1969년 4월 일

조선일보사부사장

劉鳳榮 (Seal)

## 머 리 말

일본어(田本語) 속기 10년에 뒤이어 우리말 속기 생활이 어언 20년이나 지났다. 한글 학자도 아닌 내가 한글을 기호화(記號化)해서 우리말을 필기록하기에 성공하기까지 만도 난관이 많았는데, 다시금 이를 학술적(學術的)으로 체계화(體系化)하여 학도들에게 교습시켜야 하니 실로 힘에 겨운 일이었다. 그 중에서도 중성음(中聲音)과 받침의 정리, 또 기호의 연구는 가장 고된한 벼목이다.

일파(逸波)라는 내 호(號)도 "물결을 타고 안일(安逸)하게 흐르는 속기학의 보급"을 염원하는 마음에서 지은 것이다.

요행에도 국외 속기가 시작되자 "일파식"을 공부한 분들이 속속 취무해서 우리말 속기의 진가(眞價)를 과시(誇示)하고 있으나, 이것을 단행본으로 해서 함간에 내놓기란 또한 여러 모로 쉬운 일은 아니다. 민족 문자 아닌 기호문자의 인쇄란 막대한 비용과 회생이 요구되는 것이며, 다시 제한된 지면(紙面)을 가지고 독학이 가능하게 기술(記述)하자니 그저 새로운 고충의 연속이다.

다만 이 책의 집필 상재(上梓)의 기쁨을 마면해 주신 송원문화사(松園文化社) 사장 정 영배(鄭英培)선생의 가목한 뜻에 호응해서 내 힘껏 원고 정리를 해 봤으나, 과연 속기호의 교본다운 점이 얼마나 구비되었는지! 습학자들의 많은 충고를 마랄 뿐이다.

아직 세파(世波)에 휩쓸림이 없는 학도들에게 장래성 있는 보람찬 배움을 갖게 하기 위해 필자는 부단히 노력하겠으나, 여러분도 반(半)호기심적인 학습 태도를 지양(止揚)하고 진저히게 속기호를 획득할 것과 오늘날 기계화된 녹자기(錄字機) 대신 출현한 이 속기가 녹음기의 활용 못지 않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체인식하여 많은 사람이 속기라는 이기(利器)를 자유로이 이용해 주었으면 보다 더한 보람이 없을 줄로 여기는 바이다.

1969년 서울 김포(金浦)에서

일파 씀

## 차 례

15가지 선의 모임과 흠어짐.....	3
사진과 추천사.....	5
머 리 말.....	9

### 제 1 편 기본편

<p>속기 상식 &lt;一&gt;..... 14</p> <p>1. 속기를 배워서 무엇에 쓰나?..... 14</p> <p>2. 속기 공부와 속기 완성의 차이점..... 17</p> <p>3. 속기 용구와 학습 요령..... 18</p> <p>4. 우리 한글의 특성을 알자..... 19</p> <p><b>제 1 장 기본 문자(20일 습학 과정)</b></p> <p>① "나"열자(列字)~"과"열자..... 22</p> <p>    제 1 일의 학습..... 22</p> <p>    제 2 일의 학습..... 23</p> <p>    제 3 일의 학습..... 24</p> <p>    제 4 일의 학습..... 25</p> <p>    제 5 일의 학습..... 26</p> <p>    제 6 일의 학습..... 26</p> <p>    제 7 일의 학습..... 27</p> <p>    제 8 일의 학습..... 28</p> <p>② 거듭음의 처리..... 29</p> <p>    제 9 일의 학습..... 29</p> <p>③ 속기 예문..... 33</p> <p>    제 10·11일의 학습..... 33</p> <p>④ 받침 기법과 약법..... 35</p> <p>    제 12일의 학습..... 35</p> <p>    제 13일의 학습..... 38</p> <p>    제 14일의 학습..... 39</p> <p>    제 15일의 학습..... 40</p> <p>    제 16일의 학습..... 41</p>	<p>    제 17일의 학습..... 43</p> <p>    제 18일의 학습..... 44</p> <p>    제 19일의 학습..... 44</p> <p>⑤ 속기 요령..... 44</p> <p>    제 20일의 학습..... 44</p> <p>속기 상식 &lt;二&gt;..... 47</p> <p>속기호의 안출(案出)..... 47</p> <p><b>제 2 장 실용 약자(10일 습학 과정)</b></p> <p>⑥ 이음 속음 기법..... 49</p> <p>    제 21일의 학습..... 49</p> <p>⑦ 반복어 기법..... 49</p> <p>⑧ 반의어(反意語) 기법..... 50</p> <p>⑨ 동행 약자법(同行略字法)..... 50</p> <p>    제 22일의 학습..... 50</p> <p>⑩ 4 음자 속어 약기법..... 52</p> <p>    제 23일의 학습..... 52</p> <p>⑪ 구(句), 속담(俗談)과 숫자     기법..... 54</p> <p>⑫ 변자(變字) 기호..... 54</p> <p>    제 24일의 학습..... 54</p> <p>    제 25·26일의 학습..... 60</p> <p>변자 예어(變字例語)..... 64</p> <p>⑬ 기본토 기호..... 65</p> <p>    제 27일의 학습..... 65</p> <p>⑭ 부정사 기호..... 69</p> <p>    제 28일의 학습..... 69</p>
--	---

㉔ 동동사 기호.....	70
제29일의 학습.....	70
㉕ 약약자의 이모저모.....	70

제30일의 학습.....	70
㉖ 요령 속기법.....	72

제2편 고등편

11 장 1 변자 기호의 전모

㉑ 변변자(제2의 기본 문자)기호.....	76
변치자를 배우는데 쓰이는 용어.....	76
1.1. '가'행 중 변자.....	77
2.2. '나'행 중 변자.....	81
3.3. '다'행 중 변자.....	84
4.4. '라'행 중 변자.....	86
5.5. '마'행 중 변자.....	86
6.6. '바'행 중 변자.....	87
7.7. '사'행 중 변자.....	88
8.8. '아'행 중 변자.....	90
9.9. '자'행 중 변자.....	92
10.10. '차'행 중 변자.....	94
11.11. '카, 타, 파, 행 중 변자.....	95
12.12. '하'행 중 변자.....	96
㉒ 특수 변자 기법.....	101
1. 누동행 기호 이용 변자.....	101
2. 수중성 + 종성 변자.....	101
3. 7기타.....	103
4. 0이음자 변자.....	105
— 속기 예문.....	109

제2장 토 기호의 구성

㉓ 기본도 + 하(이)되 동사 기호.....	110
㉔ 과거사(過去詞) 기호.....	112
㉕ 부정사(否定詞) 기호(-).....	116
㉖ 기본도에 연관되는 약자.....	120
1. ㄷ, ㄹ + 것 2. ㄷ + 데.....	121
3. ㄷ, ㄹ + ㄱ 4. 에 5. 와, 과.....	

6. 갈(갈다) 7. 서 8. 고.....	
9. 라 10. 바.....	
㉗ 1. 뻗자 2. 일 3. 지, 짓.....	125
4. 한, 인 5. 뿐 6. 밖에.....	
7. 마다 8. 이, 가, 도, 는.....	
+ 있, 없 기호 9. 못이.....	
10. 실.....	
㉘ 1. ㄴ 가 2. ㄹ 짜 3. 도.....	127
4. 야 5. 까닭, 때문, 위해.....	
6. ㄹ 때 7. ㄹ 줄 8. 어.....	
9. 기 10. 지.....	
㉙ 1. 할 2. 처 3. 로 4. ㄹ 어.....	130
5. 을, 문 6. 에, 의 7. 해.....	
8. 되 9. 하(이) + 토 기호.....	
10. 다.....	
㉚ 1. 오, 요 2. 의문어와 기타.....	137
3. 존경어 4. 면 5. 기타의.....	
관련 약자 6. 동사 ㄴ 약자의.....	
확충 이용.....	
속기 상식 <三>.....	148
— 속기사(速記士)란?.....	148

제3장 각품사의 기호

㉑ 태명사 기호.....	150
㉒ 형용사 기호.....	151
㉓ 부사 기호.....	153
㉔ 접속사 기호.....	154
㉕ 수사 기호.....	155
㉖ 문장 예문.....	157

**제4 장 약자법**

고등 약자법.....	164
㉑ 명사 중 '1'가 끝자인 예.....	164
㉒ 토 기호 이용 약자법.....	167
㉓ 상형 약자법.....	168
㉔ 고유 명사 기법.....	169
㉕ 일부용 약자법.....	171
번자 테스트.....	175
㉖ 동행 기호의 예.....	179
3 음자 약자법.....	181
㉗ 기타의 예.....	180

㉘ 부정사 기호(=).....	193
관련 약자.....	193
속기 상식<四>.....	197
—속기 발달 사고(史考).....	197
특수 약자.....	198
㉙ 각 행 중 기호.....	198
㉚ 4 음자 이상 단어 약자.....	205
약자 작성 요령과 속기문	
분석.....	211
㉛ 예와 연습문.....	213

**제3 편 실용편**

㉜ 속어 지식을 넓히자.....	224
㉝ 영어 속기 이용 약자.....	226
㉞ 실무 속기 요령.....	230

㉟ 실무 속기 문제.....	232
속기 예문.....	233

☆부 록.....	245
첨삭 지도(添削指導).....	249

# 제 1 편 기본편



☆ 박희봉 명예이사회회장의 국민 환영 ☆

<앞으로 알아 속기하는 4 사람의 속기사가 보인다>

## ☆ 속기 상식 <—> ☆

### (1) 속기를 배워서 무엇에 쓰나?

진실한 학도라면 누구나 보람 없는 일에 열중하려 들지는 않을 것이다. 자기 생애의 어느 한 시기… 참으로 개인에 있어서 귀중한 그 시기를 헛되이 보내버린다는 것은 현명한 사람이 취할 태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속기란 실용적인 것이 못 되지 않느냐? 속기를 몰라도 대학에 들어가도, 신문 기자도 되고, 사부가도 되는데, 구태여 속기 공부에 시간과 돈을 허비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말문을 흔히 듣는다.

그럴 때마다 필자는, “차(車)를 안 타도 서울서 부산이고 어디고 갈 수가 있는데, 왜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서도 늦겠다고 조바심을 하느냐?”고 반문(反問)하고 싶다.

즉 인간이 동물적인 본능 대로 살려면 구태여 공부를 할 필요가 없고, 문명도 의면해 버릴 수가 있다라는 뜻이니, 다시 말해서 현사회에서 상인이 되려면 꼭 상과대학을 나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 공장주(工場主)가 꼭 공과대학 출신이라야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전문 지식을 배운 사람과 안 배운 사람과는 여하모로 그 경영면에 상이점(相異點)이 있으니, 문명인을 자처(自處)하는 우리로서 어찌 실용적·능률적·효과적인 전문 지식에 의면하고, 시대에 역행(逆行)해서 무식을 본(本)으로 삼을 필요가 있으랴! 더우기 우리의 문자는 아무리 빨리 세도 말을 따라갈 수가 없다. 우선 학교에서 예를 볼더라도 대학에서는 중고교와 달리 수업이 순 강의식으로 바뀌는데 이것을 노우드에 필기록하는데 있어 어느 학생이고 모두 진함을 빼고 있다. 또 인문인은 취재(取材) 때 글씨쓰기가 느낌을 무척 안타까와하고 있으며, 각 직장에서는 자기 회사의 회의록을 기록할 때 일일이 속기사를 불러야만 한다.

이러한 때 당해자들은 “속기를 배웠더라면…”하는 생각이 간절해지는 것이 인자상정(人之常情)인데, 이렇듯 필요성을 간절히 느끼는 시점에 이르러서 비로소 그 해결 방안을 허황지중 모색하느니보다, 장래에 직면할 필요에 대비해서 미리 해결책을 세워두는 것이 현명한 처세(處世)일 것이다.

그러므로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란 말도 있듯이 우리는 발의 속도를 바꿀수 있는 무슨 다른 문자를 연구할 수밖에 없으니 이번 까닭으로 속기 문자(속기호)가 고구(考究)된 것이고, 나라마다 이 속기호(速記號)의 고안으로 인해서 늦을



(録音)과 마찬가지로 녹자(録字)가 생겨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속기는 사람의 말을 그대로 그대로 기록해 두어야 할 일체의 경우에 사용되는데, 현재 우리 주변에서 속기가 쓰이는 경우를 보면 아래와 같다.



< 국제회의나 국외 >



< 대담(對談) >



< 라담회(座談會) >



< 주주 총회(株主總會) >



< 강연회 >



< 방송기록 >



< 비서의 메모 쓰기 >



< 해외와 지방 연락 전화 >



< 후기 학술 강의... 저자 >

위와 같이 피차간의 대화(對話)를 떠나서 기획(企劃)이나 발전이 이루어 질 수가 없는데, 이는 민주사회에 있어서 사회 운영의 요건(要件)이 된다. 이 밖에도 그 활용분야는 참으로 광범위하다.



## (2) 속기 공부와 속기 완성의 차이점

### ① 언어의 속도

우리들이 주고 받는 말의 속도는 과연 얼마나 빠르게 느낄까? 즉 1초 동안에 우리가 하는 말을 우리 글자로 적어 본다면 몇 자나 되는지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하는 말을 예를 들면 1초 동안에 약 5자에서 7자까지 나가는데, 이것을 10분으로 환산해 보면 3000자 이상 4000자가 되는 셈이다. 그리고 말이 느린 사람이라도 10분에 2000자가 넘으니 이것을 속기하자면 1초에 6자는 쓸 수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 된다.

좀 더 알기 쉬운 예를 들면 방송국 아나운서의 뉴스방송이 대략 1초에 5자로 보고 있으니 3000자의 발언 속도는 어느 만큼 빠른지 짐작이 갈 것이다. (운동 경기의 중계 방송은 1초에 8자 이상까지 나간다) 따라서 습학자의 입장에서 볼 때 1초에 서너 자 정도만 쓰면 족(足)한 사람과, 5자 이상을 속기로 쓸 수 있을 때까지 공부하겠다는 사람과 두 부류(部類)로 나누어진다.

### ② 속기 속성

때도록 짧은 시일에 공부를 배움짓고 일상 용무에 이용을 하려는 습학자들은 이 교본 제 1편을 공부하면 된다.

그러니까 처세상 필요하어서 배우려는 습학자와 속기로써 생계를 유지해 보려는 사람과는 전혀 학습 태도가 달라진다.

### ③ 속기 공부의 완성

속기호에 대한 기필 연습 시간이 전자보다 몇 배나 길어야 되며, 한편 다량면으로 상식을 늘려서 우선 상대방의 언어를 일언반구(一言半句)라도 못알아 듣는 일이 없어야 한다. 속기호에 대한 공부와 해박한 지식을 위한 공부도 같이 해나가지 않으면 안 되며, 속기한 기호문을 우리 문자로 옮겨서 원고 정리를 하는 실력도 길러야 하기 때문에 완전한 속기사가 되기까지는 몇 달만에 되는 것이 아니다.

※속기는 국민 학교 학생도 할 수 있는 것이나 상식이 부족해서 이용을 못한다

### (3) 속기 용구(用具)와 학습 요령

#### ① 용구.....다음 네 가지면 된다

- (1) 연필...HB는 딱딱해서 못쓰고 BB짜리를 쓴다. 사프펜슬도 같다.
- (2) 용지...경지가 좋다.
- (3) 분도기와 cm자...국민 학교 학생들이 쓰는 것으로 족하다.

#### ② 공부 요령

앞으로 기호 공부를 시작해보면 알겠지만 속기호의 생명은, **정해진 길이(mm) 정해진 각도(角度) 정해진 직(直)과 곡(曲)**의 세 가지 조건을 틀림없이 지키는데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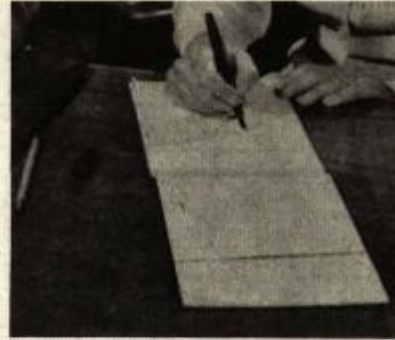
만일 한글로 **답**을 쓰라고 했을 때 **뎡**이라던지 **답**식으로 쓰는 사람은 없다. **답**이라 쓴다고 우리는 배웠고, 그리고 이 기자적(記字的) 규칙을 누구나 지키고 있는 것이다. 속기호도 이와 같다. 5mm의 길이로 180°의 직선을 쓰라는데 길이가 8mm나 되게 했다면 앞서 말한 **답**이란 한글자를 쓴 것과 같다는 말이다.

#### ③ 속기호는 손에 익어야 한다.

속기호는 기호가 간단하므로 암기(暗記)하기는 쉽다. 그러나 암기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한글자에 있어서도 머리 속에 떠오르는 한글의 형상 그것이 문자는 아니다. 필기체로 지면(紙面)에 나타내야만 문자인 것이다. 다만 우리의 문자는 이를 필기할 때 소요되는 시간을 1초에 몇 자를 쓰라는 식으로 제한을 하는 예는 없는데 속기호는 이와는 틀린다. 그림을 그리듯 천천히 예쁘게 쓰라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능력껏 되도록 빨리 적어도 1초에 세 자는 쓸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자면 백 번이고 천 번이고 되풀이하여 써서 익혀야 하며 "나"이면 "나"에 다 "ㄱ"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가며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글로 "나"를 쓰는 것이 빠르다.

#### ④ 연습 용지의 각도

우리의 한글을 쓰는 때는 용지를 자기 가슴과 평행으로 놓고 쓰지만 속기호를 쓸 때에는 받을 안 쪽으로 45° 각도로 꾸부리는게 보통이니 용지는 그 각도에 맞추어서 놓고 쓰는 것이 좋다. 특히 180°선을 쓸 때에 이 주의를 하지 않으면 140° 선으로 되어버리므로 조심해야 한다.



받은 안쪽으로 45° 각도로 꾸부리고, 용지는 그 각도에 맞춰놓음

#### (4) 우리 한글의 특성을 알자

적의 철세도 모르고 진격을 명명하는 상관이 있다면 그 싸움은 과연 이길 수 있을까? 불문가지(不問可知)이다.

우리말 속기는 우리말을 속기하기 위하여 연구한 기호이므로 우리말이나 우리의 문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면 그 결과는 변하다. 그러므로 속기 공부는 또한 우리말과 우리 한글의 공부이기도 하다. 다음의 우리 한글과 세계의 각 글의 초보적인 내용을 풀이해 놓았으니 상식적으로 알아 두어야 하겠다.

##### ① 훈민정음에 있어 초·중·종성(初·中·終聲)의 도시(圖示)

	구 분	경 음	경 음	적 음
초 성 ( 初 聲 )	아 음	ㄱ ㆁ	ㄲ	ㅋ
	선 음	ㄷ ㄴ	ㄸ	ㅌ
	반선음	ㄹ		
	순 음	ㅂ ㅃ	ㅍ	ㅍ
	순경음	ㅈ ㅊ		ㅊ
	치 음	ㅅ ㅆ	ㅈ ㅊ	ㅈ
	반치음	ㅇ		
	후 음	ㅇ ㆁ		ㅇ

중성 (中聲)	초출(初出) 중성	ㅏ ㅑ ㅓ ㅕ ㅗ ㅛ
	재출(再出) 중성	ㅓ ㅕ ㅗ ㅛ
	합용(合用) 중성	ㅓ ㅕ ㅗ
종성 (終聲)	초성 병용(併用)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중중성(重終聲)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② 세계의 문자 분류

- ◇ 표의 문자(表意文字)……한자(漢字)와 같은 상형 문자(象形文字)
- ◇ 표음 문자(表音文字)
  - { 음절(音節) 문자……모음과 자음이 따로 있는 문자 (한글 영어 등)
  - { 음운(音韻) 문자……모음과 자음이 같이 붙은 문자 (일본의 가나 등)
- ◇ 특수 문자(特殊文字)
  - { 기호 문자……속기 문자 logogram
  - { 암호 문자……정보용 기호
  - { 모르스 문자……통신용 기호

③ 회화중 한글 받침과 자음의 변화

- (㉑) '아' 행(아行)음자는 받침음으로 변한다.  
알아서→(아라서)    달아→(다라)    적이→(저기)
- (㉒) 'ㄴ' 중성+'ㄹ' 중성은 "ㄹ+ㄴ"로 변한다.  
연락선→(연락선)    인력→(인력)
- (㉓) 'ㅇ' 중성은 다음 초성을 격음화 한다.  
말다→(다타)    농고→(노코)    남고→(나코)
- (㉔) 'ㄱ, ㄷ, ㅈ, ㅊ' 중성 아래 'ㅇ' 초성이 오면 'ㅇ' 초성은 'ㅋ, ㅌ, ㅍ'으로 변한다.  
자하→(가카)    집합→(지팍)    좁혀라→(조피라)

④ 우리말 중 중성의 변화

◇ 유음문제 ……서로 발음이 유사한 중성은 흔히 발언에 있어 혼용(混用)하기 쉬운데 이와 같이 잘못 발언하기 쉬운 음을 서로서로의 유음어(類語)라고 하며, 속기학에서는 이 현상을 이용해서 편리한 기호를 쓰게 하고 있다.

- (㉑) 'ㄱ' 음과 '기' 음...기쁘다→(기쁘다) 아프다→(아프다) 고프다→(고  
푸다)
- (㉒) '나' 음과 '내' 음과 '내' 음... '나, 내' 는 전혀 같은 발음을 하며 '내' 음  
도 발음이 선명(鮮明)하지 않으면 '나' 음으로 들린다.
- (㉓) '이' 음과 '니' 음... '이' 와 '의' 는 흔히 '이' 로 들린다.
- (㉔) '제' 음과 '지' 음...제(제), 지(제), 제(제) 등 구분이 어렵다.
- (㉕) '기' 음과 구별 '히' 음...한문에 익숙한 사람은 별문제지만 대부분의 학  
생은 정확한 구별이 안 된다.
- (㉖) '나, ㄴ' 음이 흔히 '히' 음으로 변한다...자미( 재미), 사아( 새)
- (㉗) 장음(長音)을 나타내는 기법이 없어서 장음이 단음(短音)으로 변해가  
고 있다.  
발(足, 麗) 벌(罪, 錄) 정(鄭, 丁) 거(去, 巨) 성(聖, 城) 부자(富子,  
父子) 눈(雪, 眼)

③ 토(助詞)의 음변(音變)

- (㉑) 우리말은 각 단어에 언제나 토가 붙어 붙어서 말의 뜻을 규정짓는데 <  
이를 첨착(添着) 현상(現象)이라고 하며 따라서 우리 말을 첨착어라고  
함> 때로는 "차를 타거라"를 "차 타"식으로 토를 빼는 예가 많다.
- (㉒) '는' 의 토가 '니' 으로 변해가고 있다.  
우리는 간다→(우린 간다) 나무에는→(나무엔)
- (㉓) '를' 의 토가 '리' 로 변해가고 있다.  
우리를→(우릴) 가기를→(가길)
- (㉔) 기타 "지 않으면"이 "잖으면" "것이다"가 "게다"로 변해가고 있다.

④ 언어와 문장어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말도 할 때에는 서로 통하지만 그 말의 현상을 그대로 글로써 놓으면  
같이 안 되는 예가 많은데 이는 각국의 언어들이 공통되는 점이라하겠다.  
방송극이나 영화나 연극에서는 비교적 말을 추리고 붙여서 원고를 만든  
것을 쓰므로 글로써 놓아도 그다지 신경하지 않지만 일단 주고 받는 대  
화를 그대로 원고화해버리면 모순이 많아서 뜻이 통하지 않을 경우도 있  
으므로 문장어(文章語)로 고쳐 쓰지 않으면 안 된다.

# 제 1 장 기본 문자

<20일 습학 과정(課程)>

## 1

卜열자(列字)에서 卍열자까지  
(1일~8일)



### 제 1 일의 학습

#### ◇ "卜" 열자(卜列字) 쓰기

한글에 있어 모음 "ㅏ"가 쓰이는 글자 가운데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14자를 일괄(一括)해서 "卜"열자라고 한다. 이 "卜"열자는 10mm(1cm) 직선과 곡선으로 되어 있고, 자미(字尾)에 와서는 붓을 일단 멈추었다가 들어야 하며 그대로 성급히 들어서 글자 끝이 마치 벼친 것 같이 되면 안 된다.

※ 기본 문자는 어느 선을 막론하고 자미(字尾)가 벼친 것 같이 쓰면 안 된다.

만일 자미가 벼쳐지면 다음에 벼를 받침이 붙은 자가 된다.

우선 한글의 卜열자와 속기호의 卜열자를 이론상으로 비교해 보겠다.

구분	한글	속 기 호
가	초성 ㄱ + 중성 ㅏ	초성...A점에서 E점으로 가는 직선 방향 중성 10mm 180°
나	초성 ㄴ + 중성 ㅏ	초성...A점에서 E점으로 가는 하곡선 중성 10mm 180°
다	초성 ㄷ + 중성 ㅏ	초성...A점에서 B점으로 가는 직선 방향 중성 10mm 45°
라	초성 ㄹ + 중성 ㅏ	초성...A점에서 D점으로 가는 상곡선 방향 중성 10mm 45°
마	초성 ㅁ + 중성 ㅏ	초성...A점에서 E점으로 가는 상곡선 방향 중성 10mm 180°
바	초성 ㅂ + 중성 ㅏ	초성...A점에서 C점으로 가는 하곡선 방향 중성 10mm 180° 우곡선 방향 중성 10mm 180°
사	초성 ㅅ + 중성 ㅏ	초성...A점에서 F점으로 가는 하곡선 방향 중성 10mm 30°
아	초성 ㅇ + 중성 ㅏ	초성...A점에서 F점으로 가는 상곡선 방향 중성 10mm 30°
자	초성 ㅈ + 중성 ㅏ	초성...A점에서 B점으로 가는 하곡선 방향 중성 10mm 45°
차	초성 ㅊ + 중성 ㅏ	초성...A점에서 C점으로 가는 직선 방향 중성 10mm 180°
카	초성 ㅋ + 중성 ㅏ	초성...A점에서 E점으로 가는 직선 방향 중성 10mm 180°
타	초성 ㅌ + 중성 ㅏ	초성...A점에서 F점으로 가는 직선 방향 중성 10mm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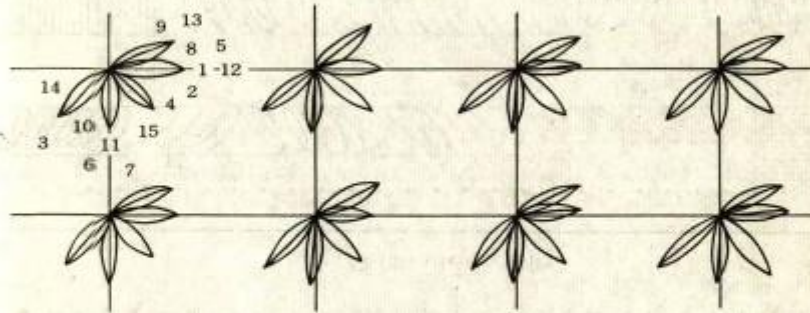


과	초성묘+중성卜	초성...A점에서 B점으로 가는 상곡선 방향 중성 10mm 45°
하	초성古+중성卜	초성...A점에서 C점으로 가는 하곡선 방향 중성 10mm 45°

※ "카"는 "가"와 같이 쓴다. 단 구별하려면 중간에서 위쪽 2mm 위치에 점을 찍는다. 속기호의 초성은 방향이니까 그 형체는 자기 마음 속에 있을뿐이고, 중성 10mm가 합쳐져서 한 자가 된다. 따라서 구성 원리(構成原理)는 같지만 속기호는 음절 문자에 속한다.

### ◇ 연습 방법 ◇

오늘은 다섯 개의 꽃잎 모양을 "가나다라"순서로 200번만 써 본다 200번이면 누구나 완전히 암기를 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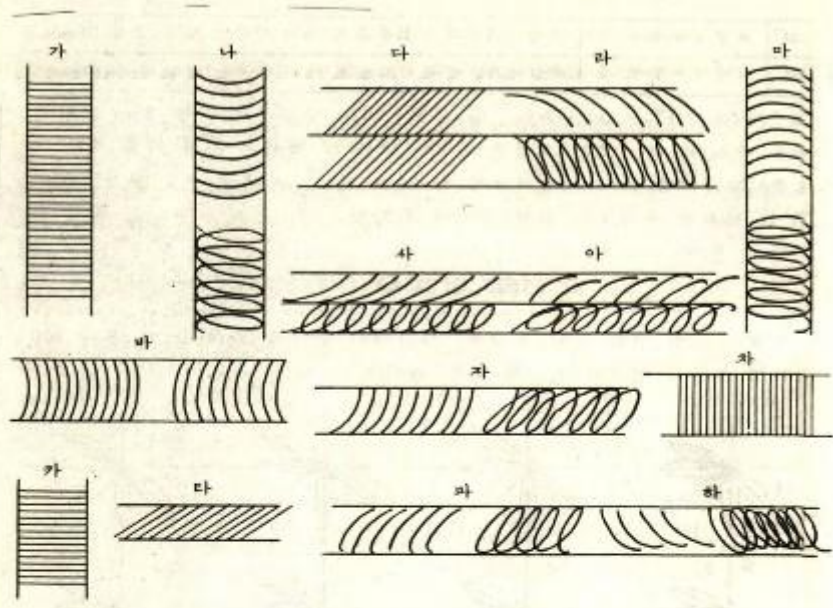


### 제 2 일의 학습

오늘은 한자 한자씩 쓰기 연습인데 AB, AC선은 7mm 평행선을 AB, AE선은 10mm 평행선을 미리 그어 놓고 그 속에서 쓰기 연습을 하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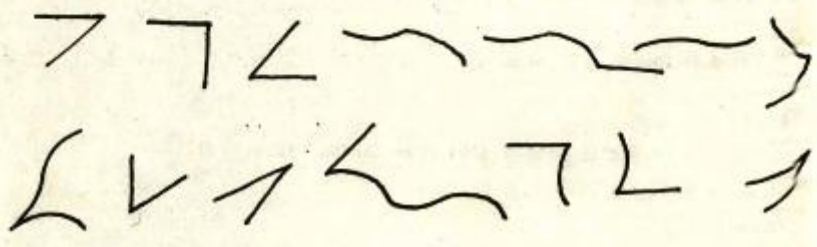
(이것은 10mm의 선의 어느 정도의 길이인지 손으로 익히기 위함이다)

<곡선은 다음과 같이 원을 그리며 연습하여라>



제3일의 학습

두 자 이상 서로 붙여서도 써 보고, 각 기호가 10mm인가 자로써 대어 쓴다. 9mm나, 11mm 즉 1mm가량의 차이는 좋으나 그 이상 틀리면 반복 연습하여 차이를 없애도록 해야 한다.



※ 한 음자 속음(續音) 기법...가가 나나 다다 라라 차차 등등 같은 음자가 계속 되는 경우는 위에 오는 자를 자미(字尾)에서 왼쪽으로 2,3mm가량 떨어진 위치를 사용해서 생략해 버린다. 그리고 속음 다음 자는 그 위치에서 부터(점을 약하고)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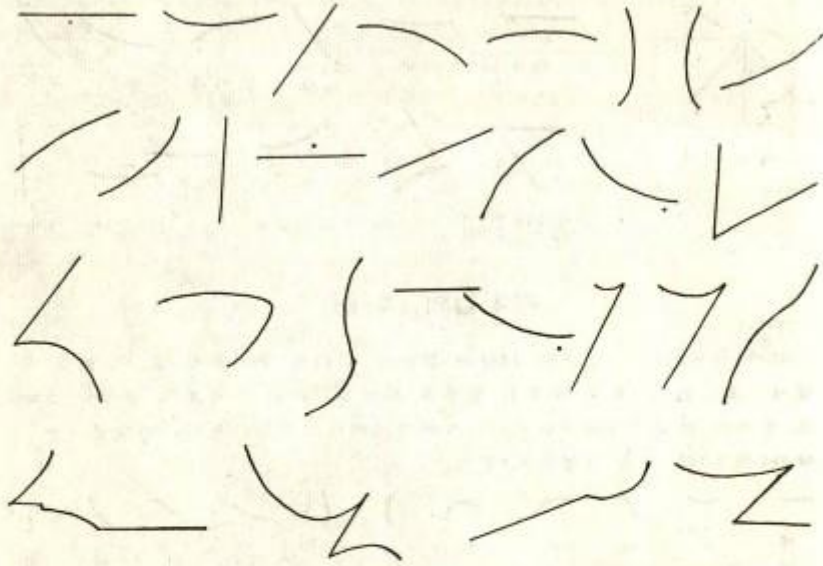
### 제 4 일의 학습

이미 사용이나 지났으니 14개의 10mm선은 이제 올바르게 쓸 수 있을 줄 안다. 오늘은 그 밖의 부호를 공부해 보기로 한다. 속기호의 중성음 5mm로 줄여서 쓰면 "거너더러머버서어저저커터퍼히"가 된다. 연습은 "卜" 열자(列字)와 같은 요령으로 한다.



### 제 5 일의 학습

ㄷ 열자(列字)를 15mm로 쓰면 ㄴ 열자(列字)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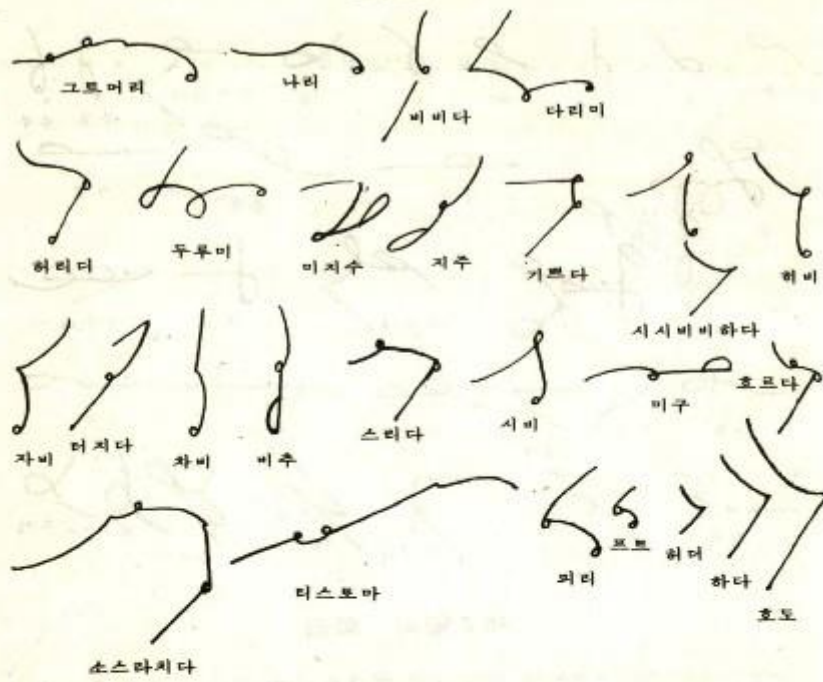


### 제 6 일의 학습

ㄷ 열자(列字)는 ㄴ 열자에다가 5mm 원의 반을 덧붙여서 쓰는데 "구부수 부부"는 위쪽 "무우"는 아래쪽 "두부(우곡), 주주"는 좌측(左側) "부(좌곡), 푸"는 우측(右側)에다가 반원을 붙인다 원은 아주 둥글게 하지 않고 타원으로 편리하게 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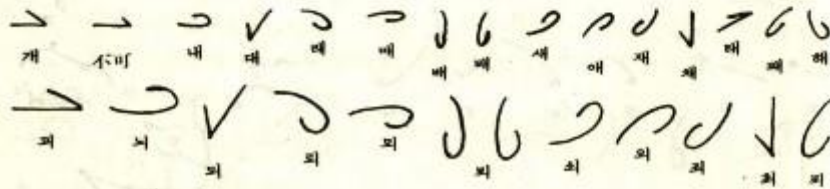






### 제 8 일의 학습

H열자(列字)는 一열자의 원을 빌려서 자 중간까지 오게 쓰며, L열자는 H열자의 두 배, W열자는 1열자를 15mm로 쓴다.





小聲) [합용 모음 (合用母音) 즉 경모음]을 합해보면 여기에 399의 한글의 글자가 생기는데 현재 우리는 이것들을 다 쓰지 않고 약 260개의 음자를 쓰고 있다.

또한 260개의 음자는 동등하게 쓰이고 있지 않는데 빈번히 쓰이는 자, 아주 드물게 쓰이는 자가 있어 어느 음자는 어떠한 정도로 쓰이느냐 하는 연구 및 기호의 성격 연구아래 고안된 것이 여기 일파식(逸波式)속기호인데 이 점은 다음에 말하기로 하고 이제 우리는 21개의 중성음운 (ㄱ ㅋ ㆁ) 무슨 수로 이미 배운 9개의 중성에다가 합치(合致)시키느냐? 또, 어떤 학술적인 근거 아래서 합칠 수가 있느냐? 하는 점을 알려는 것이 오늘날의 과제이다.

우리는 훈민정음의 중성에서 "ㄱ ㅋ ㆁ"는 제출 중성이고 기타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 등은 합용 중성임을 알았는데 이 현상을 그대로 옮겨서 몇 가지 구별 부호를 정함으로써 21자의 중성을 할 수 있게 한 것이 여기에 중성 합용의 리(理)인 것이다.

	원					리				
기본중성	ㄱ	ㅋ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
거듭음	ㄱ	ㅋ	ㆁ	ㆁ			ㆁ	ㆁ		
유 음	ㆁ	ㆁ				ㆁ				ㆁ
합 용						ㆁ				ㆁ

※ 거듭음...제출 중성은 쉽게 말해서 거듭음이라고 하는데 이 중성은 기본 중성에다가 점선 하나를 더 붙여서 된 것인만큼 속기에서도 부호 하나를 더 가해서 쓰기로 하여 이를 "거듭 부호"라고 한다.

※ 유음 현상에 의한 합용... "ㄱ, ㆁ" "ㅋ, ㆁ" "ㆁ, ㆁ" "ㆁ, ㆁ"의 중성을 가만히 들어보면 서로 비슷해서 잘 못알아 들으면 어느 음인지 모르는 현상을 나타내는데(※주-나 ㆁ도 그렇고 장음도 그렇다) 이렇게 서로 비슷한 음을 유음(類音)이라고 하며 이에 "유음 부호"를 쓰기로 한다.






※ 다음 "ㆁ, ㆁ"는 역시 유음 현상을 이용해서 |와 ㆁ에 합용시킬 수가 있으니 여기 두 중성 기호를 특히 합용 부호라 칭하여 결국 9개의 중성으로 21자의 중성을 기록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상 합용 원리가 남독이 가면 여러분은 무조건 ㅏ(ㅏ), ㅑ(ㅑ), ㅓ(ㅓ), ㅕ(ㅕ), ㅗ(ㅗ), ㅛ(ㅛ), ㅜ(ㅜ), ㅠ(ㅠ), ㅡ(ㅡ), ㅣ(ㅣ), ㅈ(ㅈ), ㅊ(ㅊ), ㅋ(ㅋ), ㆁ(ㆁ)로 알기 하여야 한다.

※ 주의 ※

이하 자미를 베었다는 표시로 → ↘ ↙ ↘ 등 화살표시로 썼으니 주의해서 학습할 것 (인쇄 기술상 가는 선의 자미베침이 분간하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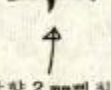
또 전체 속기호를 대표한다는 뜻에서    등 표시를 썼으니 주의할 것 따라서   은 속기호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거듭 부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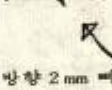
ㄷ방향 2mm 베침

합용 부호



ㄷ방향 2mm 베침

유음 부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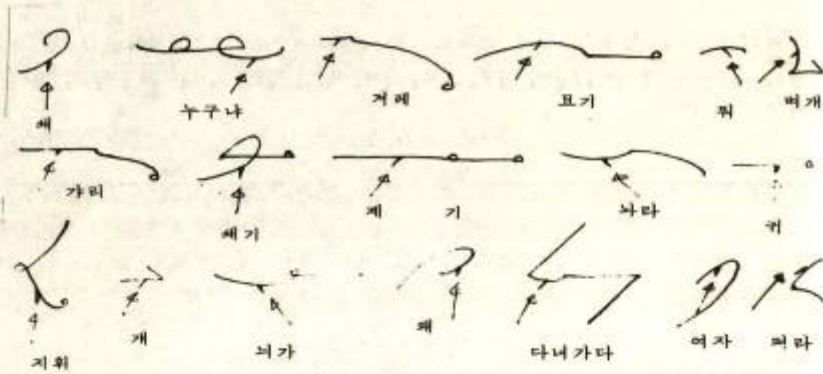
ㄹ방향 2mm 베침

각기 기본 중간점에다가 붙어서 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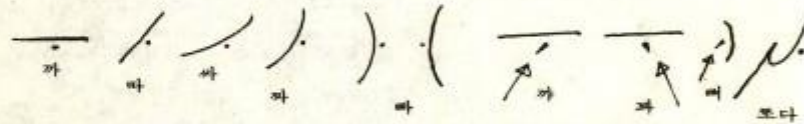
※ 22mm 베침 쓰기 요령... 2mm에서 선을 긋고 다음에 베쳐본다. 누구나 4mm 이상으로 되어 버린다. 그러므로 ㄷ방향 ㄹ방향 ㄷ방향으로 점을 베치면 2mm베침이 정확히 썬다. 즉 연필끝을 종이에 댄다가 그대로 필요 한 방향으로 향해서 들어버리면 2mm 베침이 썬다.

다음은 위에서 설명한 부호를 "사행"자로 예로 해서 쓴 것이다. 여러번 반복해서 연습해 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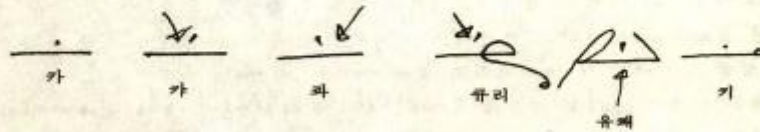




● 된소리 기호... "ㄱ ㄷ ㅌ ㅃ ㅆ"의 경우에는 중간 아래 2mm 위치에 점을 찍는다. 따라서 중성 구별 부호(거듭, 유음, 합용)는 그 위치에서부터 부호를 쓴다.



※ 카행자..... 역시 중성 구별 부호를 위에다 쓴다



◇.....이상 중성 구별 부호와 된소리.....◇

◇..... 거센소리(ㅋ) 기호는 꼭 써야 하는가?.....◇

구별 부호를 사용하면 한글 399음자가 그대로 속기호로 나타나게 되는데 실지 속기에 있어서는 점 하나 더 찍을 여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의 부호를 전혀 쓰지 않아도 속기는 한 단어(單語)를 쓰고 마는 것이 아니라서 앞뒤 연속되는 말을 써 놓고 보면 무슨 말인지 알아차릴 수 있다. 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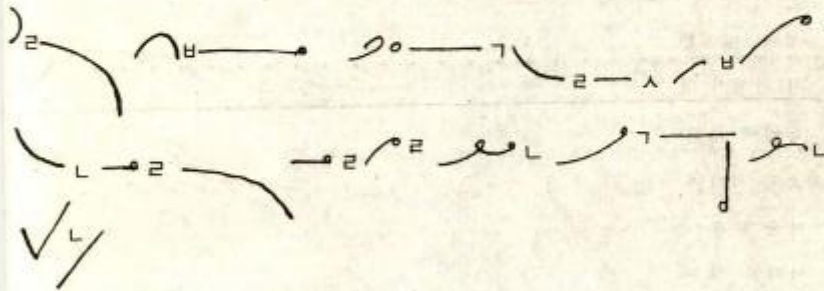
분은 꼭 필요할 때 외에는 쓰지 않는 것이 시간 절약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 "파리", 이렇게 한 마디만 쓴다면 구별 부호를 쓰지 않고는 "가  
리"인지 "파리"인지 모르겠지만 "청산가리" "파리를 본다" 등으로 쓴다  
면 쓰지 않아도 파리인지 가리인지 알아 차릴 수 있다는 말이다.

속기 예문(10일~1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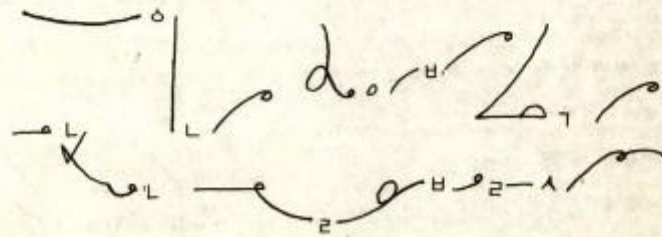
□ □ □  
□ **3** □ □ □

제10일·11일의 학습

앞에서는 받침이 없는 발만 공부하였는데 차차 받침이 있는 속기호를 배  
울 때까지 다음과 같이 속기호를 공부하면 좋다. (편의상 한글을 써 봤다)  
※문장을 쓸 때...별로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한글도 글을 쓰는 식과 같이  
쓰면 된다. 앞의 직선을 그은 별로..... 된다 라는 말을 속기문으로 써 본  
다면, (mm와 작도가 틀리면 읽을 수가 없다) 아래와 같다.



농촌의 부흥  
없이 조국의  
근대화는 기  
할 수 없을  
것이며



농촌의 부  
 용은 전시대  
 적 영농 방식  
 의 탈피와 그  
 숙명적 영세성  
 의 극복 없이  
 이루어 질 수  
 없을 것이다.

우리 사(社)  
 는 이 러한  
 시대적 작  
 성에 입각해  
 서 과학적 영  
 농법에 관한  
 모든 지식과  
 기술 및 우리  
 나라의 풍토  
 와 실정이 가  
 장 알맞은 각  
 종 실리적 부  
 업에 관하여  
 지침이 될 도  
 서들을

이해  
 하기 쉬운  
 평이한 문장  
 과 구독하기  
 쉬운 저렴한  
 값으로 출판  
 하여 높은  
 근대화 작업  
 에 미력이나  
 마 이파지하  
 고자 하는  
 마이다.

받침 기법과 약법

(12일~19일)

□ 4 □

제12일의 학습

받침(단종성·중종성)은 27자가 현용 한글에서 쓰지만 역시 유음상 합용을 피해서 7자를 가지고 쓰게 되는데 한글에서는 끝자 끝에 받침이 오지만 속기에서는 ㄱ, ㅋ 두 받침은 자두(字頭)에 오는 것이 틀리는 점이다.

※주: 우리 현용 한글은 받침을 붙여서 약 1300종류나 된다.



(1) <ㄱ 리 ㄱ>받침

"작기, 목수, 역달, 익숙, 국가" 등의 ㄱ 받침을 가진 자가 단어의 첫자인 경우 및 홀자인 경우 자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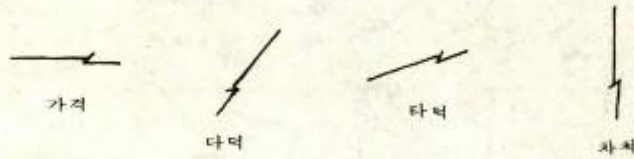


ㄱ받침을 가진 자의 자두(字頭)를 앞자의 자미(字尾)에 걸쳐서 쓰는데 이는 자두가 소직선(작은 직선)대신 쓰이게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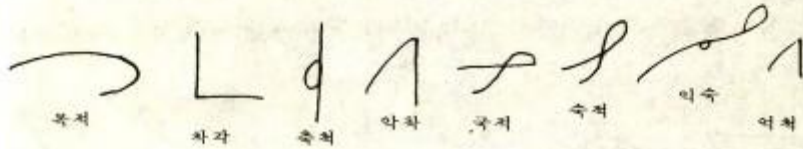
(2mm 이상 겹치지 않게 주의할 것)



① 직선(ㅡ ㅏ ㅑ)자에 동행(같은 행)자가 올 때는 다음과 같이 잇대어 쓴다.



② ㄱ받침 약자법(略字法)……단어에 있어 첫자나 끝자가 다 ㄱ받침을 가진 단어는 받침 둘을 다 안 써도 무방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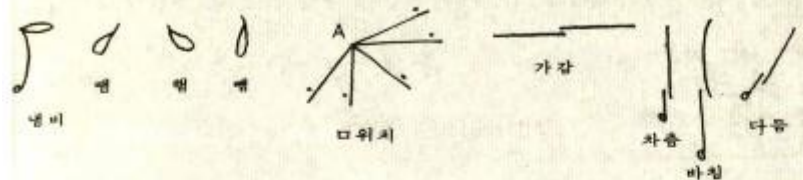


음학자에 따라서는 ㄱ받침의 기법을 꽤 복잡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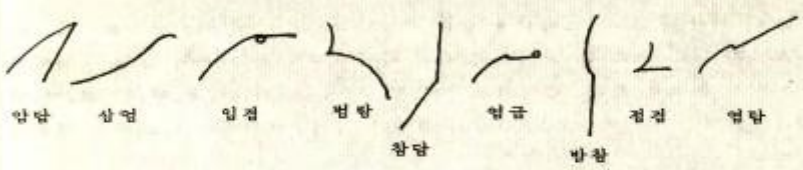




(3) ㄹ자와 ㄱ 위치... ㄹ자의 원을 더 길게 자두(字頭)까지 가져고 온다. ㄱ 위치는 AD, AE, AF선은 일음자 속음의 반대 위치이고, AB, AC선은 좌측(자미에서 2mm 되돌아간 그 바로 옆)이 그 위치가 된다.



(4) 약자법... 아다(아담) 사어(삼엄) 등등 7 반침과 같다



※주: 여기 두 반침 약자법은 이상하지도 같이 쓰이는 단어가 흔하지 않으니 안심하고 써도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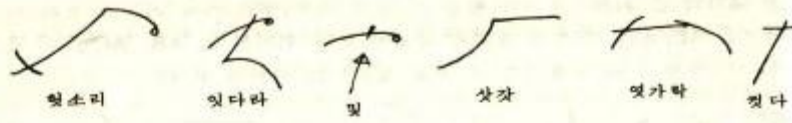
### 제14일의 학습



#### <人, 从, 亼, ㄷ, ㄸ, 天> 받침

역시 두 가지로 분별된다. "뫓, 앓"과 같이 후속어(後續語)가 붙지 못하는 경우, ㅅ다음에 음자가 붙는 경우인데, 전자는 저음부호를 가지고 중간교차(中間交叉-중간을 찌른다)하며, 후자는 ㅅ다음에 오는 자로 교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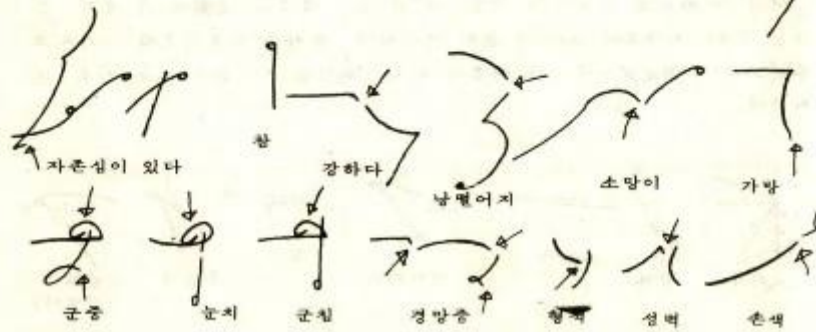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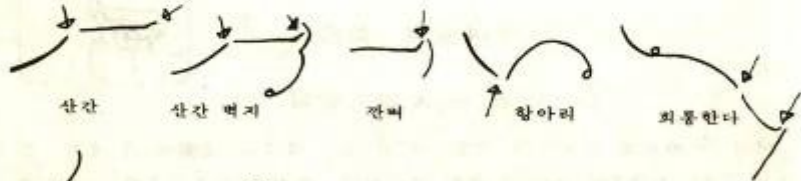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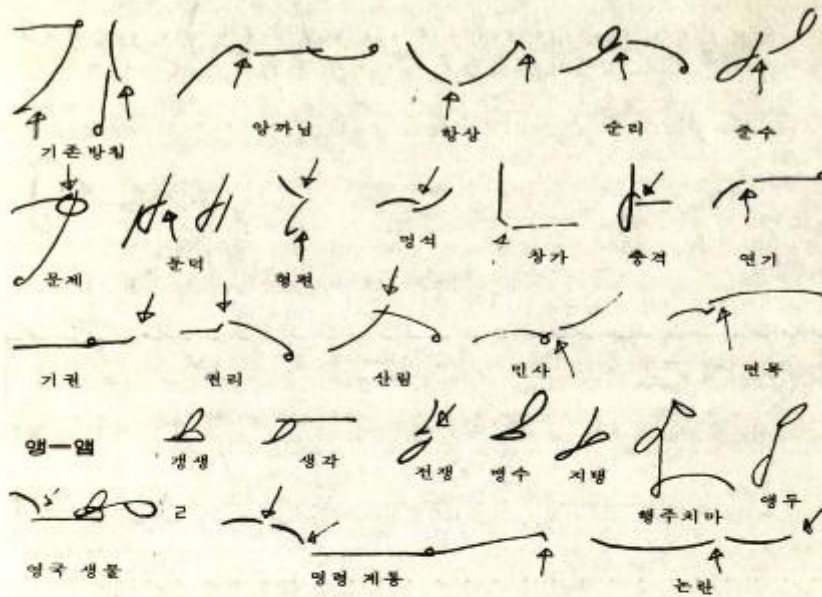
### 제15일의 학습

ㄴ은 2mm 트베침, ㅇ은 굵 2mm 베침(즉 함용 부호)을 한글식으로 자미(字尾)에 붙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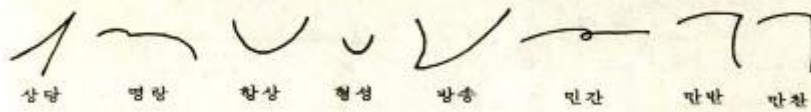
단 자미(字尾)가 ㄴ반침과 같은 방향인 자(字) 즉 "사, 서, 소, 타, 터, 트, 아, 어, 오, 나, 너, 노" 12자는 자미에다 ㄴ을 가하지 않고 자미가 베침이 되도록 쓴다. ○에서도 "와, 왁, 바, 버, 보, 하, 허, 호, 라, 러, 모, 마, 머, 모"는 역시 자미베침으로 ○이 가해진다. (자미베침이니까 mm에는 변화가 없다)

다음에 ㄷ연자리에서는 "군, 눈" 등 베침이 원 안에 드는 경우가 생기니 그리 알고 또한 베침 다음자(한 단어에 있어서)는 꼭 베침에 이어서 쓰는데 유의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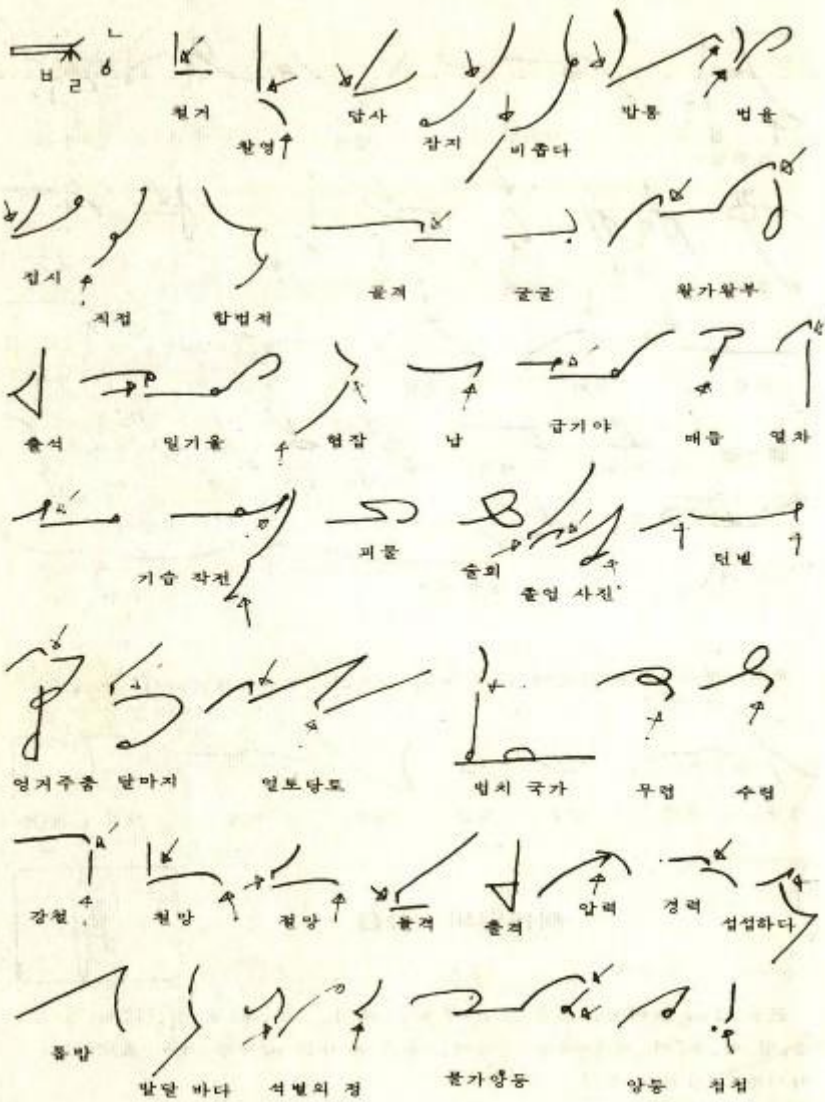
點약자법도 ㄱ 과 같은데 너무 예가 많으니 우선 몇가지만 쓴다



### 제16일의 학습



굵은 2mm 天매침, 가는 거들 부호를 쓰며, "찰, 철, 흙, 담, 님, 돛, 갑, 겁, .  
 줌, 밥, 씹, 물"이 자미 매침이 되며, 특히 ㅁ자는 시자를 겸용(兼用)한다.  
 약자법도 전자와 같다.



## 제17일의 학습



### ※ 받침 총정리

글자 하나에다가 7개의 받침을 넣어서 가령 "자, 잔, 찰, 감, 갑, 잣, 장"이런 식으로 연습해 보는 것도 좋지만 그 보다도 기법을 완전히 외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7은 자두에 붙는 규칙이 있어 그것이 좀 복잡하지만 이것도 몇 번 연습하면 이내 외울 수 있는 것이고, □에서는 곡선을 무조건 양쪽에다 가하라는 것은 선을 그리는데 자연적인 현상이니 문제될 것도 없다. 속음에서 위치를 배웠는데 여기에 人, □ 위치가 첨가되어 세 가지 위치를 공부했다. 앞으로 자주 쓰이는 것이니 잘 알아둘 것이며, ㄴ, ㄷ, ㄹ, ㅂ은 벼침 방향만 외면 곧 할 수 있는 것이며 ㅁ, ㄴ, ㅅ, ㅈ은 새로 나온 자인데 위의 크기에 조심하면 편리한 기자(記字)이며, 약자법에 있어서는 ㄱ~ㄱ, ㄴ~ㄴ, ㄷ~ㄷ, ㅁ~ㅁ, ㅈ~ㅈ을 되도록 약자법을 이용해서 써야 한다. 그것은 서로 혼용(混用)되는 경우가 희소(稀少)하여 번역에 별 지장이 없기 때문이고 ㄴ~ㄴ, ㄷ~ㄷ은 그 예어(例語)가 많아서 함부로 쓰지 못하니 우선 책에 나온 것만 쓰고 차차 경험에 따라 약자를 늘여가도록 해야 한다. 다음에 주의할 것은 단어와 토(助詞), 단어와 "라" 움직이는 반드시 바로바로 띄어 써서는 안 된다. 이것은 번역상 절대적인 어전(與件)이니 그리 알고

속 기 문	한 글
특히 주의할것은 속기에있어서는	특히 주의 할 것은 속기에 있어서는

우선 오늘날은 국어 책이라도 띄우고 다음을 골라서 써 보자.

- ◆ 2mm 벼침이란 점을 벼쳐야만 2mm가 된다.
- ◆ 벼침 다음에 ㄱ받침이 올 때 ㄱ을 뚜렷이 나타내기 위해서 3mm쯤 걸치는 것은 무방하지만 벼침에 닿아서는 안 된다.
- ◆ 벼침 위에 □받침자가 올 때 벼침을 자르지 말아야 한다.
- ◆ ㄷ열자의 □위치는 ㅌ열자의 □위치와 같다.

## 제18·19일의 학습

※ 명사(名詞) 쓰기를 반복(反覆)연습한다.

□ **5** □  
□ □ 속기 요령 (20일)  
□ □



## 제20일의 학습

### ※ 기본 문자로 속기하는 요령

앞으로 번자(一)이나 기본토(基本助詞)기법, 그리고 약간의 약자법을 배워야만 보통 속기는 완성되는 것인데 시간 관계 또는 불가피(不可避)한 사정으로 20일 간의 학습 밖에 못한 경우에도 여러 가지 속기술의 변화로 무난히 처리해 갈 수 있다.

먼저도 말했지만 속기호는 손에 익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만 한글로 쓰는 것보다 필기 속도가 빠르며, 생각해가며 쓰는 시기가 탈피(脫皮)되어야 비로소 속기 문자는 그 가치를 발휘하는 것이다. 대개 위의 기본 문자는 손에 익으면 1초에 3자(3字)는 무난히 써지지만 2초에 5자만 써도 무방하다. 왜냐하면 속기사의 속기와는 달리 요령만 추려서 쓰게 되니까 결국 연자(演字)의 말을 듣고 머리에서 그 뜻을 다시 대략 정리하고 나중에 속기하는 식으로 이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점은 약간의 수련(修練)을 쌓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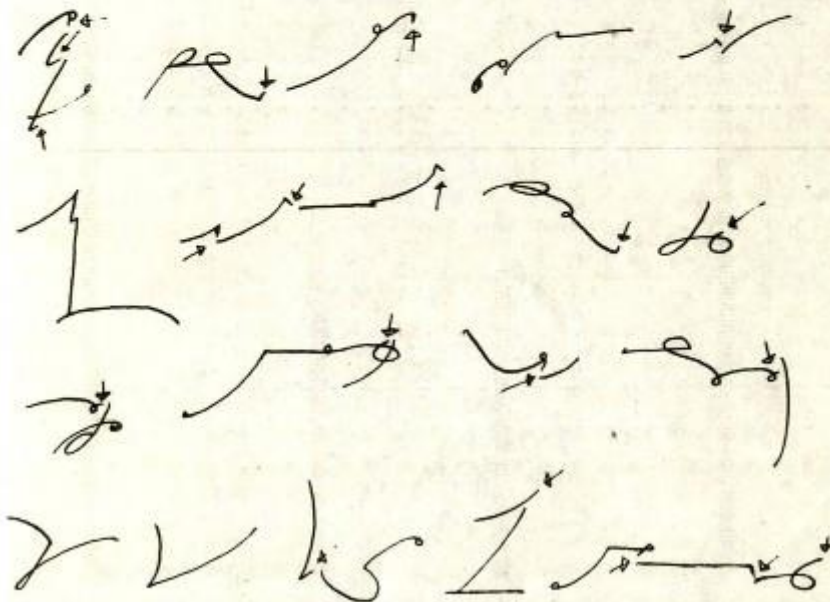
우리는 문법에서 우리말이란 언제나 “주어(主語), 객어(客語), 술어(述語)”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미 배웠었다. 따라서 이 세 가지를 재빨리 파악만 한다면 수식어(修飾語)나 또는 적당히 처리가 되는 것이니 빠른 기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 예를 들면 “화물 자동차가 이삿짐을 산더미 같이 싣고 시골길을 보안 면지를 날리면서 달려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 주어(主語)는 차(車)요, 객어(客語)는 짐이요, 술어는 간다는 것이다. 또 위의 글은 “화물자동차 이삿짐 시골길 간다”로 요약이 되므로 이러한 식으로 기록을 한다면 여유있게 기록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필자는 이를 원하지 않는다. 이상 기본 문자만으로는 속기호의 질이라고 할까 속기호가 가지고

있는 데려, 유려(流麗)한 그 기체(記體)에 대해서는 물론 모른다. 가혹에 다 비유한다면 지붕위에 기와까지는 없어 풍찬노숙을 면했지만 내외부의 수리를 해야 되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기본 문자는 일상 언어 가운데 어휘의 사용률이 많고 적용을 적절하게 반영시키지 못하고 일률적인 기법을 적용해서 고안된 것이기 때문에 무리한 기호가 적지 않게 섞여 있다. 이것을 질서있게 정리하려는 것이 다음의 10일 과정의 학습이니 이 학습을 마치면 비로소 속기호다운 속기호가 되고 또, 10분에 2700자 정도로 쓰게 되어 대학의 강의 정도는 완전 속기가 가능한 것이다.

이미 첨한 고개 하나는 넘었으니 다음 고개를 오르기 위해서 준비 배세를 갖추어야겠는데 그것은 이상 기본 문자로 일본에 60자만 써지면 출발을 할 수 있으니 그 정도의 실력이 확보된 사람은 자기의 속기호가 다음의 속기호와 같이 써지는지 참고로 써보자

※ 주의... 화살 표시는 속기호가 아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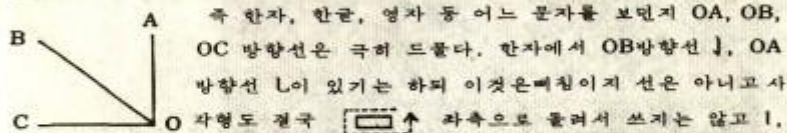


☆ 속기 상식(速記 常識) <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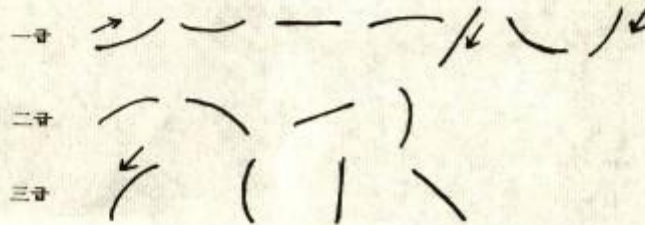
◇ 속기호의 안출(案出)

민족 문화는 아니되 일반에게 보급시킬 수 있는 속기호의 문자다운 구성은 그 연구자가 이를 공개하지 않는 한 일반이 알 길이 없으니 이로써 초래(招來)되는 일반적 오해를 풀기 위해 여기에 속기호 구성의 일면을 소개코자 한다.

현재 각국의 문자는 이를 부분적으로 해체하여 보면 점(點) 또는 선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기자(記字)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기호이고, 기호는 점과 선으로 분리된다"는 정의(定義)가 서는데 여기에 형용 문자에 사용되는 선을 도식(圖示)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7, -의 순서로 쓰게 되니 OA, OB, OC선은 기자상(記字上) 역선(逆線)이 된다. 그리고 우리의 기자와 언어와의 속도의 비는 1 : 6으로 볼 수가 있으니 속기호의 안출은 불가피의 일이고 속기학의 기본 기호는 한글의 복사체인 동시에 속도성과 학습성이 갖추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중(二重)노력이 필요하다. 이미 공부한바 속기호로써 1300자의 현용 한글자의 기호를 작성하려면 창안자(創案者)는 우리 자자 음자의 사용률에 대한 고구(考究)와 단선(單線)이 가진 속기적 성격에 대한 고구(考究)가 깊어 그 합치에 여지가 없어야 되겠음은 물론이다. 이 원리 아래 이제 단선을 세 급수(級數)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 제 2 장 실용 약자(實用略字)

<10일 습학 과정(課程)>

한자에서도 수많은 약자(略字 體=體)와 초서(草書)체가 있어야 정자(正字)보다는 훨씬 간편한 글씨를 우리는 쓰고 있다. 한글 역시 필기체는 활자체처럼 절자도 쓰는 것보다 편하다.

속기호에서도 기본 문자를 변모시켜서 더 간편하게 만든 것은 약자라 하며, 약자법이라는 것은 한 가지 규칙을 내세워가지고 다른 단어 기호를 하나하나 약자화하는 식을 속기에서는 극히 위험시 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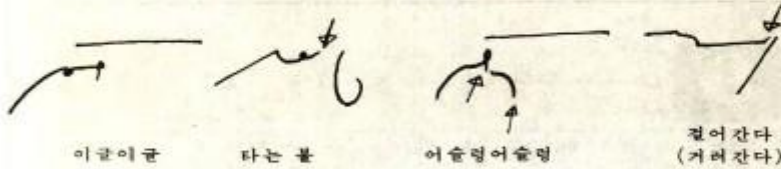


### — 이음 속음 기법 —

□ □ 6 □ □  
□ □

#### 제21일의 학습

“길이길이 행복하게” “미리미리 준비하라” “차근차근히” “어슬렁어슬렁” 등 이음 속음 의의 속음은 중간상에다가 “고”자를 쓴다.



### — 반복어 기법 —

□ □ 7 □ □  
□ □

반복되는 같은 단어를 약하려면 X기호를 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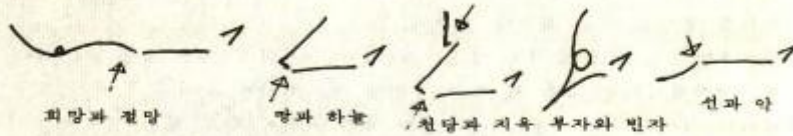


□ **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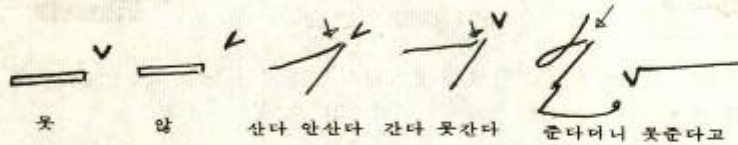
— 반의어(反意語) 기법 —



반의어 즉 반대말은 자미(字尾) 트방향 3mm 위치에 "터더"라는 기호를 3mm로 써서 표시한다.



동사(動詞)에 있어 "못, 않"(부정사)이 붙어서 반의어가 되는 경우는 기호의 방향을 달리해서 구별한다.



□ **9** □

— 동행 약자법(同行略字法) —

제22일의 학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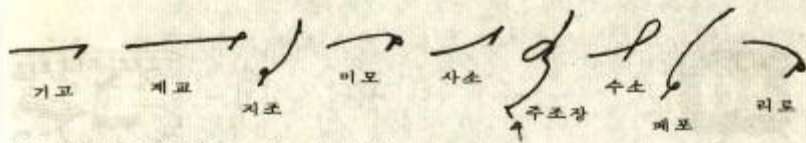
(1) 동행의 뜻

"아행"이라면 "아아어어오오우유으이에애외".....등의 21자를 한 마디로 말하는 것이니 가행 '아' 행에서 '노' 자라면 '오', 가행에서 '이' 라면 '기' 를 가르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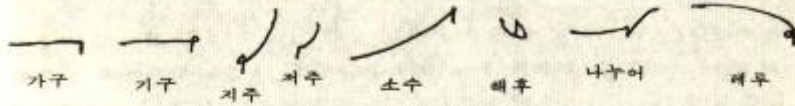
(2) 동행약자법

따라서 동행자 가운데 서로서도 약기할 수 있는 기법을 정한 것이 이 법인데 여기에 사용되는 새로운 기호를 앞으로 동행기호라고 칭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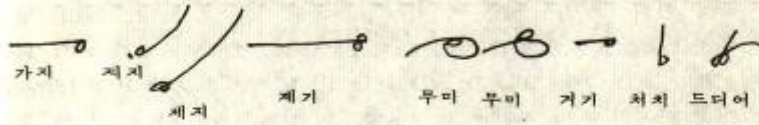
- ① 동행 "노" 기호..... 2mm "니" 기호(즉 베치지 않은 '비' 종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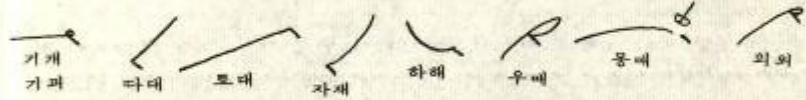
② 동행 "T"기호..... 2mm "츠"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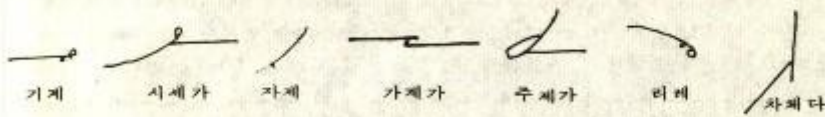
③ 동행 "l"기호... 2mm 소원(小圓)을 "l"옆자의 소원의 반대쪽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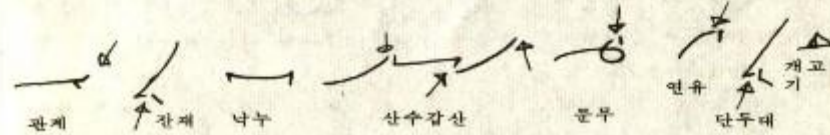
④ 동행 "H, H"기호..... 2mm Ab 직선



⑤ 동행 "ㄱ"기호..... 이것을 자미(字尾)에 2mm 띄운 위지 즉 10mm자(字)면 8mm쯤, 5mm자(字)는 3mm쯤, 15mm자(字)면 13mm쯤의 위치에다가 "ㄱ"자 다음자를 붙여서 쓰며, 만일 "ㄱ"로 끝나는 말이면 점을 붙여서 찍는다.



⑥ 알자가 빠침이라도 물론 기호는 쓴다. 또 동행끼리도 쓴다.



❖ 상당히 효과적인 약자법이니 음미(吟味)해서 심분 이용하라.

□ 10 □

— 4 음자 숙어(熟語) 약기법 —



제23일의 학습

“원수는 의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라는 말이 있다.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던지……이것은 순수한 우리 말이지만 한편 이말은 한자어로 “오월동주(吳越同舟)”, “동가홍상(同價紅裳)”이라고 하는데 이말도 우리는 예사로 쓰고 있다.

이밖에도 “어리석으면서 악은 세 한다”는 것을 “조삼모사(朝三暮四)”명병한 사람들을 “장삼이사(張三李四)”, 역울한 일을 당하면 “오비이락(烏飛梨落)”이란 말을 쓴다. 또 고난(苦難)이 격심할 때 “설상가상(雪上加霜)”같은 처지하에 있어 보아야 서로가 사정을 알 수가 있다는 말을 할 때 “동병상련(同病相憐)”이란 말을 쓰는 등 현금 우리 사회에서는 그 사용 예는 허다(許多)하다.

좀 더 말해보면 “삼황오제(三皇五帝)”라면 중국 고대의 수인(舜人→天皇),伏羲(伏羲→地皇), 신농(神農→人皇)의 3 황제와 황(黃), 전욱(顓頊)제곡(帝嚳), 요(堯)순(舜) 등 5제(五帝)를 말함은 다 아는 바이다. 이어서 주(周)나라가 제후(諸侯)에게 존왕양이(尊王攘夷)를 요망했던 일 그리고 언제나 약자(弱者)는 강자(強者)에게 먹히는 것이 역사이니 약육강식(弱肉強食)이란 말이 나오고 오(吳)나라의 왕 부차와 월(越)나라 왕 구천의 그 피맺히는 싸움은 오늘날 “오월동주(吳越同舟)” “와신상당(臥薪嘗膽)” “회계지치(會稽之恥)”라는 말을 남겼고, 진(秦)대에 와서는 진나라를 대항하기 위한 “합종연형책(合從連衡策)” 소진과 장의의 능변(能辯)에 의뢰 좌우되었고, 그 후 제자백가(諸子百家)에 이르러 공자는 “인의예지(仁義禮智)”와 “효제충신(孝悌忠信)”을 노자는 “무위자연(無爲自然)”, 장자는 “부귀공명(富貴功名), 입신출세(立身出世)가 초로인생(草露人生)의 일장춘몽(一場春夢)임”을 말하였고, 장상(王侯將相)이 어찌 세가 있느냐는 말까지 나왔다.

이러한 고대(古代)의 예도 예거니와 4 음숙어(四音熟語)는 이렇게 사회에서 나온 것 외에 “결초보은(枯草報恩)”, “십시일반(十匙一飯)”, “조족지혈(鳥足之血)”, “연목구어(緣木求魚)”, “백척간두(百尺竿頭)”, “양두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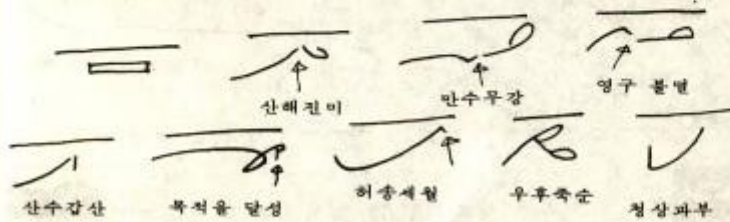
육(羊頭狗肉), "교각살우(矯角殺牛)", "진합태산(塵合泰山)", "적반하장(賊反荷杖)" 등 숨은 뜻을 내포(內包)하고 있는 것과 관습화(慣習化)된 것에 : 권모술수(權謀術數), 유구무언(有口無言), 가렴주구(苟斂誅求), 광명천지(光明天地), 감개무량(感慨無量) 등이며, 반대어인 것은 흥망성쇠(興亡盛衰), 일진일퇴(一進一退), 권선징악(勸善懲惡), 남전북담(南田北畝), 갑론을박(甲論乙駁), 원인결과(原因結果), 조반석죽(朝飯夕粥), 동문서답(東問西答) 등, 속음(續音)으로 된 것은 대대손손, 형형색색, 구구절절, 시시비비, 자자손손, 허허실실, 정정당당, 방방곡곡, 지지부진, 신신부탁, 철철단신, 전전긍긍 등 위 단어가 여러 가지로 쓰이는 것 등...

이상과 같은 말을 속기할 때 구태어 너자를 다 쓸 필요가 없음도 짐작이 갈 것이다. 속기학상 이를 두 가지로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 (A) 위의 예와 같이 4자가 한 단어(單語)처럼 된 속어
- (B) 두 단어가 한군데 붙어서 합용 4음속어(合用四音熟語)로 1만 위 단어가 바뀌어 쓰이는 것

따라서 (A)에서는 별문제가 없지만 (B)에 있어서는 후속단어(後續單語)가 합용어(合用語)가 아닌 것인 때는 기호를 바꿔서 쓰는 수밖에 없는데 우선 합용어에 한정해서 쓰기 바란다.

예컨대 "범인을 모조리 잡았다" 하면 흔히들 "일망다진"이란 말을 쓰는데 때로는 "일망포박"이라고도 하니 결국 흔히 쓰이는 다진을 위주로 해서 쓰라는 말이며 또 목적을 달성과 같이 두 단어 사이에 토가 들어와도 이 기법은 그대로 쓴다.



※이의 효과적 이용은 자기 식견(識見)의 다과(多寡)에 달려 있다.

□ **11** □ - 구(句), 속담(俗談)과 숫자 기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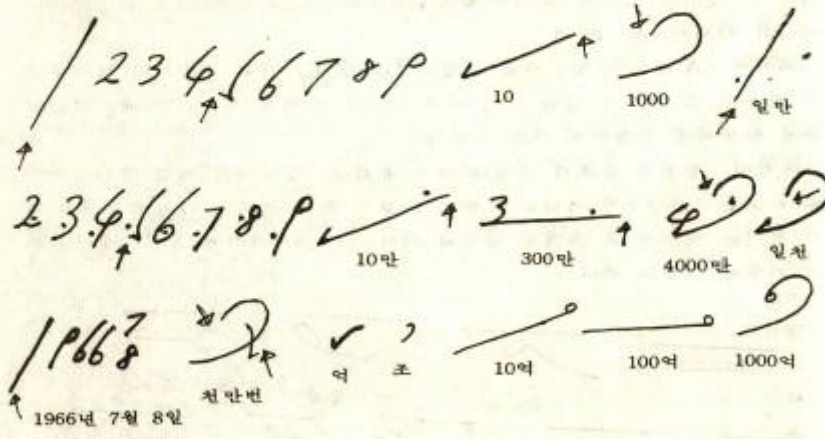


(1) 앞의 4 음자 기호와 같다.

천상천하(유아독존), 소 잃고 (오양간 고치기), 만복(홍중 흥 일점) 태산(명동에 서 일필), 구술이 서말(이라도 제야 구술이다), 개천에서 ( 용난다),

(2) 숫자 쓰기

1 자만 15mm 둘자로 쓰고 9까지는 지금 쓰고 있는 그대로 쓴다. 0은 정자로 쓰며 10은 본자+7중성, 100은 고자의 자미비침, 1000은 "소+팍" 10000은 □위치 가점(加點)이다. "조(兆)"는 2.5mm 직을 쓴다.



□ **12** □ - 변자(變字) 가호 -



제24일의 학습

✦ 고등견으로 진학할 사람은 24일 이후 30일까지의 과정은 필요 없다.  
동행약자법으로 동행간의 자체(字體) 정리는 피었는데 이행(踐行: 다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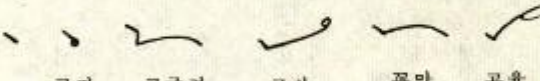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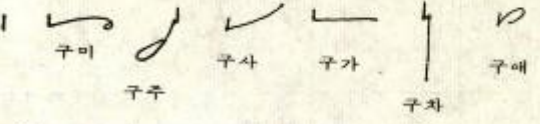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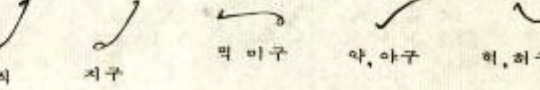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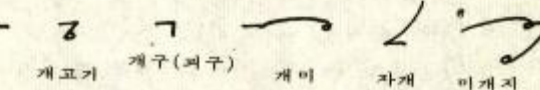
행) 간에서는 같은 방향 15mm 자가 지속될 때 다른지 너무 지면을 많이 차지하고 도 써 놓은 문체(文體)의 미관(美觀)도 좋지 않을뿐, 속기의 주목적(主目的)인 속도 해결에 장애가 되는 기호가운데서 (여기: 一編) 무반침자의 변자(變字) 전부와 반침자 중 빈도가 잦은 것 약간을 공부 함으로써 문체 정리를 꾀해보려 한다.

앞서도 말했거니와 이 기본편(基本編)은 속기사가 되려는 사람은 물론이지만 그의 여러분의 일상 용무에 효과적인 필기력을 교시(敎示)코자 기술(記述)하는바인만큼 최대한(最大限)으로 기호를 줄이고 줄여서 약 1개월간에 끝마침으로써 습학자(習學者)들에게 이상 더 시간적 부담을 안주려는 것이 필자의 의도(意圖)이다.

여러분도 이점을 명심하여 일편(一編)을 완전히 마치고 다음에 기외 있는대로 이편(二編)을 학습해 주었으면 한다.

### (1) 무반침자의 변자

변자는 그 기호의 성질상 단어에 있어 첫째자니 둘째자니 특히 지정을 하게 되는데 이하(○표시……첫째자에만 씀, ◎표시……둘째자에만 씀)두 표시에 주의하도록 한다.

<변자>	<기법>	<기호와 예문>
○고 단 의 "고"	동행 H 기호	 고기    고구려    고시    꼬마    고유
○구	동행 T 기호	 구미    구사    구가    구애 구주    구차
◎구	동행 "ㄱ" 중성	 직    지구    맥 미구    약, 야구    히, 히구
개, 피	2mm AE 직선	 개고기    개구(피구)    개미    자개    미개지

		외수	괴수	개시	해괴	수괴
◎ 거	동행 세					
		유패하다	주계변	시세 시계	사졌다	
도	"괴"					
		도자기	기도	도모	도아	
두, 투	"트"					
		두기	투사	두루미	간두	
대, 태	"터"					
		대개	사태 사태	기대	거대	
무	개변자의 자미 배침					
		무기	무리	가무	사무	
모, 포 부부	ㄴ 중성					
		모류	꽃내기	모수 포수	포착(부착)	
세	5 mm A D 직선					
		세미	세계	세수	사세	
아행	아=너 와= 5 mm원의 좌측					
		아	아	와	어	어
				워	오	요
					우	유

	오=더 우=쳐	
	어=머 에=세	은 이 의 위 에 예 에 예 의
	변자	
	왜=외 이	왜 왜 와가 너와 아이 더리오리
○조	2mm 저자	조사 조기 기조기 대조
○제, 폐	"남"	
		제사 폐사 제조 폐지 제압 제외
○제, 제	변자 "제"	
		카페 유예 견제 완제 견제 견제
조	동행 T+2mm E	
		조사 기조 조토 조복
외	배	
		외대 외 외교
추	좌측 "바"	
		추가 추구 추궁(총구) 추리
좌제	리제	
		AB, AC선 다음에 오는 경우예함 도취
외	움직씨(動詞) "원다"의 경우	
		되, 되다 원다 됐다
		AB, AC는 자두에서 기타는 자미에서 E방향 5mm위치 원 것이다.      되겠다

하(이) 움직여서 "하다"  
 지성사 "이다"

자미적칭 1mm위치  
 하다 이다  
 자미에서 트방향 5mm  
 한, 한다 (인)  
 □ 위치 있다 썼다 쓰다

10mm 20mm  
 할 것이다 하겠다 이겠다  
 피시켰다 지적한다  
 주의하겠다 좋게하겠다 한다  
 잘할 것이다

(2) 속기 예문

이상 약자법이 기본 문자의 문제로 어떻게 변양시키는지 살펴보자

① 매우 무리한 요구이지만

(기본)

(약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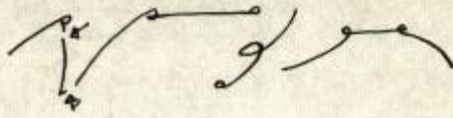
② 그 가구의 제작과점용

(기본)

(약자)

③ 일반에게 주지 시키라.

(기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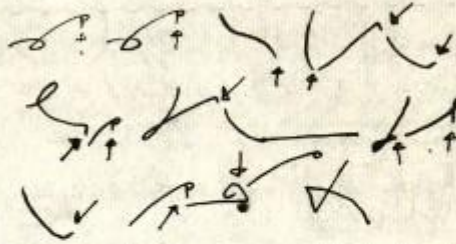


(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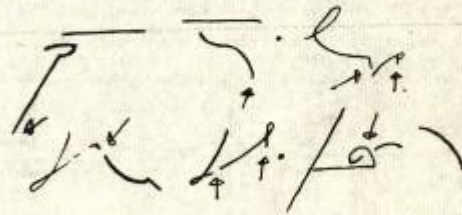


④ 매일매일 허랑방탕한 생활을 지양하고 진실한 일꾼이 되라.

(기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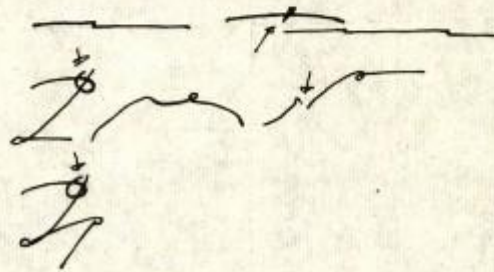


(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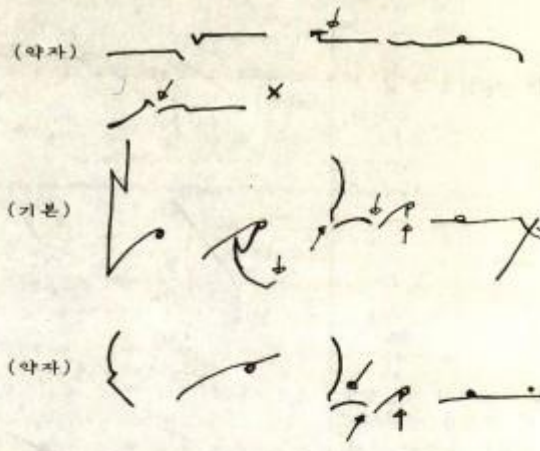


⑤ 가고 못가고가 문제가 아니라 성의가 문제이다.

(기본)



⑥ 최초의 위대한 발명을 그가 했다



제25 · 26일의 학습

오늘은 받침자 중에서 많이 쓰이는 것 몇 가지를 습학한다.

< 변자 >	< 기법 >	< 기호와 예문 >				
◎ 자	ㄱ 받침을 반대쪽에 한다.	기 자	미 자	호 자	유 자	다 자도
◎ 나	구멍자로 용용할 수가 있다	고 막 고 막 고 학	도 학	계 학	계 학 식	지 학 (지 자)
작	잡	가 작	시 작	조 작	작 심	타 작

국	"국"	1							
○국		국	↑	미국미국	↑	국가	시국	국회	
꽃, 꽃	"국" 번자 ㅍ=ㄱ		다음자에서는 다른 받도 ㅍ=ㄱ이다				꽃	꽃	꽃
강	5mm원의 우 쪽 반쪽								
		강기	강산	강구	강개	조강지처	강조		
○다	계등부호+쓰 ㅈ으로도 응용 한다								
사, 사, 못		가져	받짓	세앗	다뜻	비슷	추겨		
꺾, 꺾, 환, 별	A.D 10mm 직선								
		꺾약	꺾개	5월	대꺾	대꺾	꺾짜		
"구"의 받침자		1		1					
		국	군	구	중금	군대	미군(미문)		
○금	"ㅁ"을 반대 편 함 ㅂ으로 이용 한다								
		가금	가슴	다음	사금	지금	저금	기름	마음
		가금	가슴	다음	그금달			기금	
육목 육목	숫자의 6을 함								
		육상기목	대목	수목관리	육수철산				
○목회	"ㄱ"								
		기회	제회	기독교	가득	지득하다			

○동 동 ○동	○+ㄱ		수은동	전동	동동	형평동	특정 동	우동
○북북	ㄹ+ㄱ		이북하다	가북하다	시무북	얼북		
○법법	ㅁ중성		모법	수법	사법	시법	시험	
○속속 속	2mm 직선용 자구에 걸친 다		속기	속사포	속지	속수부채		
○속속 속	글자 중간에 붙인다		만속	유속	위속	제속		
○습, 첩	저음 부호		기습	자습서	간첩	이첩		
○송성	유음 부호		특성	3송	소성			
○죽죽	함음 부호		관죽	규죽	오죽			
○회	중간 아래로 들어간다.		국회	이사회	무도회	악자	사회	
전점점	"점"을 쓴다 다음자는 그 아래서 쓴다		전기불	가점에	다정한	독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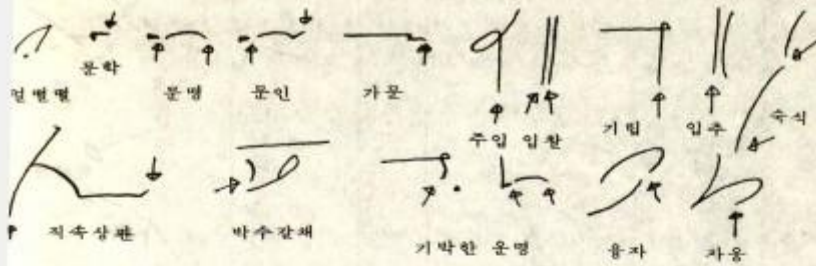


품	"외"자 자미 배침					
학학	"크"자의 반					
훈훈	"외"자 자미 배침					
순순순	"부"의 자미를 내민다.					
업	ㅂ 앞자가 빠지면 이면 중간으로 들어간다.					
용, 동 행	ㅇ					
존중	우곡 "브"의 소원으로 된 게 해서 작제 음					
년·일	ㄴ + ㅁ = 년 ㅁ = ㄹ					

이밖에 이 열자의 소원(작은 원)을 빌리면 2이 되고, 기본 문자 느=곤, 공. 브=건, 결. 스=성, 처=것, 우. 좌좌 "브"=신, 심, 심 우쪽 "브"=진, 징, 집. . 츠=철. 딘=실 "신" 문자+ㄱ=질, 철 산, 상=라(字) 술, 송=문 익=폐(15mm) 장, 잔=안 중, 손=은 장=갈 중=줄 집=질 단=달 단=달 유=불 랑=단, 랑, 양 랑=년, 영, 영 등=동 희=흙 호=열, 협 요=육, 흘 처치=을, 우리 드=단, 탈 단=단, 당, 당 단=단, 당, 탈 단=단, 동, 동 단=단, 탈 단=단, 탈 유=입, 돌, 돌 리=장 르=중 "우" 문자=문 잘=립, 입, 님 랑=숙(+ㄱ이면 죽, 죽) 유=식(+ㄱ이면 직, 직) 박="뎌"자를 2mm로 쓰고 "의"자를 비쳐서 흥, 흥, 흥(15mm 무=연, 려, 녀)으로 쓴다.

☆ 변자 예어(例語) ☆

진 빌 필수 곤경 공기 전지 성의 이성 것이다  
 심심하다 진정이다 첨가 실수 손실 고집 질서 상상(상상)  
 출생수법 의사 잔존 잠시 존재 곳잡  
 집속 말본색원 불 양국 안녕 영국 담대 담힘대  
 현안 침수목 우리나라 당구 당당히 동력



— 기본토 기호 —

□ 13 □  
□ □ □

제 27 일의 학습

우리말에서 토(助詞)를 빼면 어떻게 될까? 영어와 정반대인 철착어 현상이 여기 토에 있으니 만일에 토를 빼놓고 쓴다면, 많은 모순된 말이 속출할 것이다. 그러므로 토가 각 품사에 붙어야 그 생명이 있는 관계로 이 토 기호는 반드시 전 단어에 잇달아 쓸 것은 물론이며, 우리 문법에서는 명사(이름체)지만 토의 역할을 하는 명사일체를 속기호에서는 토로 취급했으니 이점 착오없기를 양해를 구하는 바이다.

※ 일의 숫자는 mm를 나타낸 것이다

토	기호	예	토	기호	예
가	10	내가 그가	고	25	가고 주고
이	5	산이 물이	에 의	5	그의 것 저의 손
과 와	5	산과 물과	것	5	나에 우리에게
은 는	2	나는 여름은	일	10	일이다 것과

문	2 L+기	누구는 거문	문	10	그것문 너문
뜻	2	그렇듯 약자	따름		팔따름
같	10	그리 그러 그러나	다가 가	속음위치	
같다		그와 같다	하다		그리 하다가
갈	10	고 다고	되다 가		가게 되다가
갈 것	2	가갈 것이다	마다	3	저마다
까지	2	거기까지	마따 나		말마따나
도록		그처럼 너처럼	마자	5	너마자
처럼	3		까닭 까닭 에	3	그런 까닭에
처럼			위해		하기 위해
대로		원형대로	때문 때문 이		그때문에 그때문이다
조차		그보다			
보다	15	그보다			
보담	15	그보담			
문	5	그리보 것으로			
으로					

부터	15		그로부터	만큼		그만큼	할만큼
부터	15		거기부터	만치		그 만치	껏만치
한테	15		너한테	어만		너만	다만
함께	2		너와 함께	만이		너만이	나만이
나를	2		그런 나를	도	5	나도	것도
마져	5		그 것마져	서	5	거기서	거기에서
더러	5		너더러	음물	5	나물	삼을 것음
마워	10		그 마워	나워		할나워	
계정	2		거기계정	잡다		로 잡다가	
밖에	10		그밖에	나때	15	그러할 때	
리저	10		갈저	리줄	10	삼줄	
리산	10		갈산지	리배	15	삼배	
리것	10		갈것인지	리편	5	삼편에	
리것	10		갈것인지	리당정	2	삼당정	

근 것 일지	10		잘 것 일지	2		살 파름
근 수 북	15		잘 수 북	2		살 뜻
근 지 라도	15		잘 지 라도	20		살 수 있다
근 진 대	10		잘 진 대	20		살 수 없다
근 지 연결	10		잘 지 연결	20		살 수 없다
근 수 밖에 근 수 밖에 없다	20		잘 수 밖에 없다한다.	20		살 수 없다 다고

약과 1 다고

※ 모의 표가 합쳐진 경우, 특히 "모, 도, 은"은 다음과 같이 쓴다.

모	-----		것으로		밖으로
도	-----		서도		모도
은은것(수한것)	-----		수한		은은수
보서	-----		은보서		것은보서
예서	-----		예서한		예서도



— 부정사 기호 —

□ 1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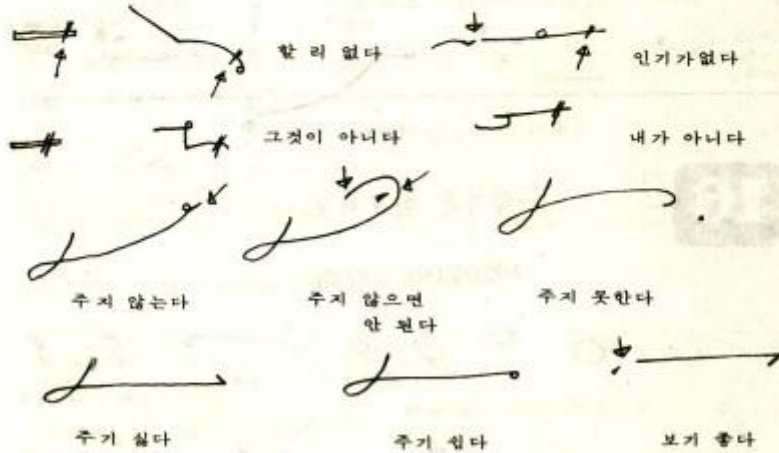
제28일의 학습

다음의 몇 가지만 알면 부정사는 그 대의(大義)를 파악해서 틀림없이 기록할 수가 있다.

(1) 없다(않다)는 자미(字尾)를 ㅂ으로 자르고 "아니다"는 두 번 자르면 되며 "못한다"는 ㅅ으로 자른다.

그외에 지, 않는다.....20mm "세" 자+ㄴ, 지 않으면.....20mm "쇠"자 외 자미(字尾)버짐, 지 못한다.....20mm "에"자의 소원(小圓)을 벌린다.

(2) 싫다.....자미(字尾)를 ㄹ로 자른다, 기 싫다.....20mm거리의 소원(小圓) 벌림(자미를 반대로 꾸부리면 기 좋다가 된다), 기 쉬웁다.....20mm "기"자를 쓴다.



(3) 할 수 없을 것이다. 하면 이는 할 수 없다는 뜻이며 없는 것으로 안다(없다). 이러한 식으로 기호를 이용한다.

□ **15** □

— 동사 기호 —



제29일의 학습

동사(動詞)의 과거사나 현재 관계 용어도 “한다, 했다, 된다, 됐다, 하겠다, 되겠다, 할 것이다, 될 것이다, 했으니”의 대략 열가지만 쓰면 족할 줄 안다.

□ 위치가 짝  
했다  
쓰다

갔다

내가 했다

산이 있다

그렇게 한다

그가 할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

오게 됐다

했으니  
있으니  
쓰으니

했겠다

될다

했으니

의겠다

하겠다

2mm

□ **16** □

— 약자의 이모저모 —

제30일의 학습

주의

민주

민주주의

사회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제

대체

대체로

10

15 mm

만드시

바야흐로

오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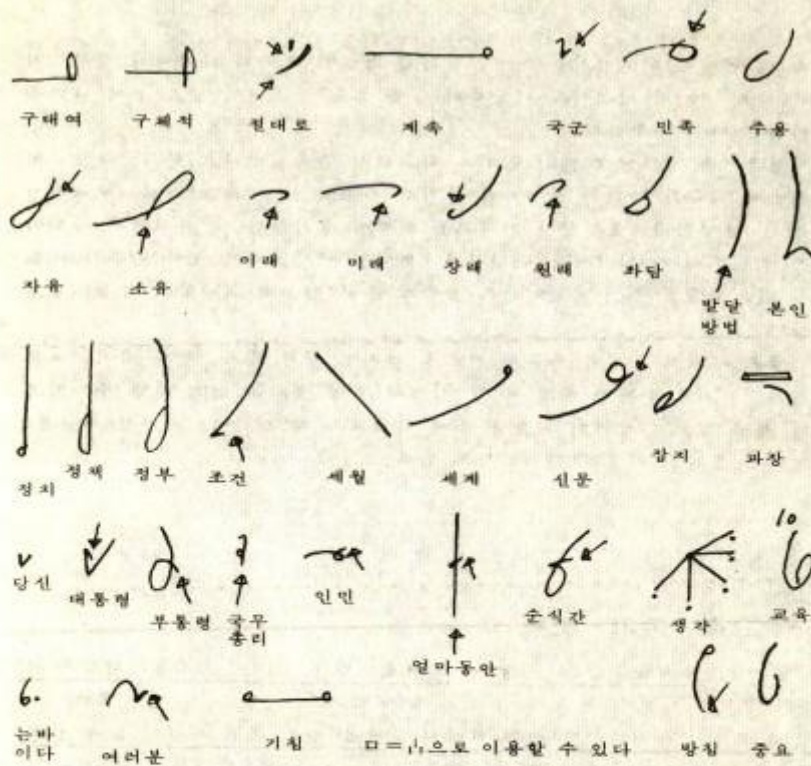
누구나

별안간

동안

오래동안





☆ 제 1 편을 마치며 ☆

속기가 속기사의 직업적인 학술 시대는 이미 지났다. 선진 국가에서는 연(年) 수만의 학생들이 속기책과 녹음기를 가지고 장래에 대비하여 공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나라의 함학열(向學熱)은 세계 어느 나라에 못지 않지만, 그 함학열은 자신의 입신 출세(立身出世)에 직결된 공부가 아니면 외면해 버리는 것, 또한 못지 않는다. 일류 학교 그리고 장래는 고관 대작(高官大爵) 그렇지 않으면 부호(富豪)가 되기 위한 공, 그것만이 천만 학도의 꿈같은 느낌이 적지 않다. 따라서 기술적인 배움은 늘 빈곤한 자녀(진학할 돈이 없

음)의 靛인양 피어버리는 현상. 이러한 현상이 조속히 타파되어 일인 일기(一人一技)의 면에서도 기술학의 눈을 뜨는 청소년이 날로 늘어 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영국서는 심지어 미질이 일까지 학교에서 습득시킨다고 한다. 부모 친척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립하려면 학생 시절을 안일(安逸)하게 보내어서는 안 될 것이다. 졸업장만 가지고는 취직이 불가능한 이 사회에서 장삼이사(張三李四)가 피어서는 곤란하며, 뛰어난 재주, 남이 못하는 특기가 없는 한, 꾸준히 무슨 기술이든지 습득해 두어 앞날에 대비함이 좋을 줄로 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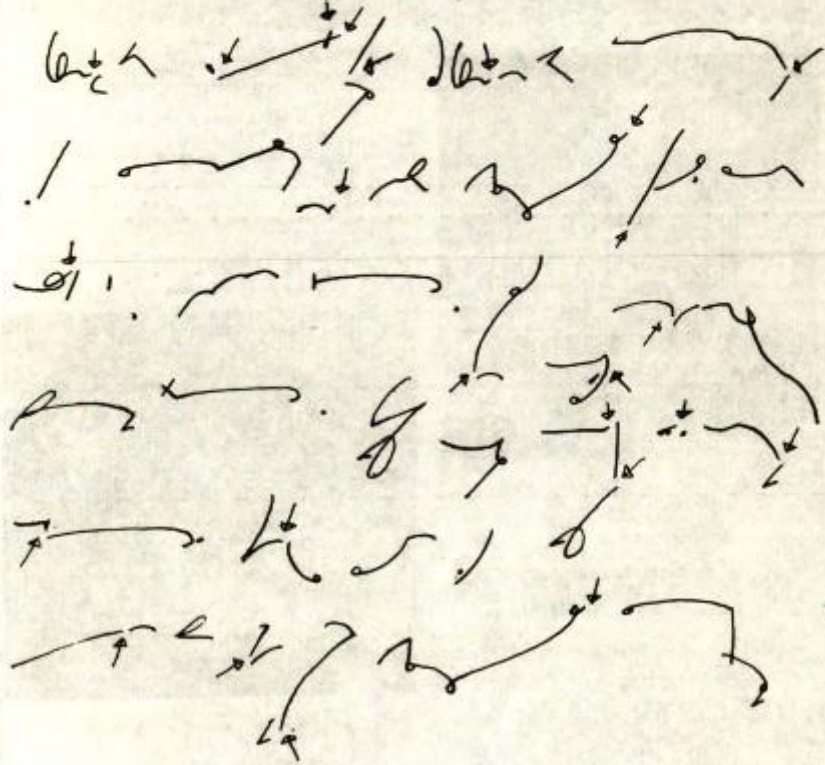
끝으로 여기 1권에 수록된 기호를 가지면 강의 속기, 전화 속기, 노트 속기, 라디오에 의한 메모 속기, 강연의 요령 속기는 능히 해낼 수 있으니 틈만 있으면 암기한 기호를 손에 익히도록 할 것이며, 시간적 여유를 얻어서 2편도 아울러 진학하도록 한다.

## — 요령 속기법 —

### ☆ 요령 속기 문체 ☆

<언어> 교육을 받은 사람과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의 행동은 가  
 <속기문> 교육인과 (반대말 기호)의 명칭은  
신도 모르는 사이에 달라지는 법이다.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 교육 받은  
다르다 비교육인이 (반대어)의  
사람들의 절모양만 따라 자기 몸치장을 한다 치더라도 어더인가 어색한데  
절모양만 따라 몸치장 한다면 어색하고  
가 있고 어더인가 어울리지 않는 면이 많다. 비록 일시적으로는 남의 눈  
어울리지 않는다 일시적 남의 눈을  
을 속일지는 몰라도 영원히 속이지는 못할 것이다. 지식면이 낮으면 상대  
속인다 영원히 속이지 못한다 지식이 낮으면  
방의 말을 잘 이해할 수가 없으며 유모어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판단력도  
말을 이해 할수없다 유모어도 이해하지 못한다 판단력도  
나쁘며 관찰력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아량(雅量)도 넓지 못하므로 자연히  
나쁘다 관찰력도 부족하다 아량도 넓지 못하다 자연히

싸움이 잦아진다. 또 돈이 많이 생겨 집을 장식한다 해도 도무지 어울리  
싸움이 잦다 돈이 생겨 집을 장식해도 어울리  
지 않은 차림을 하며, 자신 몸차림도 존스러운 색을 택한다면가 결혼도  
지 않으며 몸차림도 존스러움고 결혼도  
말목에 힘이 없어 장님의 결혼이 된다면가 자녀 교육이 백지이니 지적(知的)  
장님 결혼이 된다 자녀교육이 백지니 지적  
的)수준이 자녀를 따르지 못해 싸움이 잦아지는 등 주부라 해서 공부물  
수준이 낮으며 싸움이 잦다 주부도 공부  
무시하기 어려운 것이 현 사회이다.  
해야할 현사회이다.



속기  
속기

《명심 사항》

속기 문자는 생각하면서 쓰는 문자가 아니다. 쓰고 나서 아무 속히 내 문자를 만들 것이며, 속기법은 반드시 번역을 해 봐서 번역이 잘 되는 시도를 알아서 익혀야 한다.



《반복 연습을 한다》

☆ 1 초에 3 음자를 빠르고  
바르게 써야 속기다 ☆

☆ ■ 자도의 준수(遵守)는  
속기법의 중요 열쇠이다 ☆



《속용기 이용 속기 공부》

## 제 2 편 고등편

— 속기사를 위한 기호학 —



☆ 존슨(전 미국)대통령이 국회에서의 연설 광경 ☆

<옆으로 마주 앉아 속기하는 4 사람의 속기사가 보인다>

## 제 1 장 변자 기호의 전모

### □ 1 □

#### — 변자(제 2의 기본 문자) 기호 —



#### ※ 변자의 뜻

속기의 목적 달성 면에서 볼 때 기본 문자는 그 구성이 한글과 합치되는 장점(長點)은 있으나 그 장점의 고집이 도저히 불가능함에 비추어 우리의 언어 현상(言語現象)에서 잦은 용을 가려내어 이에 합당한 속기호를 구성해야만 되는 이유아래 생긴 것이 변자이다.

만일 일파식에서 변자의 연구 완성이 없었던들 무한한 약자(略字)에 파문의 속기학 교습에 말할 수 없는 난관을 겪을터이나 여기 빈용 음자 각각의 속기호의 완성으로 인해서 일파식은 제 2의 기본문자가 구성된 셈이고 이로 인해서 수만의 단어가 속기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기호로 화(化)하게 되는데 이 변자의 뜻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여러분은 수백의 이 변자를 암기 이용함으로써 수만의 약자가 약자와 되는 그 바탕적 기호가 즉 변자임을 명심하고 제 1의 기본문자와 마찬가지로 습학에 소홀함이 없어야겠으며 또한 일파식이 오늘날 가장 보급이 용이하며 효율적인 속기학으로 자처하게 된 연유가 변자의 고안에 있다는 이 기정사실을 뇌리(腦裏)에 깊숙히 새겨 두고 이하 변자는 어느 한 용자치고 그 기호가 지닌 속기적 효능이 불투명한 것이 없으니만큼 심분 이용해야 한다.

◆ 주: 속기학에 있어서 단어 약자가 많은 것일수록 습학에 성공자가 적다.

그러면 이하 변자를 배우는데 쓰이는 용어를 우선 해설하고 각행의 변자를 "가"행부터 순차적으로 기술하겠다.

#### ※ 변자를 배우는데 쓰이는 용어

- ① **점**.....연필끝으로 꼭 눌렀다가 떼면 그것이 점이다
- ② **2mm 선**.....5mm자의 반이면 된다. 자미베침과 아닌 것에 주의한다.
- ③ **베침**.....베침이 아닌 자는 다음 자를 계속해서 쓸 수 있으며 베침자에서는 그것이 안 된다.

20mm 선...2.5, 10, 15, 20 이렇게 네가지 구분이 완전히 서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25mm 정도 길게 세도 무방하다.

① 각도와 방향 인식...160°, 180°, 45°의 각도, 15가지 방향을 꼭 지켜야 한다. 그래서 2mm 선(AB방향 2mm직선) 2mm선(AC방향 2mm직선) 우(右)는 AC 하쪽 2mm=2mm 선 이러한 식으로 충분히 인식할 것.

② +...번자 기법 설명에서는 이 "플러스"가 빈번히 쓰인다. 즉 간+가 되면 "간"기호에다가 7반침을 더 하라는 것이니 이 '+'에 주의할 것

③ 결용에 대해서...기본 문자 중 한 기호를 가지고 두가지 이상 음자를 겹쳐서 쓰는 것을 결용이라고 하는데 꽤 이런 현상이 나오는가 하나 가령 "너"자를 보면 우리말에서 그 사용도가 최소하다.(너, 너구리, 너저분하다 등)는 점을 이용해서 그것을 다른 쓰기가 맞은 음자에 해당을 시켜본 결과 속기문을 번역하는데 지장이 없음이 입증된 것만을 골라서 두가지 음자로 쓰게한 것이니 이를 결용자라고 한다.

④ 초음...단어에서 첫째자, "문지르다"면 "문"자

⑤ 이음...단어에서 둘째번 자, "이름"이면 "름"자

⑥ 위치...ㅅ위치 ㅁ위치 속음 위치 된소리 위치, 반의어 위치 등

(이 위치는 후속자를 그 위치에서 쓰니까 한자가 약해진다)

⑦ 표시 기호 제정...이하 편의상 4종의 표시 기호를 쓰겠다.

○ 표시...초음에만 쓰되, 이음에는 못쓴다는 표시

◎ 표시...이음에만 쓰되, 초음에는 못쓴다는 표시

× 표시...앞자가 빠진 경우에만 쓴다는 표시

● 표시...약자임을 말한다.

⑧ 순서가 바뀌었지만 배움의 도움이 되기 위해 약간의 약자와 토, 기호를 아울러 삽입했으니 암기하기 바란다.

● 화살표 표시는 속기호가 아니니 주의하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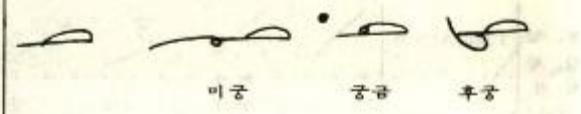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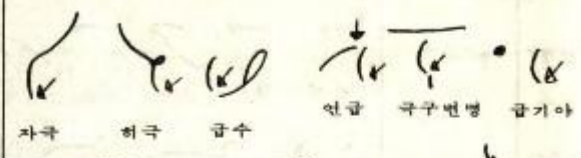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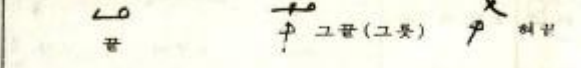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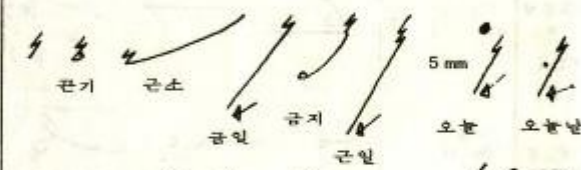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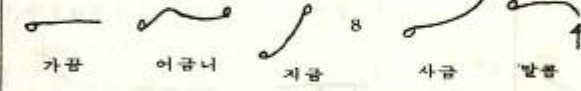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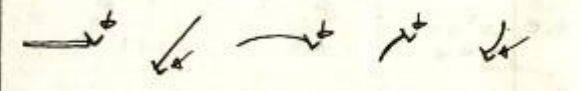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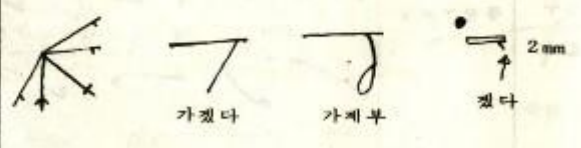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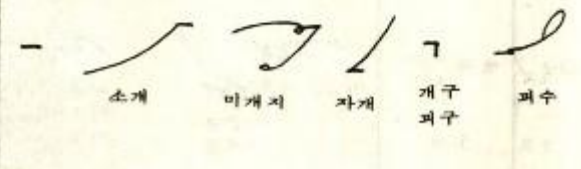
(1)'가'행 중 번자

자 음자	기법	기호와 예문
가	AE AF선은 경음 위치 기 타는 자미 지 하	
과	5mm원의 좌측 반쪽	

㉠가	7받침을 반대 쪽에 한다	
갈	"가"자의 자미 배치	
㉡감	"ㄱ"을 5mm 반원으로 씀	
갓	"ㄱ"을 같이 씀	
갈	"누"자	
강광강	5mm원의 우측 반	
현	"그"자	
㉢격스 스못스	"스"받침 또는 스+스	



권, 활, 활할 것 (의)	10mmAD 직선		권기, 활기, 활기, 3월, 활세, 생활, 할 것이다
전경	"브"자		경제, 경기, 전치, 경제, 의전, 지경, 경험
고 (의), 고	동형 H기호		고기, 고구마, 고리, 고토, 주고, 받고
꽃, 꽃, 꽃 (의)	"립"자		꽃가, 가꽃, 미국, 목전, 꽃, 의과
관, 관	"느"자		관기, 가관, 관수대, 관수기, 관난, 관산주의
관, 관	"고"자에 자미 비침		관적, 관수, 기관
구 (의), 구	동형 T기호		구미, 국, 군, 궁, 더욱, 절구, 국민, 요구, 지구, 미구, 유구, 허구, 어구
군 (의), 군	변자 "군"		미군, 미문, 조군, 조준, 여운, 어군, 여군, 고군분투, 수군

궁, 굽	"구"의 원을 크게 함	
극, 굽	"별"자	
끝	"극"자 또는 스	
○근굽	동행 + 기호를 겹쳐서 씀	
◎굽	□을 반대로 함	
반침 + ◎근	앞자가 반침이 있어야 쓸 빈자 고 + ㄴ + ㄱ	
◎계꺾	동행 + 위치	
개, 꺾	"거"자의 반	

것	"거"자	丨	└	┌	┐	·
			그것	이것	저것	것이다
○진김	소원+ㄴ	↓	↓	↓	●	●
		김치	김급	김장	김밥	김요
진	소원을 빌린다	→			→	→
					피가	깃가
					※주의	

(2) '나' 행 중 변자

<변자 음자> <기법>		<기호와 예문>			
남	"남"자	↘	↘	↘	↘
		남자	다남부귀	남녀노소	남미
남(나라)	2.5mm "년"자	↘	↘	↘	↘
		그날	날조	날자	나라가
낫낫	"낙"자	→			
○년년	"ㄴ" + ○□	→	↘	↘	↘
		판년	일년	기념물	다년간
년영	"영"자	↘	↘	↘	↘
		년영	영감	영구차	영사기
					경영

노, 로, 료	"루"를 15mm로 얇	
널, 널, 열	"출"자	
육, 육, 녹, 녹	숫자 6을 15mm로	
는 (은것) 은 (은것)	◎년과 같다	이것은 토에만 쓴다.
님, 님, 임	"니"자	
님, 님, 임	"찬"자	
함, 함, 음	"의"자 자미 배침	
함, 함	"의"자	
○함, 함	"형"의 반	

○농남	○농+口		기농	지농	가농	유농	사농
○낙락 (나)으로 용용	○작과 같음		다락	고락	지락	모락	허락
			개락	연락	만락	제락	자락
×담 ○담 "담"은 제외함	○감이용		홍감	낮감	바감	한감	유감자
○남름 ㄹ	○금이용 ○몸은동행! ㄹ 세도 좋다		노름	서름	처름	나름	가름
			기름끼	지름진	다름	차름	구름

○ 감은 ㄹ으로, ○ 금은 ㅁ으로, ○ 작은 ㄴ으로 확충이용해서 쓰는 데 예어(例語)가 많은 것은 적절히 써야 한다. 즉 사감(사탐)외에는 쓰지 말라는 것이며, 연락도 연락으로 쓰지 말라는 것이다. "연락"은 (연 변자 + ○락)으로 쓴다.

차차 공부해가면 알겠지만 한 기호를 가지고 같은 열자(列字)로 이용을 하라는 경우 14자가 다 통용이 된 사실이지만 개중에 예어가 많은 것을 그대로 다 쓰라는 것은 아니다. 기락(귀착 기락) 이렇게 전혀 뜻이 다른 예어이면 세 단어까지는 이용이 되지만 우선은 여러분은 두 개 이상은 쓰지 말 것이며 앞으로 '이' 변자를 하행까지 맨 연후에 해당변자를 써고 쓸 양이면 그 이용질이 14자 전부가 해당이 아니 되게 될 것이니 오늘은 이 줄 알아두고 다음에 다시 한번 재검토하기를 바란다.

(3) '다' 행 중 변자

<변자 음자>	<기법>	<기호와 예문>
대, 태	"터"	<p>태아 태수 태도 기대 고대 위대 태두</p>
단, 단, 단	"단"	<p>단연 단연, 단연 사망 타당</p>
던, 덩, 덩	"던"	<p>덩굴 덩치 던지 던별</p>
둥, 동, 동	"둥"	<p>둥럭 둥대 기둥차 준둥</p>
도, 또	"더"	<p>도 또 도(財) 또한 또는 또다시 다시 다시 또 또한</p>
두루	"츠"	<p>투기 투수 가루 사무 투사</p>
○도복 떡 (2.5mm로 쓴)	"떡"	<p>떡자 떡일 떡지 떡이 떡제 떡제주의</p>

○국, 육, 육, 외	ㄱ만첨	기국교    기외    제외    소육    이육
○담, 탐	"드"	담대    탐사    담담    탐지    탐소
○담담	동행 1불 대원 으로함(백침자 에는 못 쓴다)	속담    미담    영담    화담    환담
ㅌ	"드"	그 때           이 때
한	ㄴ만첨	그 한           들키다           나그네한
○공동 공경으로 이용함	ㅇ+ㄱ	기공    잔공    외공    허공지공    동동 손동    수공    호공    여공    기공
원 원	"원" 문자+ㄱ	원에만 쓴다.
○부, 부	"드"	부대    부수    부외    부주    부사    부외
부 드의 드외	"드"의 원문 집계함	드리키다    동불    동대    드리가다

(4) '라' 행 중 변자

변자 음자	기법	기호와 예문
리중성	라행자로 쓴다 주로(리, 루)를 쓸 것	 물 수리 유리 구리개 고무 20mm 칼고루
육육	리+ㄱ	 이륙 비륙물 가륙

(5) '마' 행 중 변자

몇 및	ㅅ=ㄱ	 몇 몇
면	"즈"	 면사포 면목 면담 다면
◎목, 육, 역	자두에서 2mm 위치 □중성의 시작 위치	 파목 가목 지목 사목 주목 기억력
◎명, 시	직선은 중간상이 나 좌측 폭선은 안쪽 중간 위치	 천명 감시
봉, 용	ㅇ	 계봉 사용 용모 봉매지간 미용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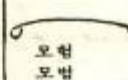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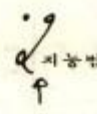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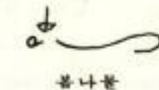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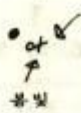


무, 문 | 변자 "개"의 차이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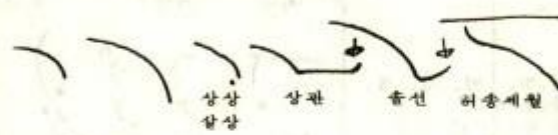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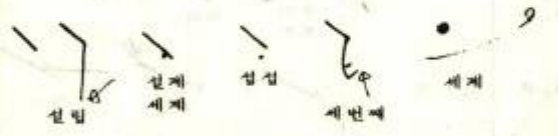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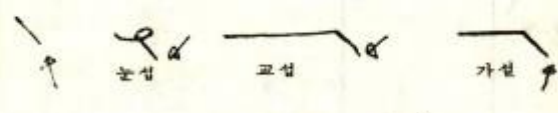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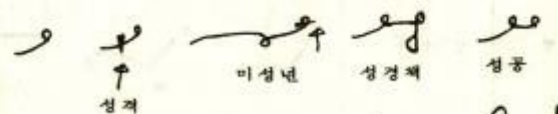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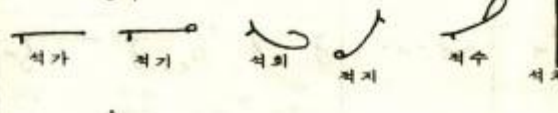
문무    문무    무기    문구    가문    문학가  
 백관    북    지문

(6) '바' 행 중 변자

<변자 출처><기법>		<기호와 예문>	
박	2mm 법	 박수	 기박
밭, 밭, 불(불 것: ㅈ)	ㅃ, ㅍ, ㅍ	 밭	 밭본체
		 밭달	 밭
○부, 무, 불(不), 보, 포	ㄴ	 부리	 부수
분, 문	ㅍ+ㄱ	 분분	 기분
		 기분	 너저분
변, 빛	ㄱ	 변	 변안간
○변	"윗" 변자	 변미	 기변
ㅍ	우측 "ㅍ"	 ㅍ	 ㅍ

◎입, 힘	口중심					
○불, 불						

(7) '사' 행 중 변자







변자 음자	기법	기호와 예문
살상 출상	라, 모	 살상 살상 상판 출선 어중세현
삼, 삼, 출	산, 선, 손	 삼삼삼삼 삼삼삼삼
○설, 설, 세	AD직선 5mm	 설설 설설 설설 설설 설설
◎실, 실	위를 비침	 실실 실실 실실 실실 실실
성	스	 성성 성성 성성 성성 성성
○석, 석	◎목의 반대 위치	 석가 석기 석희 석지 석수 석화

◎식적	일음속음	 가가 가석	 기적적    지적    제외적    칙적
○속, 즉, 즉	과두에 소지 선을 붙임	 속기    속속    속하	 뜻속구    속머    속사
◎속, 즉, 즉	중간 하측에 붙음	 가속    가속도    기속재산	 지속적    지속하다
		 민속    민주    민주주의    사회    사회주의	
속	받	 속제(계=뒤로 이용)    미속    노속    기속사	
즉, 즉	받+ㄱ	 속사    가속,가속    자속    각속	
식 지 칙	받 받+ㄱ	 식사    혼에식    주식    외식    지식	
순순순	"부"의 자미를 내민다	 순간,    순상,    한순    순식    미순명    순식간	

심, 심, 심	좌쪽 "보"	
심, 심	업	
◎심	거듭부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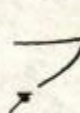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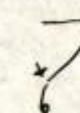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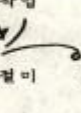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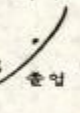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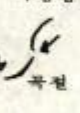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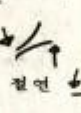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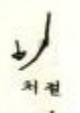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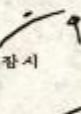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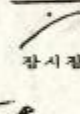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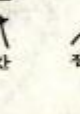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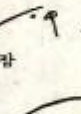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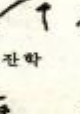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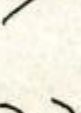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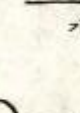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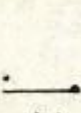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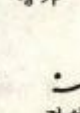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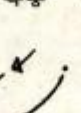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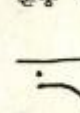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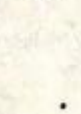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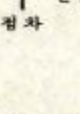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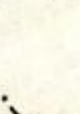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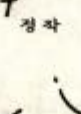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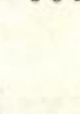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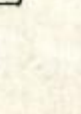


(8) '아' 행 중 변자

변자	올자	기법	기호와 예문
나열	우와 같이 번모한다		
	와=과 변자		
	에=변자 ◎심		
	아어오우 각 5mm		
○악	5mm 원의 아래 쪽을 벌린다		
◎압합	비 + 7		

알	ㄹ	  알록  배알  알선  깨알  왓알
앙, 암	"와"의 반 또 는 "러저"의 반	 앙십  앙기  앙자  암막  암중모색  암말
왕	"관"	 왕가  대왕  왕중왕  기왕  대왕
업	ㅈ	 업적  과업  사업  삼업  파업  직업
ㅇ, 업	ㅇ, 영	 영업  농업  산업  삼업  직업  수상업
울, 울	동행 1불 가한다.	 울  울  우리가  우리 나라  울
원	으	 원기  원수  기원  원자  원형
익	ㅈ	 이익  익숙  이사  촌익
음, 음 음, 음	"으"의 소원을 실게	 음악  음악가  음미  음미  음수

◎ 사 | "ㅅ" |  세앗 |  입맛 |  밤낮

(9) '자' 행 중 변자

변자 음자	기법	기호와 예문
작갈	"갓"	 작업    가작    작심삼일    작가    걸작    수작
철환	철 환	 철미    환입    복전    철연    병물    처전
잔잠	"안"	 잠시    잠시잠깐    잠잠    잔학    잔존
존, 준	"은"	 기존    존업
장, 중, 중	러, 르, 최복 "미" 자	 장가    복중    존중    중지    장학생
◎ 전정점	"점"을 쓰며 다음 자를 그 직하에서 씀	 전기    전평    전선    정작    정상참작
◎ 전정점	자미에서 트 방향 10mm 위치에 "점"	 가정에    사정하다    사정하다





(10) '차' 행 중 변자

변자 음자	기법	기호와 예문
○참	2mm "맹"	참가, 참석, 참작, 참사
참	"여"	참가, 제참, 사참글, 참때
중	"브"의 원을 타원으로	중선, 기중사격, 중기
조	동행 T + 2mm E	자오지중, 조보, 조과, 조지
○철	"철"	철죽, 철사
○철	거듭부호	이철, 간철, 경철
지체	티체	AC선이 쓰기 기록할 때 씀
추	과목 "바"	추구, 추궁, 추구, 출출, 중, 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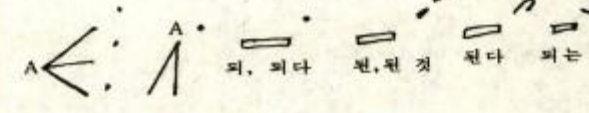
○성	변자 "안"의 자미비침					
성	○유음부호					
최	"비"					
○침	"츠"					
친칭침	미의 원운 타원으로함					

(11) '카, 타, 파' 행 중 변자

변자 음자	기법	기호와 예문
달달, 린린, 흔흔	"달, 린, 흔, 자"	
편 편	프	
퐁퐁퐁	"피"자 자미 비침	

(12) '하' 행 중 변자

변자	음자	기법	기호와 예문
○	확	확	확고, 확수고개, 학교확습, 학생, 학원
○	한	"점" 다음 자를 그 옆에서 씀	한개, 한번, 한번째, 한차례
◎	한	자미에서 음방향 5mm 위치 (음직세)	진지한, 소중한, 경미한, 인정한다
점 +	한	한 위치에 ㅂ (인)	인정한, 완전한, 진정한, 순전한, 인정한다
적 +	한	한 위치에 ㅅ (인)	기계적인, 시적(詩的)인, 임석한, 경관
위 +	한	한 위치에 ㄹ (인)	인제한, 전제한, 제제한, 무제한
한, 인 +	한	한 위치에 청변자	무한한, 기인한, 확인한바, 제한한
족속 +	한	한 위치에 변자 "부"	만족한, 지속한, 부족한, 유족한, 종족한
족음함		"해"	일음, 음, 가혹하다, 심욕, 함유, 고탈

훈훈	"의"자이 머침	
영용	ㅇ	
현현	"호"	
훈훈	"호"의 소원을 길게	
의	편소리 위치	
의		



※ **변자를 마치고**.....처음 기본문자를 배울 때 모양 한자 한자를 완전히 암기되기까지 연습을 한 사람이라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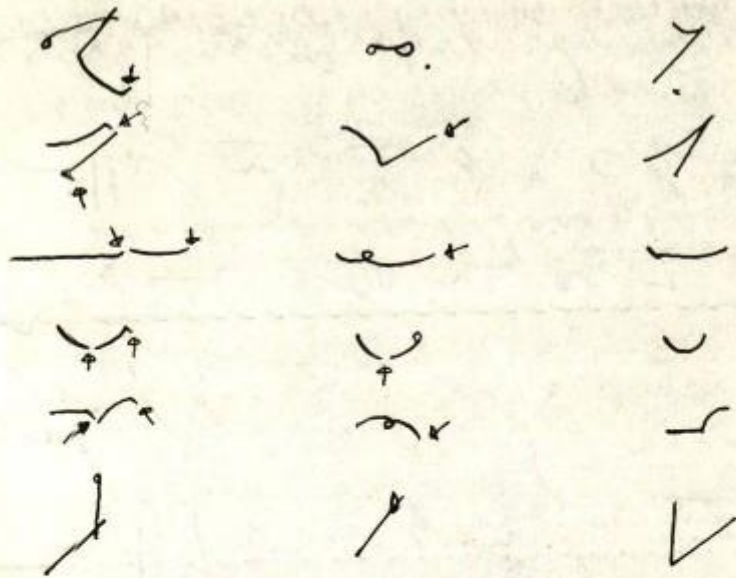
※ **받침 약자와의 관계**.....그러면 받침을 약자일 해당 낱말과 변자와 어느 것을 쓸 것이냐? 라는 의문이 생길 것이다. 그 해답은 "받침 약자는 변자보다 눈에 띄게 쉽게 모두 가지 이상 적용이 안 되는 것" 이주위로 나가면 된다. 그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기본>

<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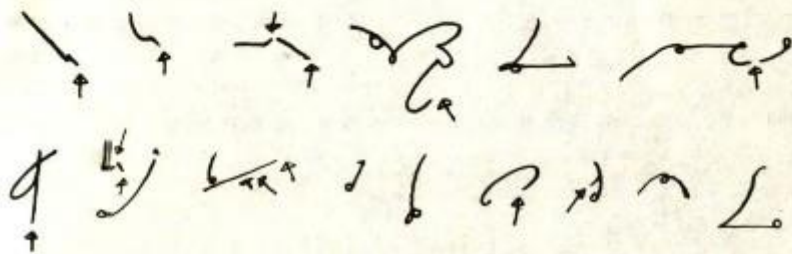
<받침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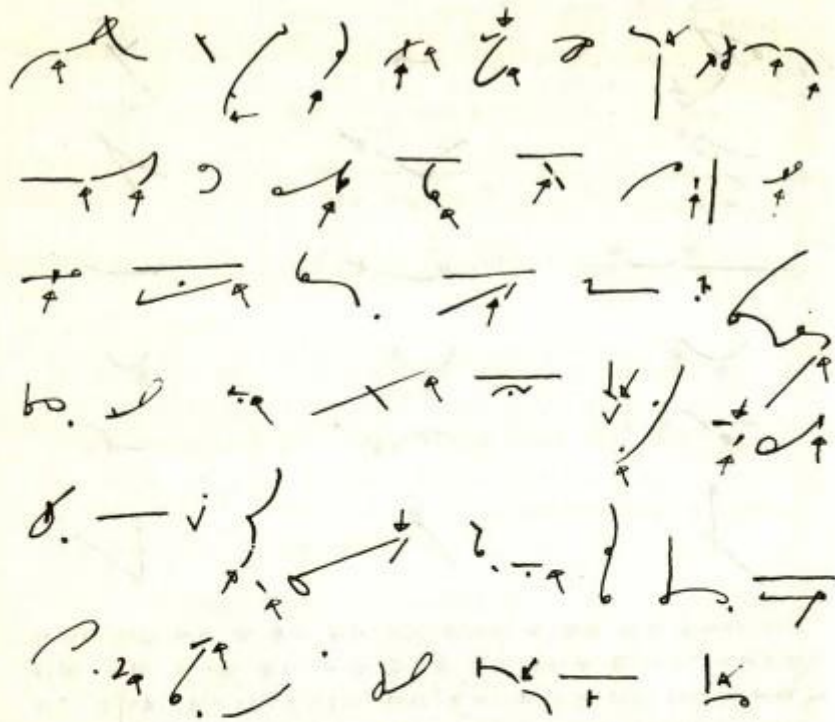




위의 약자를 보면 반침 등 약자가 쓰기 쉬운 것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이상에서는 "관난"을 변자로 씀이 옳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변자라 해서 판공이 아닌 경우 즉 "기본"하면 "기(기본)본(변자) 보다는 "기(기본)본(기본)이 쓰기 좋은 예도 간혹 있으니 한마디 첨부해 둔다.

※ 다음 변자를 읽어 보자





활용, 허용, 건설, 목적 의태음, 지름길, 원기 왕성, 순환, 운행정지,  
 신분 관계, 탐구, 중지, 윤곽, 진격, 도자기, 잡수합, 세복(설복), 조식 제  
 진실, 언뜻(연뜻), 북풍, 경쟁, 영구차, 진격 명령, 감사절, 광범, 사법학  
 교, 신용 분위, 봉매지간, 위촉한 일, 성격, 그릇(그릇), 심시일반, 심상  
 한, 단도직입, 극세적, 익살스럽다, 출창한 수목, 무역가(목목), 풍시에,  
 인명제천, 무동으로 졸업했다, 부정한 사람들, 순수한 감정으로, 자발적  
 인 행동을, 고심한 결과, 비중, 치밀한 계획의 수립, 유티한 조건, 불가  
 의한 사정, 벽계수, 구속 연장, 집경

□ □ **2** □ □

— 특수 변자 기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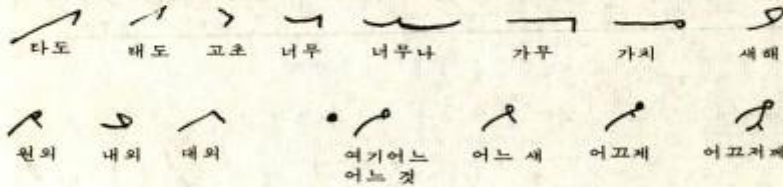


앞서 변자에서 받침+근이나 ㉠과 따워 기호는 다시 말하면 한가지 기호를 가지고 여러 단어에 응용을 할 수 있게 한 몇가지 예이다. 이제 변위를 좀 더 넓혀서 보여주는 것이 여기 특수 변자인데 문제는 어느 정도까지 응용을 하느냐? 하는 것이다.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몇몇 예어를 들어서 교시하면 그 예어만 쓰지 이상 더 응용을 하려 들지 않는데, 이것은 잘못이다. 제한된 지면 또는 시간에 악법 해당어를 전부 교수할 수는 없는 것이다. 여러분은 오직 수학의 공식같이 이 악자법의 원칙만 분명히 알고 있다면 변자와 비교해서 훨씬 편하게 쓰기 편하다(물론 빈역도 가능하다)면 얼마든지 쓰라고 하는 것이지 여기에 예어만 해당어는 아니다. 응용을 효율적으로 두터워 받고 한다는 것 그것이 즉 속도를 남보다 더 늘리는 것이다.

(1) 동행 기호 이용 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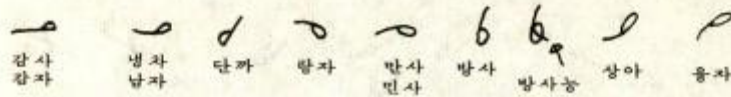
동행 약기호를 같은 열자에 이용한다(AC선을 약하는데 주로 씀)




(2) 중성+중성 변자


앞자는 중성이 있는 자, 후자는 중성이 없는 단어(김치, 장차, 형수, 맹수, 영어 등) 가운데 변자보다 편하게 쓰기 위해서 마련된 것인데 한 기호를 가지고 불가피한 경우 외는 한 가지 이상은 쓰지 말자

① 중성+ㅏ 기호...용자를 가지고 이용한다.ㅏㅏ에서는㉠답을 써도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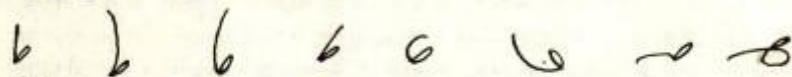



  
 절자 장자 탁자 판사 항자 본사 형사 함자 창자 자동차  
 장자 찬사 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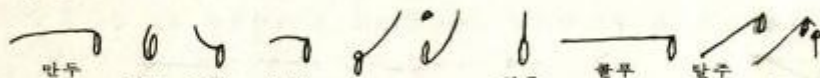
② 종성+ㄷ 기호..... 3mm"행"


  
 자전거 인터거 철거 연락처 피난처 안식처 부로거 나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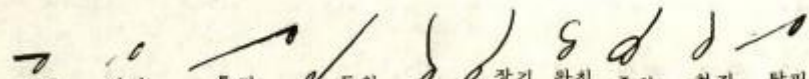
③ 종성+ㄴ 기호..... 3mm"행"


  
 철도 반도 충고 용호 완요 침포 이정표 물밖초  
 반포


④ 종성+ㅌ 기호..... 3mm"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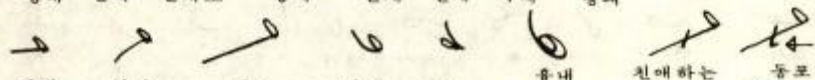

  
 만두 명무 형무 인부 정수 지후 철주 불루 달주 달주병  
 만주 인두 철주

⑤ 종성+ㅣ 기호..... 3mm"행"


  
 경지 원리 통지 동의 장기 완치 준지 천지 탈피  
 진지 방지 장지 선지

⑥ 종성+ㅍ 기호..... 3mm"행"


  
 명대 일대 전대 전대로 강대 존재 잔재 속대 반대 국대 남대  
 속대 남대 남대


  
 견해 원해 친해 현해 현대 유해 친애하는 동포  
 동포 그의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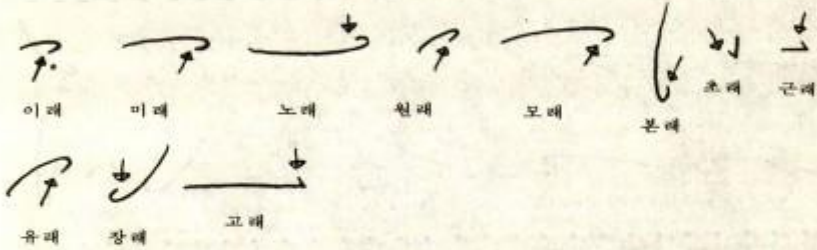


(3)기타……이음체"由, 來, 要, 料, 快, 票, 密, 人件"과 초음의 "政"이 든 단어 중 몇 가지를 소개한다.

① ◎유(由) 약자……1열자+배침 (알자의 mm에 따라서 5mm 15mm로 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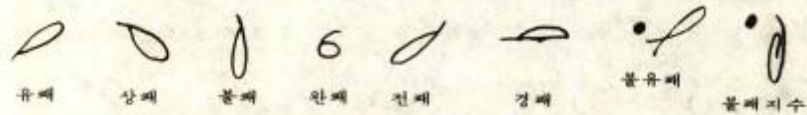
② ◎래(來) 약자……1열자 원음 마지 일변자 같이 떨어져 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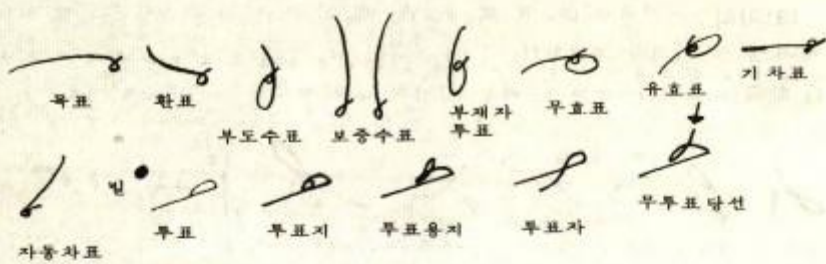
③ ◎요(要, 料) 약자……1열자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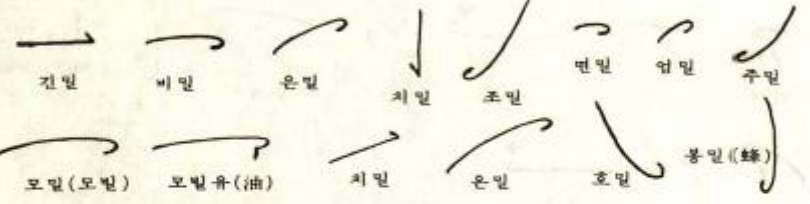
④ ◎쾌(快) 약자……10mm 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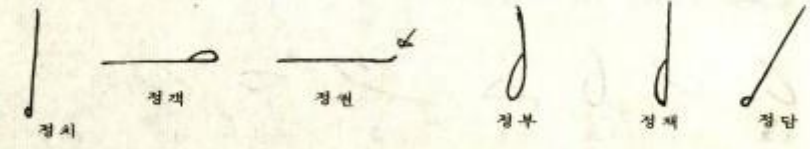
⑤ ◎표(票) 약자……동행 1 + 2 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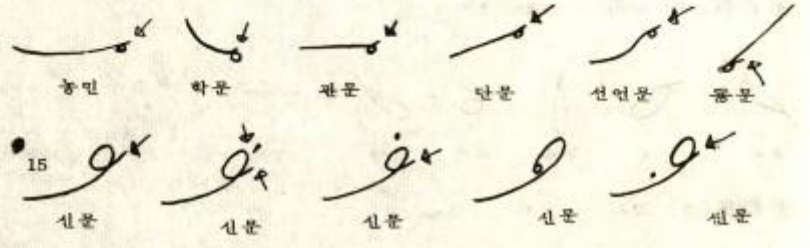
⑥ ㉞밀(密) 약자.....기본 문자의 소원 변법



⑦ ○정(政) 약자.....20mm



⑧ ㉞민(民) 약자.....동행 | + ㄴ 종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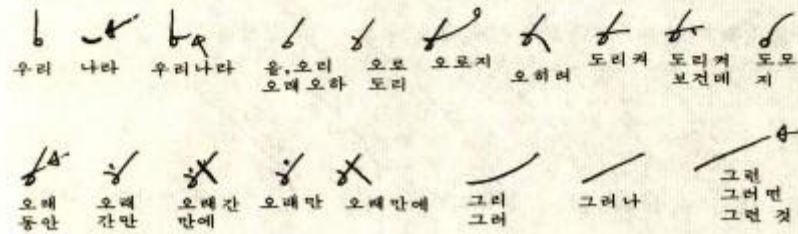


⑨ ㉠인㉡건 ... ㄴ 받침



(4) 이음자 변자

술=수리, 물=무리, 끝=고리 등으로 씀은 기억에 있을 것이다. 즉 한기호를 가지고 무자를 읽게 하는 것을 이음자 변자라 한다. 음자는 전부 우리라고 변하며 그밖에 ㄹ형으로 쓸 수가 있다.



아 · 이리    이런 것    자    저런 것    요    고
   
 이래 · 이리    이려나    저리    저려나    조리    요리    고려

이리저리    이려나    요리조리    고렇게도    그렇게    그럴    그럴지만은
   
 저려나    저려나    조리    저려나    조리    저만

그런데    그런 것은    그리하다    그런대로    그렇게까지    그럴망정

① ㅏ 열자 중에서(사이, 가지)                      ㅓ 열자 중에서(부처)

강 사이    가지, 가지    부처    뒷부처
   
                   가져, 도둑    부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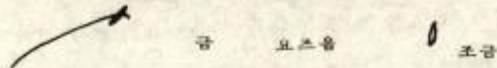
② ㅓ 열자 중에서……"동안"을 "ㄴ"으로 중간을 잘라서 약한다.

동안    그동안    당분간    순식간    좌우간    앙당간    출저간    얼마
   
 ○○나    별안간    당분간    순식간    좌우간    앙당간    출저간    동안

③ ㅣ 열자 중에서……ㅁ=시키 시키 시켜                      ㅎ=지키 지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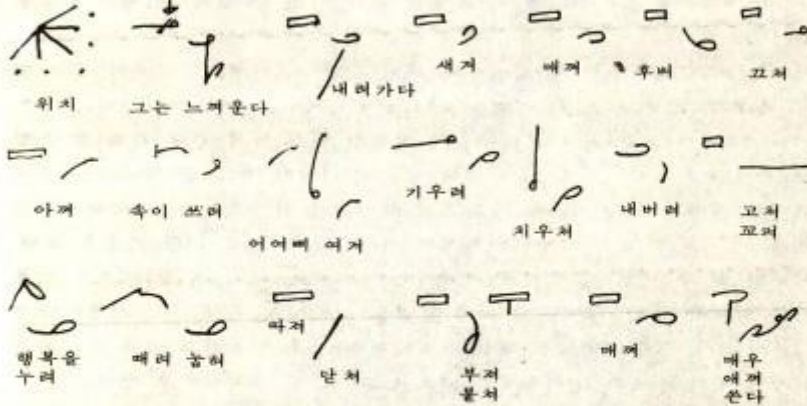
시    고    나다    남시오    쓰다    중간은 "바라다" 위치

④ 기타..... 2mm정 + □ = 크음 2mm정 = 조음



⑤ 크릴자 약기법...우리 말에서 크로 끝나는 동사(動詞)중 받침이 없는 것 또는 한글로는 받침이 있으나 발음상에서는 받침이 빠지는 것 중 일부분을 여기에 이음자 변자로 취급하겠다. 이는 이용도(利用度)가 많으니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⑥ 크기호...한 위치에서 기본 문자를 mm를 반을 줄여서 쓴다.



외에도, 노려, 되겨, 빠져, 차려, 누벼, 흐려, 흐려, 꾸벼, 개겨, 디겨, 깨겨, 따겨, 아겨, 간혀(가겨), 단혀(다겨) 말겨(마겨), 잠혀(자겨), 흘혀(노겨), 막혀(마겨), 박혀(바겨), 식혀(시겨), 삭혀(사겨), 놓여(노여), 잊혀(이겨), 놓여(모여), 굶혀(구겨), 녹혀(노겨), 찍혀(찌겨)등 많은 말이 이 기법에 해당이 되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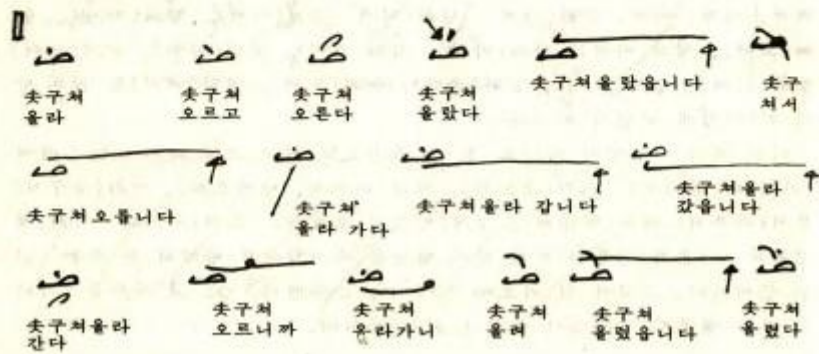
이는 비단 이음만이 아니고 3·4 음자로도 많이 쓰게 된다. 즉 마겨 (기마겨, 끝마겨), 느껴(흐느껴), 무려(버무려, 얼버무려), 구쳐(웃구쳐) 무쳐(파무쳐) 내려(피내려), 그려(헝그려 오그려), 드려(사드려) 차려(정신차려, 기운차려)등 이러한 언어 현상을 속기학에서 발음해 둘 수는 없는 문제이다. 그래서 앞 기호에 "ㄱ, ㅁ, ㅇ속변자, ㅇ, ㅏ" 따위를 가하고 보면 훌륭한 약자법이 구성이 되는 것이다.



⑦ 즉 3음자는 (기 '속' 변자) 4음자는(口, '조, '금' 변자) 이렇게 구분을 해서 쓸 것이다.

⑧ 다음에 한가지 더 첨가하겠는데 가령 "춧구쳐"하면 그 다음에 오는 말은 대개가 '올른다'가 될 것이고, '호느껴'(운다), '피내려'(간다), '기막혀'(죽겠다), '얼버르려'(버린다) 이러한 현상 역시 간과(畧過)할수 없는 문제라 하겠다. 아직 또 기법에 익숙하지 않아 잘 모를 일이지만 주시기 "에" "바란다" 위치처럼 중간으로 들어가서 휘따르는 말을 약해서 쓰는데 이 기법은 또 기법에 "지않으면"이나 "리줄 모르다"의 기호를 보면 확연히 알 수가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 기호는 다시 그 앞에 오는 함용어를 약해서 3음·4음자로 약해서 쓰고 이번에는 휘따르는 함용어마저 약해서 쓰는 잇점(利點)을 가진 기법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금후보 관련 악자에 다시금 이 기호가 상세히 나오니 그 때 더 습학하기로 한다.

⑨ 후속말에 약기 예.....몇 가지만 알아 두자.



㉞ 다음을 속기해 보아라

맨손으로 배려 슬렸다. 떠밀려서, 떠다밀려서, 방에 처박혀서, 사모쳐서, 휘바겼습니다, 이마가 터졌오, 불에 빠졌네,  
 \* 이상 4는 1로 쓸 수가 있다.

비가 내려      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렸읍니다      비가 내리고

비야 내려라      비는 내린다      비가 내릴 것이다      비가 내릴 것입니다

☆ 속기 예문 ☆

화초라면 매우 귀한 것 같지만 산과 들에 있던 것을 사람의 힘으로 인가 근처로 옮겨 심어 먼 산이나 들에까지 가지 않아도 볼 수 있게한 것이 시초가 되어 이것을 차차 연구해서 종자를 만들어 낸 것이다. 그러므로 화초를 잘 가꾸려면 그 화초가 어떤 곳에서 자랐는가를 알아서 그대로 가꾸어 주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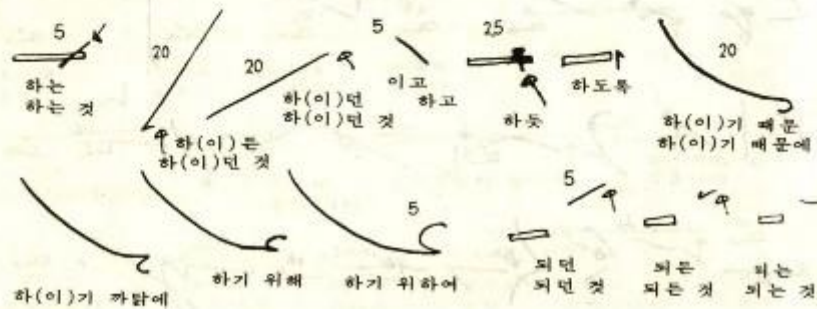
## 제 2 장 토 기호의 구성

### ☆ 개 설(概說) ☆

기본토에 관해서는 제 1 권에서 학습했으므로 약하기로 하고 그 복용(複用)에 있어서도 "것, 일"에 따르는 만큼 2 방정 처럼, 은 위치로 가지 말고 그대로 쓰는 것(보 관련 약자 3 참조)만 알아두면 좋겠다. 또 '는'이 '니'으로 발음될 때 구태여 구별해야만 할 경우라면 '에는'은 '에'의 자미(字尾)를 '는'으로 자르면 된다. 그러면 이하 토 기호 전반에 걸쳐서 1 초시 6 음자를 쓸 수 있는 기호를 자세히 소개하겠으니 mm와 기법에 불림이 없도록 하나하나 소개시켜 나가야 한다.

### □ 3 □ — 기본토 + 하(이), 되 동사(動詞) 기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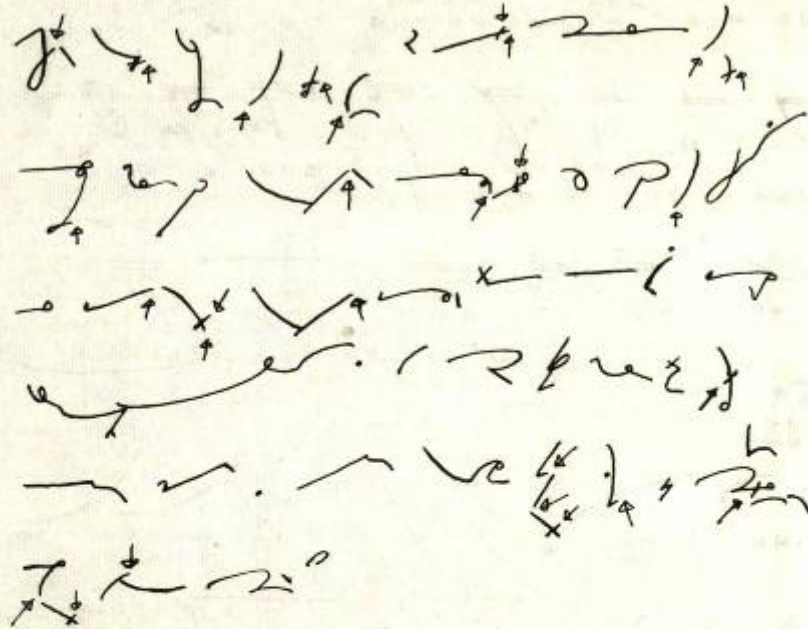
※ 기호 옆에 숫자는 mm를 표시하는 것이다.







☆ 예 문 ☆



대부분의 화자는 햇빛이 잘 드는 곳이 좋고 많은 물기가 잘 배며 기를 친 흙이 좋다. 화분에 기를 때는 특히 물을 주어야 하며, 그 분량은 화분 밑까지 물기가 잘 정도고 밑으로 흘러나오게 되지 않아야 한다.

또 물기 온도도 흙의 온도와 비슷한 것이 가장 좋다고 한다. 그래서 화원과 온실에는 반드시 큰 불그릇이 있어 그 곳에는 언제나 물이 있게 된다.

□ □ **4** □ □

— 과거사(過去詞) 기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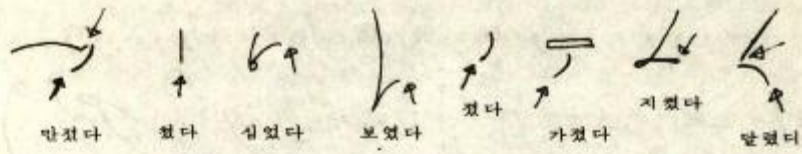


"과거" 즉 "쓰다"에 관련되는 기호인데, 이 "쓰다"는 한 "있, 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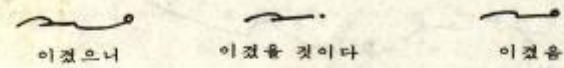
같이 쓴다고 외어두면 된다.

(1) "쓰 다"의 기호.....있다,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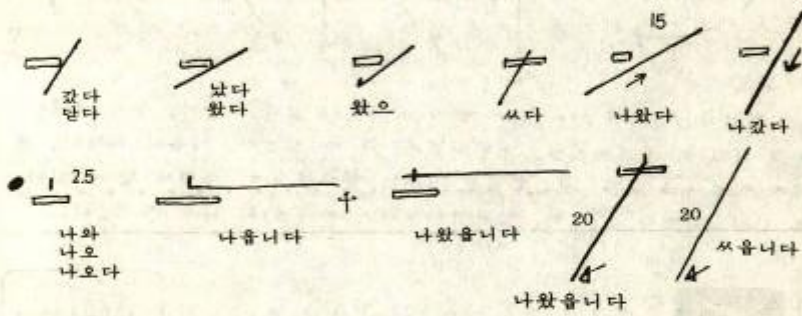




(5) 갸으, 갸을, 갸을 것, ..... 갸다 + ㄱ ㄷ ㅌ ㅍ ㅈ = ..... 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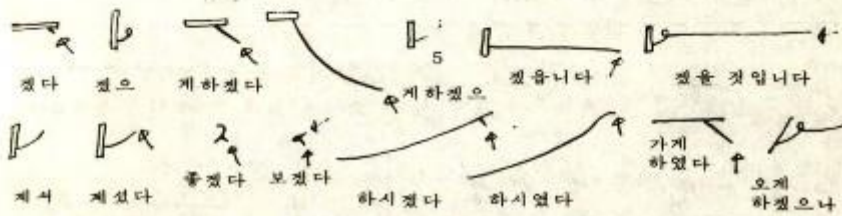


(6) "갸다" 기호....."다"의 중간을 자리에 걸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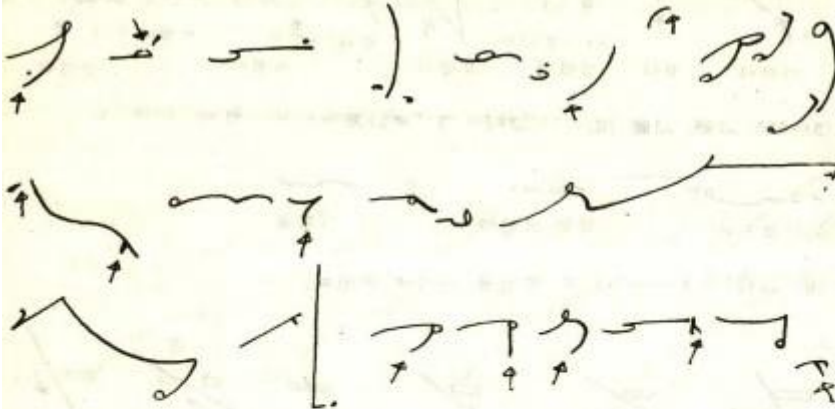


(7) "갸다"의 기호

키 + 0 = 갸다 키 + 2 mm 스 = 갸으(外)로 20mm 를 받



☆ 예 문 ☆



시작했다, 감사하였다, 내가 했다(있다), 보았다고 한다, 눈이 내렸다, 곧잘 피었다, 유지되었지, 보람되었지, 볼 수 없겠다, 마음이 아팠다, 거기에 있었다고 한다, 시작하시겠습니까, 좋아하겠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한다, 미쳤다, 미쳤다, 물어졌다, 내가 가지겠다, 나무 '밭기'겠다.

□ **5** □

— 부정사(否定詞) 기호(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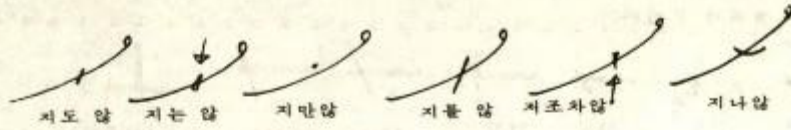
(1) "없다, 않다"의 기호

동해 + 기호로 자미(字尾)를 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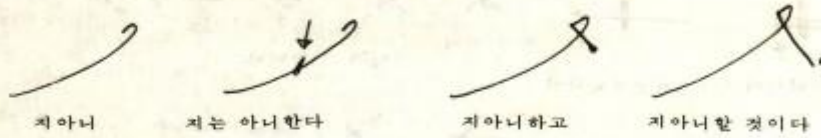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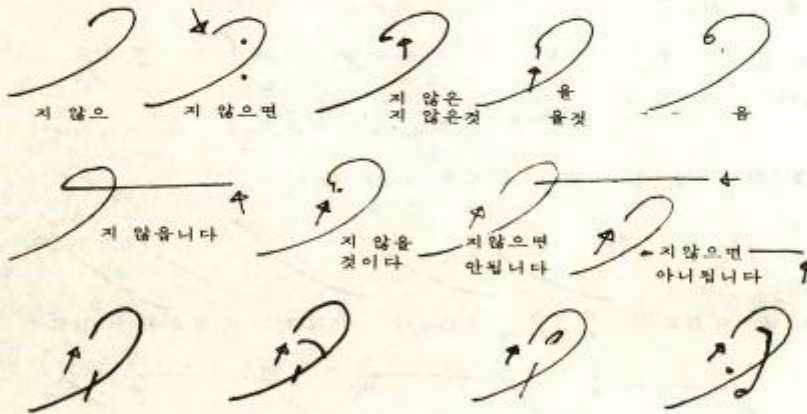
(4) "지+뺨+입"의 경우.....로 기호로 중간 교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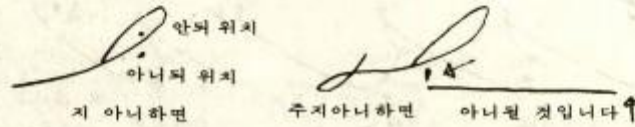
(5) "지아니".....소원을 빌린다



(6) "지않으"의 기호.....20mm"의"자를 가지고 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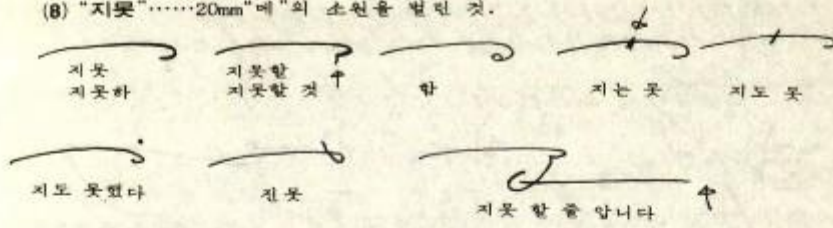


(7) "지아니하면"..... 20mm "수"를 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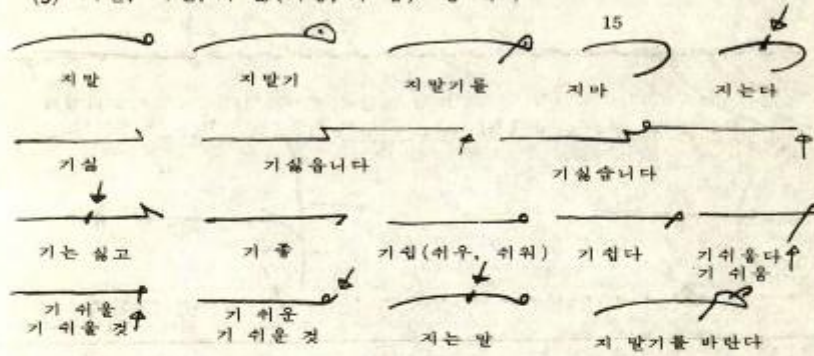




(8) "지못".....20mm"에"의 소원을 벌린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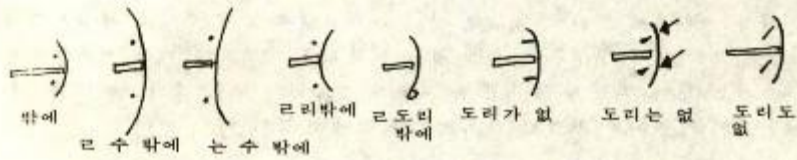
(9) "지말, 지말, 기 싫(기 싫, 기 싫)" 등 약자



(10) "는 수 없".....20mm"소모" 현상으로 쓴다.



(11) "밖에 없".....자두 안쪽이 "도리있다" 자미 안쪽이 "도리없다"의 위치이다.



※중간에 다른 말이 올 때도 이 기법은 그대로 쓴다.

도리아 없

큰 수 밖에 다른 도리아 있겠다고 생각하시는지

볼밖에도리 아 없겠지

그 것밖에 없다고

그와 같지는 못하지만

하는 수 없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밖에 도리아 없지 않으나?

그 도리밖에 없습니까

그렇게 할 수 밖에 무슨 도리아 있겠습니까

하는 수 밖에 뵈 도리아 없겠습니까

□ **6** □

— 기본토에 연관되는 약자 —



속기에 있어서 보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알 것이다. 토의 실태가 얼마나 복잡하고 다단한가 속기 공부를 하느라 면 누구나 새삼스럽게 느낀다.

일상 생활에서는 느끼지 않던 것인데 우리말에 토의 존재를 새삼느낀다는 것 그것 역시 공부이다. 여기서는 기본토를 중심으로 해서 관계적으로 부수되는 단어 또는 토의 부용을 세밀히 검토하여 토 기호를 더 이상 손댈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기호를 습학하여야 하는 것이다.



(5) "와, 과".....와 더불어말과와+ "더"자가 자미작름)와 동시("시"위치) 기타 약자들이 다 약할러는 '말과' 관련되는 기호(즉 약할러는 '말 중 어느 한 자를 씀)로 되어 있으니 이점을 유의하여 암기할 것.

와도 는 10 거니와 10 하거니와 이거니와 더불어 아울러 날리 는날리 동시 동시에

반대 반대로 정반대 정반대로 있다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관련해 관련하여 연판해 연판하여 왔음니다 같 도 같

(6) 같(같다)....."는 바와 같이, " 바와 같이"는 다용어니 그러할라.

같이 은것 으 음(것) 으면 으며는

와 같 와 같이 는 바와 같이 것과같은 그와 같은이와같은

5mm원 = 말씀

추신 바와 같이 맞춘바신 바와 같이 아시는 바와 같이 알려진 바와 같이 다아시는 바와 같이 그와 같이

말씀드리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말씀드린바와 같이

(7) 서.....

서도 이 는 세서 세음서 이 세섯는데

올라서 올라서서 올 하섯음니다 하섯는데 세섯음니다 음니다

액=ㄴ대서 본대서 쓰대서 왔대서 한대서 보았대서 갔대서 왔대서

한대서 한대서 부터 한대서 보담 한대서 부터 말씀이 세섯는데 말씀도 세섯기에

(8) 고..... 고도 는 고도 하는 하고있 하고있다 하고있고

하고있 하고있 하고 하고 하고 음니다 고사하고 고 합니다 고쳐

고 있읍니다 이진다 지닌다 가리고

고자 하고자 고서 하고서 고=ㅏ자 베풀 오시고 가지고 있 가지고 있으 가리고 가리고 있 해가지고 쓰여 가지고





(1) 됐다...

됐다  
쓰됐다  
분됐다  
것이됐다  
것을 썼됐다  
쓰됐다  
의됐다

왔됐다  
왔됐다  
쓰됐는데  
갔는데  
했는데  
왔됐는데도  
분구하고

(2) 일...

일  
일일것  
것일것  
일인즉  
일터  
인즉  
일인만큼  
일일것  
일입니다

(3) 게 겠...

○○제  
제시리  
올바르게  
약속  
바르게  
1계  
1계시리  
자지러  
지제  
자지러  
지제시리  
25  
제했다  
계해  
계해서  
해서  
"해" 위치에서  
"시"자가 쓰기  
거북한 경우

(4) 한, 인...

15  
인것입니다  
한답니다  
한대시  
한대시  
한다고  
한대시  
한대도  
한대도  
한대해도  
한대해도  
한다합니다  
한다고 합니다  
한다고 합니다  
한다고 합니다  
한다고  
할것 같으면

(5) 뿐...

15  
뿐만아니라  
뿐만은아니라  
뿐만도아니라  
뿐만만큼  
뿐만이아니라

(6) 밖에... 밖에도 밖에는 없다 그밖에 없을 것이다 그밖에 없습니다

(7)마다... 적상위치 근처마다 큰때마다 쓰윽적 근처마다 큰때마다 볼 때마다 안짜다 안짜

(8)이,가,도,는+있 2.5mm 이(가)있 이(가)있 이(가)있 이(가)있  
없 기호..... 이(가)있 이(가)있 이(가)있 이(가)있

이 있다고 합니다 이 있을 가 없으면 없으 가치가 없습니다  
이 있고 이 있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는없 도없  
없고 없고간에

는있 도있 계산은 아무도 없고 재산도 처가 일은 사람은  
있다고 하다 있고 없고 도있고 없고

(9)뜻이... 뜻이 뜻이 뜻이 뜻이  
하듯이 하는뜻이 뜻 실

(10)싫... 고싶 고싶은 고싶습니다 고싶습니다 다싫이 인가싫  
고싶다 고싶은 고싶습니다 고싶습니다

아시 다아 잘아시 인상싫 인양싫  
싫이 시다 다싫이 인상싫다 인양싫다  
3 ) 사람  
5 ) 가장  
사람인양 싫습니다





(1) ㄴ가.....  
 인가 는가 는것인가 이 아니 가있는가 있는가 아닌가  
 이 아닌가 인가아닌가 왔는가 거기에 있는가 보는가 올것인가 모르겠다

(2) ㄹ까.....  
 ㄹ것일까 할것일까  
 좋다 음다 나쁘다

(3) 도.....  
 해도 재도 내도 극도 나쁘다  
 나 피 그 나 음 그 음 좋 그 좋

부너다 습니다  
 겠다 고 소 음 지 될 될것이다 될것입니다 겠지

쓰으 다지 다면 다면서 될거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도좋다

해도좋다 나쁘다하 지 말고  
 보아도 볼것음니까 심어도 괜찮것음니까 해도 괜찮것음니까





가기는 어렵겠다    어렵기 그지없다    한없다 한량없다    한이 없다 한량이 없다    끝없다 끝이 없다    어렵기 한이 없겠지만

00 지……

지인지    정지만    지마는 이지 하지    하지만    하는지    는것인지    것일지

쓰을는지    면지    든지    하던지 이던지    쓰는지    쓰지    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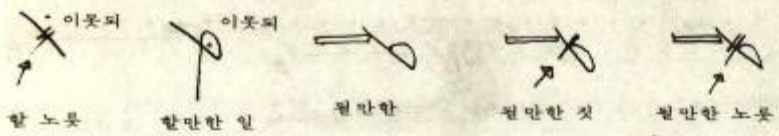
썼지    지는지    어떻게 든지    계던지    어떻 계던지    해서 든지    어찌해 서든지    지마지    지말지

는지 마는지    자마자    가말까    나마나    쓰나 없나    큰말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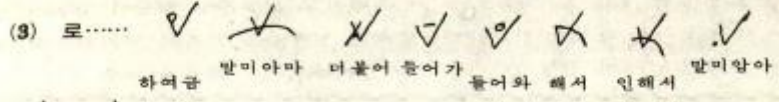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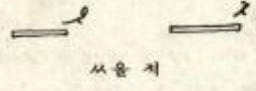
말고    제만제    지    몰라    몰라서    몰랐    몰랐읍니다    몰랐읍니다

□ □ **9** □ □

(1) 할...    할만한    할만한 것    할만한 것이 못됩니다    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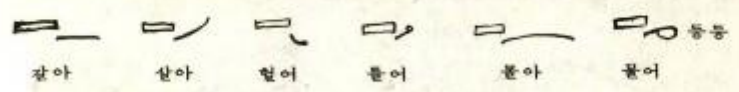
(2) 직……“죽”을 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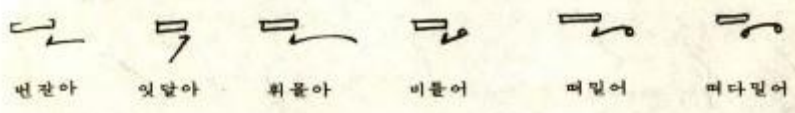
(4) ㄹ어……늘어, 늘어, 아울러, 부모, 부러로 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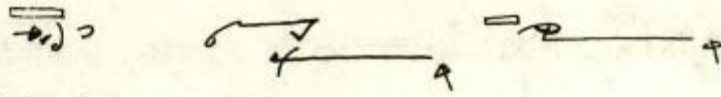
※ “쓰었” 위치에다가 기본 문자의 반을 써서 동사(動詞)의 ㄹ어 ㄹ아 를 약자와 한다. 이것은 변자의 ㄷ, ㄴ 약자와 같은 이치이다.



※역시 “ㄱ” 동을 가해서 3,4음자 약자로 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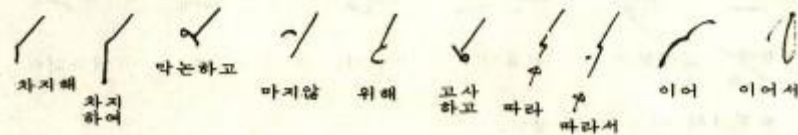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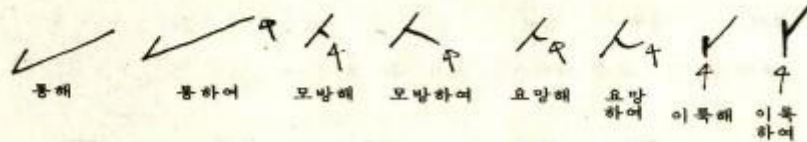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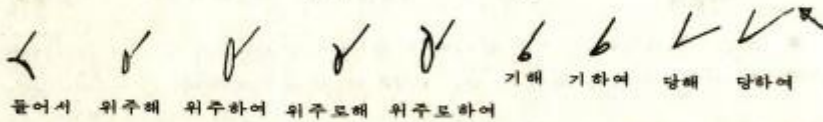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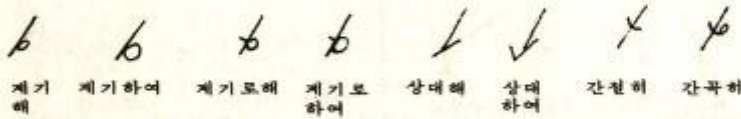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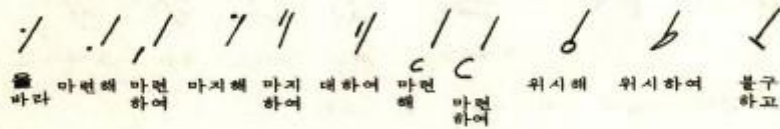
※후어의 약도 역 똑같다.



받아 적는 사람                      첨가도 받아 적었습니다                      받아 보았습니다

(5) "을, 를"

"래"와 "하여"는 꼭 구별해야 한다. ('래에' 비해서 '하여'는 장(長)선 또는 비침을 가할 것) 또 5번 "와"로에서도 말했지만 약자어(略字語) 자체와 기호와는 가능한 한 약자어 중에서 일부음을 가지고 약기하도록 해서 연관성을 갖지 하였으니 이 점을 상기하면 암기하기가 아주 쉽다.





부수 해 하아 부수 해 하아  
 임해 임하어 에 이주어 볼 때 에 이르러 에 이르기 에 놓여  
 서는 까지도 있다

(7) 해...T영자를 이용한 것인데 원을 아주 잘리게 해서 T와 구별할 것.

해나가 해나가기 바라 시키 해나가 싶으면 해나가 싶다 해나가 싶것

해나가 싶잖 해나가 싶한줄 은것 해나가 나 해나가 신다 큰수밖에

해나가되니다 해나가것읍니다 해나가시기를 해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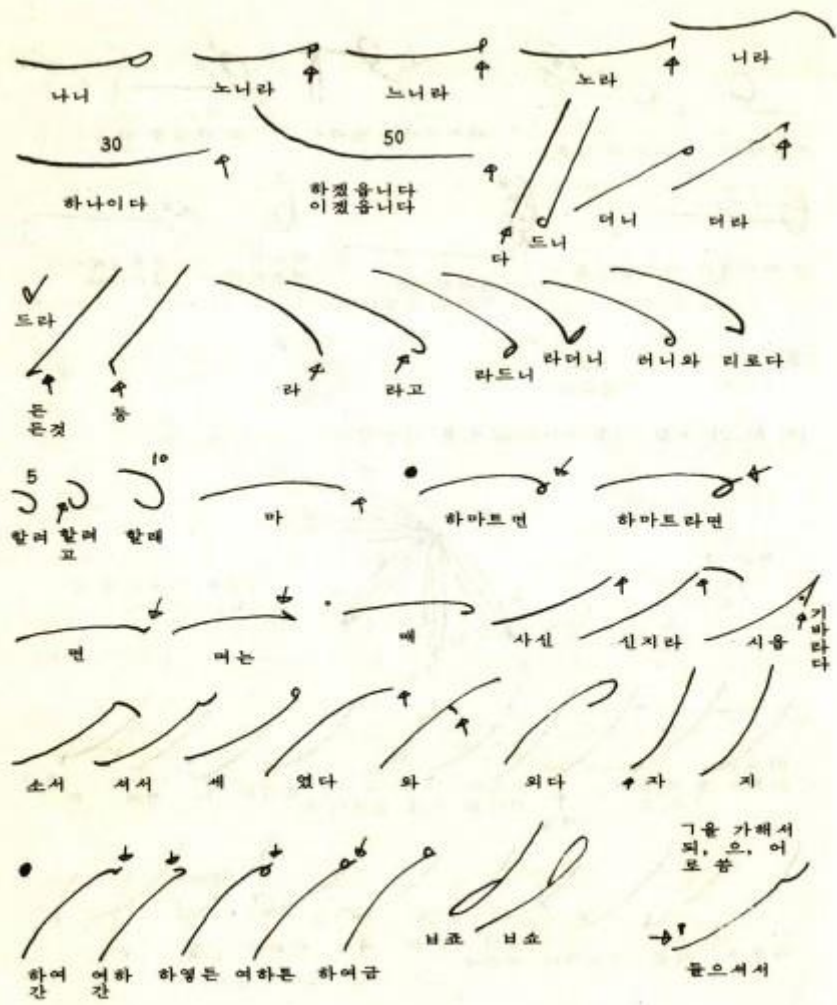
해놓다 해나오다 해지다 해보나 해머리다 해주다 해와 해빅다

해오나 해두다 해대다 해마지않다 해내머가다 해내머가서 해내머갑니다

해달라 하아달라 지고 해주어야지 해=기 되="기"를 가한다  
 해드렛 해머렛 해드리 해올리  
 해있 했다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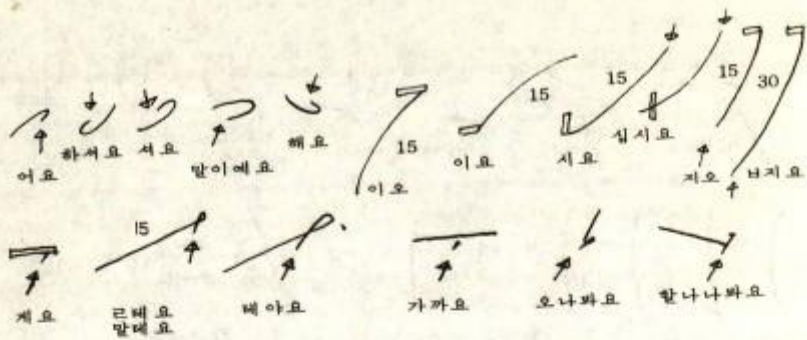
00 다……ㄷ다는 "가"위치와 스위치 ㄴ다 ㄷ다는 이 열자를 이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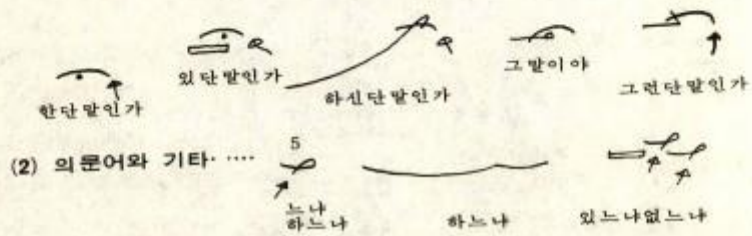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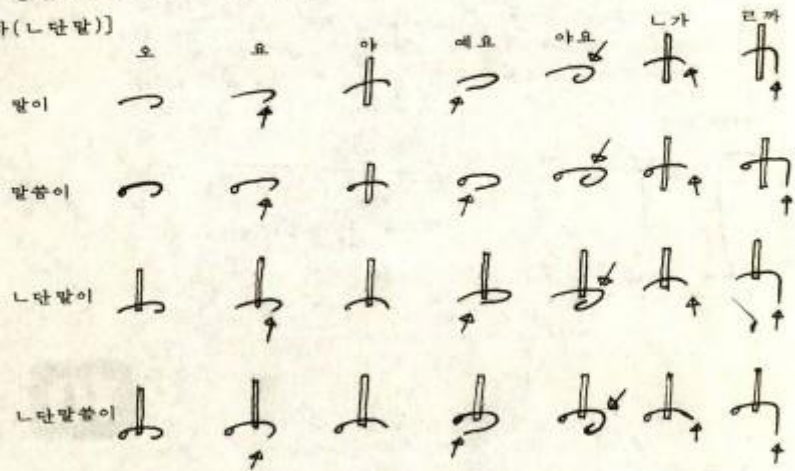
10

(1) 오, 요…… 순전히 받침을 이용한다.





◎말씀+오, 요.....말이에요(5mm)를 응용해서 쌍[중간 교차(발) 자미 교차(L단말)]



10 할것이냐    10 는구나    는 게로 구나    구나    드구나    더구나    구 구만    구만    구만

는구만    10 잡았어요    러부나    까    그러니까

(3) 쫌결어.....

30 비니다    비시다    비터다    울시다

것을시다    는바울시다    는바이올시다    을나이다    잡니다    쓰음니다    있습니다

짜    제시다    제졌다    썼으면    질다

※ 주: 비니다는 반드시 앞자에 붙어서 쓰게 되지만 (대개 합니다, 입니다가 구별이 된다) 연어와 따라서는 구별이 안 되는 때가 있다. 이런 것은 "합니다"는 "하다"위치에서 쓰면 되는데 앞자가 빠침인 때는 "입니다"를 "이+비니다"기호도 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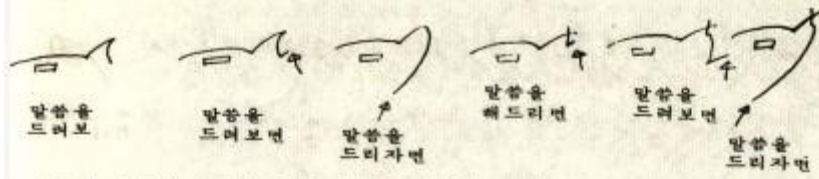
장사    하    곤난    하    이    이

(4) ㅁ....."면"은 빠침 "며는"은 길게 써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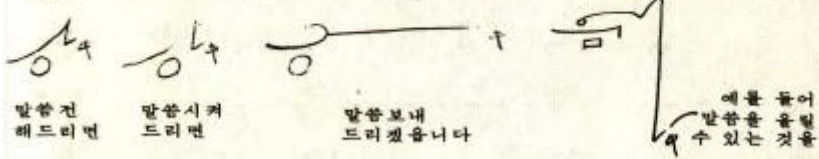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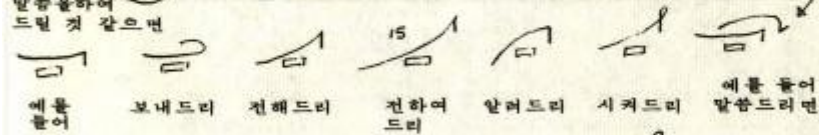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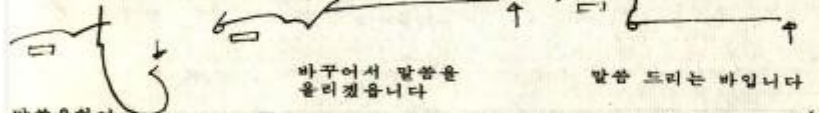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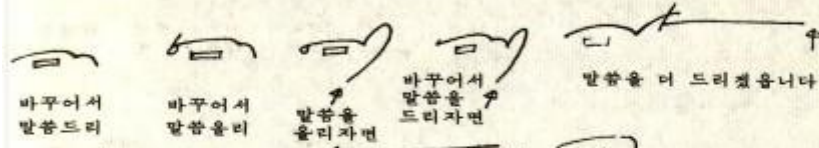
10 바에의하    바에    바에    바에의    환언하면    할라면    할라면    할라지면

바에의해    서    의화    라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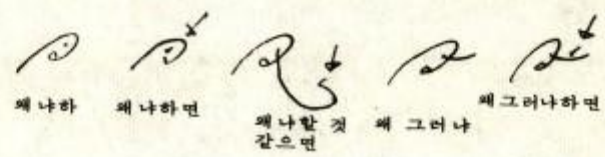




◎이 기법에 순해서 아래 기호를 활용해 보라.












◎예 + 면.....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왜 그런가    왜 그런가 하면    왜 그런가 할 것 같으면    왜 그런고 하니







◎어떻게 하면... 10     
 하면    했으면    어떻게 했으면 괜찮겠습니까







◎○○하면... 10        
 자칫하면    잘못하면    이쪽이면    후딱 하면    하필이면    하필은







◎○○면-○○수북     
 10    가면간수북    15    하라면 할수북

◎○○이면 ○○     
 감이면 감

(5) 기타의 관련 약자.....그 기법만 간단히 소개해 보겠다.

○○해야        ○○못해    
 5    기껏해야    오죽해야    고작해야    하다못해

      ○○지 못해     
 생각 못해    생각다 못해    전다 못해    마지막 못해    잊지 못해

○○○에 ○○앞에       ○○없이     
 4 + 8    한꺼번에    그앞에    10    느닷없이    버릇없이





(6) 동사(動詞) ㄱ약자의 확충 이용

"ㅇ, ㄱ" "ㄹ, ㅈ" 기법으로 이미 아는 바와 같이 소설체 문장 속기에 있어서 이 약법은 상당한 효과를 내는 기법이니 되도록 써야 한다. 응용 약자란 초학자는 어느 것을 써야 할지 당황하는 이가 많은데 그 약법의 원리와 몇 가지 실례만 역력히 머리 속에 있다면 때에 따라 필요에 응해서 얼마든지 자기 문자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다. 규격화 되어서 책에 소개된

것은 우리 향음어에 몇 백분지 일밖에 안 된다. 따라서 약자를 써야 마땅한 것을 세에 나온 것 이외(以外) 것이라 해서 간과하는 예가 많은데 그것은 약법에 익숙지 못한 연유인 줄 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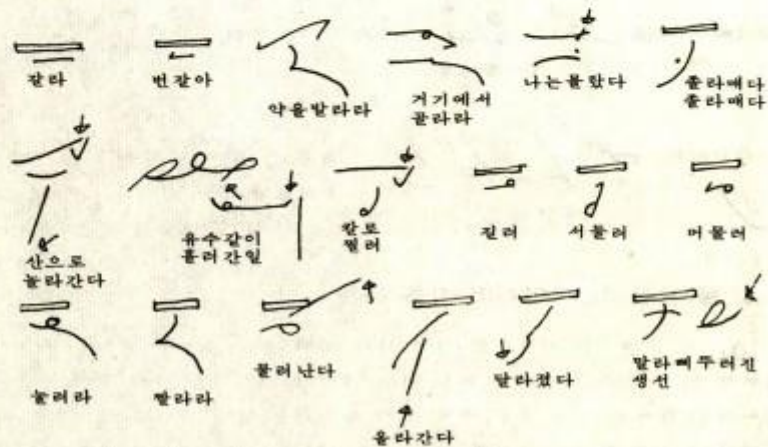
속기는 즉 우리의 목표는 1초 6 음자이다. 1초 6 음자를 쓰려면 1초에 3개의 기호를 쓰는 것이 통례이니까 지금 기본문자나 변자를 보면 대개 일음(一音) 일자(一字)로 되어 있어 평균 5자로 보고 결국 무자가 없 어지지 않는한 6 음자를 쓰기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요행히 우리말은 첨착어이어서 그 모가 할 각 품사(品詞)에 붙어다니는 현상을 이용해서 철저한 보 기호의 약자화를 피해야만 3 기호 6 음자의 평균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니 이 이념하에 고안된 것이 표기법이다.

앞으로 각 품사의 약자가 아직 남아 있지만 동사(動詞-음식씨)는 여기 4 약자법을 소홀히 하면 영구히 약자의 길이 묻혀버리니 그리 알고 연습 기간 중 해당하는 일자 4 약에 전주어 보아서 "참 편리하다, 효과적이다" 라는 느낌이 들 것 같으면 서슴치 말고 노우트해두고 암기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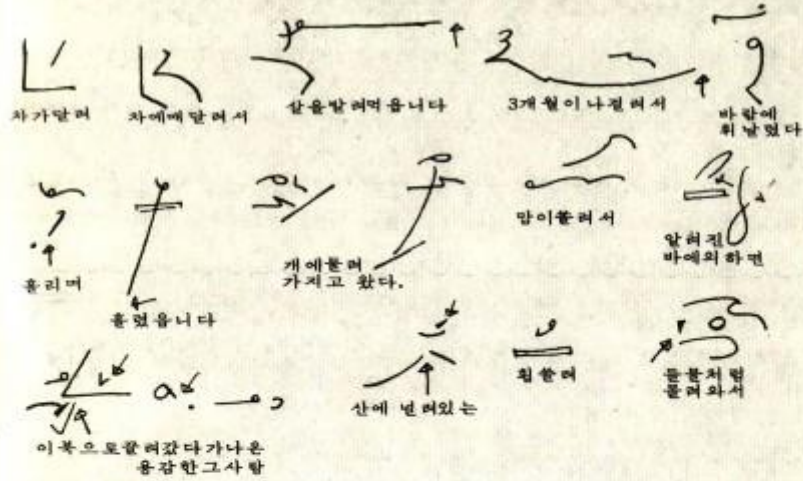
① 앞자의 중성이 2이며 다음 음자가 라 ('르'로 변화한다), 그리고 2+리인 경우에는 중간하로 들어가서 쓴다.

(AB, AC선에서는 자미 직하에서 왼쪽으로 10mm는 되물야간다)



\*"아"형자 중 15mm자는 "파"형자를 삼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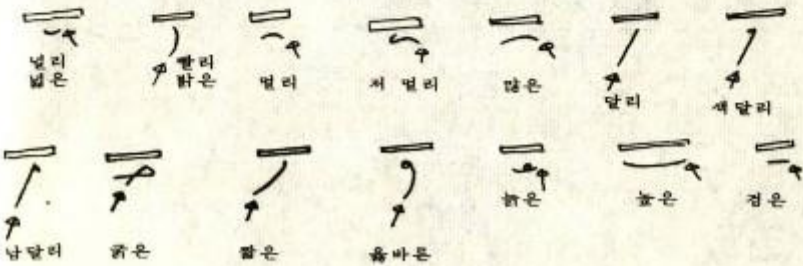
② ㄹ, ㄹ(ㄹ리).....ㄹ라의 반대편 즉 상측 위치를 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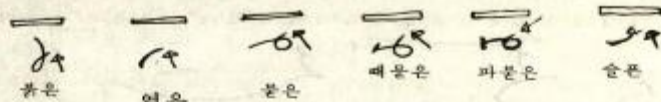


이렇게 "갔다" 기호가 "이북" 기호를 삼라야만 쓰게 되더라도 걱정없는 데 그것은 나은 용감한 그 사람은 꼭 갔다가에 이어서 쓰면 된다. "였다" 할 때는 물론 '였다' 기호가 있으니 ㄹ라 기법을 쓸 필요가 없다. 그러나 3, 4 음자에서는 물리므로 조심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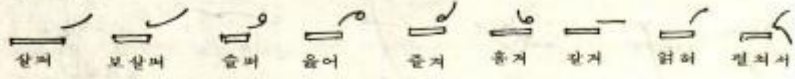
③ 활용사 "ㄹ, 리, ㄹ, ㄹ기호"

"ㄹ, 라" 기호를 자미를 베쳐서 구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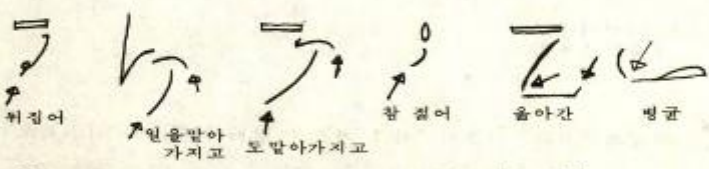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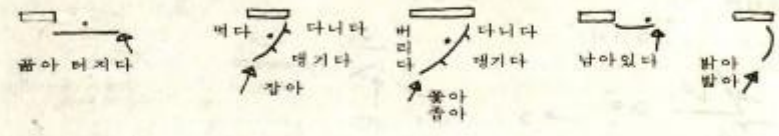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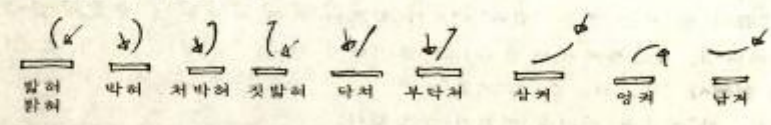
④ ㄹ+ㄷ 기호.....자미 직상 위치를 이용한다. ㄹ과 ㄷ은 ㄹ+ㄷ 의의 크릴자  
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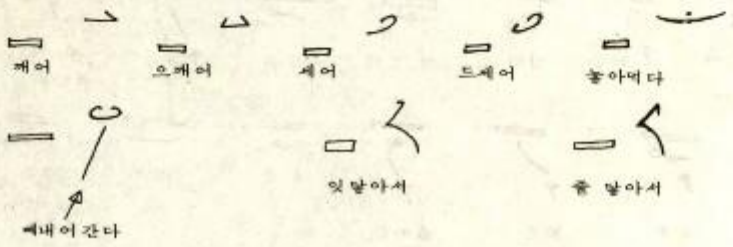
⑤ ㄹ받침 외의 받침+아.....ㄹ아 위치, 자미 비침



⑥ ㄹ받침 외의 받침+ㄷ.....기호 ㄹ+ㄷ 위치, 자미 비침



⑦ 무받침+아, 어.....의 위치를 쓴다.



※ 모음 조화(母韻調和)의 원칙에 따라 ㅏ, ㅓ모음에는 "아서"가 그외는 "어서"로 끝이 원고상 읊은 기자(記字)이다. 가령 발모는 "문을 닫아라" 하지만 문장에서는 "문을 닫아라"가 원칙이다.

### ☆ 토 기호를 마치고 ☆

이상 여러분은 어려운 고비를 넘어 왔다 하지만 이 토의 기법 소화 여하에 따라서 속기사가 되느냐의 분기점이 갈리게 되는 것이니 실제 속기에 있어서 단어에서는 쓰다가 간혹 막히는 일이 있어도 보에서는 절대로 막히는 일이 없어야겠다. 왜? 여기 토기호가 우리말 토회 그 전부이니까 정신차려 공부만 한다면 실상 제 2편에 들어와 번자와 토기법은 1개월내에 완전히 암기할 수 있을 것이다.

☆ 번자 토 기호의 공부가 다 되기 전에는

앞 페이지를 보지 말아야 한다 ☆



<단어는 간혹 막히는 일이 있어도 보에서는  
절대로 막히는 일이 없어야 한다>

## ☆ 속기 상식(速記常識) <三> ☆

### ◇ 속기사(速記士)란 ?

여기에 속기(미국은 Short hand 영국은 Steno graph)라는 것은 기호학(記號學)적으로 본 속기호(logogram) 또는 속기학에 성학(成學)하고 사무를 보게 되는 그 업무 자체를 말하는 것인데, 완전 공부에 앞서 앞으로의 자신 즉 나는 사회적으로 어떠한 구실을 하게 될 것이며, 어떤 자격을 가져야 하는가를 다시금 보살피 봐 줄 필요가 있어 이 글을 쓴다.

요즈음 신문 보도나 방송 문화의 발달은 전국적으로 수 많은 독자 내지 청취자들에게 지식과 흥미를 매일 같이 분배해 주고 있어 이는 곧 한국인 전체의 지적(知的) 수준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것은 신문이면 신문을 본다던지 방송이면(방송극 제외) 교양 시간 뉴스 시간을 예를 들을 때 이 이상 더 학업을 연마하지 않아도 기사(記事)에 대한 또는 방송에 대한 해독(解得)이 완전한 층(層)과 부분적으로 모르는 데는 있지만 그런대로 알아보고 듣고 하는 층과 두 층이 된다고 볼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전자는 느릿느릿 기사를 읽어주면 문장 그대로 적을 수 있는 층이고 후자는 문장화는 불능인 층이다.

그러면 속기관 무엇이나? 한마디로 말해서 남의 말(타인의 언어)을 우선 정확히 청취해서(물론 잘 들리는 자리에서) 이것을 속기호로 기록을 해가지고 다시 우리 문장으로 환원을 시키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니, 우리 말 속기사면 한국 언어 문장에 능통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며, 일본의 속기라면 일어문에, 영어 속기사라면(repoter) 영어에 능통해야 될 것은 물론이다. 하지만 사회의 모든 지식인을 놓고 볼 때 그 전공하는 바에 따라 지적(知的) 수준이 균일하지는 않는데 비해서 속기사는 어느 회석에든지 가게 되는, 즉 각계 각종 연사들의 언어(演語)를 필기해야 하기는 하되 속기사 역시 인간인 이상 만능일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인터뷰"때나 전화 속기에서는 상대방의 말을 잘 모르는 경우에는 뒤늦어 볼 수가 있겠지만 회의 석상이나 라디오 속기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한편 연사로 말하더라도 대중의 지식면을 참작해서 되도록 듣기 어려운 말 전문적인 슬어들은 배설을 한다든지 해서 알아 들을 수 있게 얘기하는 것이 통례(通例)이지만 보편적으로 인간이란 자기의 성격의 다과를 알리는 입장에 있을 때 자기의 인격을 높일 수 있는 언어를 다각도로 표시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고사(古事)를 던다든지 어려운 말을 거침없이 내놓는 것도 무리가 아닌 일이다. 원고없이 하는 연설이 이렇진대 원고를 가지고 할 때는 마치 신문의 논설같은 것을 낭독하는 식도 있으니 청취자의 입장에서 볼 때 난처한 예가 허다하다.

또 말에 따라서는 들어서 아느니 보다 눈으로 봐서 이해가 빠른 것이 있고 그리고 연자의 성대작용(聲帶作用)으로 정확한 발음을 했다 하더라도 유음(類音) 작용을 일으키는 예, 가령 "레포터"하면 속기사인줄 알고 있다면 별문제이거나와 처음 듣는 사람이면 "레포트, 리포터"로 물러기가 일수이다. 이러한 세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속기사이니 속기 공부는 우리말 공부이요, 기초 공부는 부단한 상식 공부와 함께 병행(並行)되어야 하는 학업임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원래 "스피노그래피"는 영국에서 시작이 되어 속기사는 "스피노그래피"가 원칙인데 현재는 "스피노그래피"하면 보통 비서의 통칭으로 되어 있고 단어의 기록 속도도 우리말로 치면 2000자 정도 구미어(歐美語)로는 10분에 120단어를 속기하면 "스피노그래피"행세를 하게 된다. 따라서 repoter란 1분에 1800단어 이상 2500단어로 써야 하는데 이는 우리말로 치면 2700자 이상 3300자의 실력과 맞먹는 것이다. 또한 이 "레포터"는 속기사 협회에 가입이 되어 자격 심사나 대우 문제 등 공동 보조를 취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는 이 "레포터"는 없고 "스피노그래피"가 외국 공판이나 상사, 군대내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대우는 최고 500달러는 받는다.

한편 한국의 최무중인 속기사는 과거 100명(현 90명)의 속기사를 채용했던 국회가 속기사로써 활동이 주무대이고, 기타, 은행, 정부 각 기관, 통신사 등에 약간(30명 내외) 산재해 있어 앞으로 재판소 지방 의회 등 활약 무대의 개척은 실로 이제부터인 느낌이 있다. 보수는 역시 은행이 최고이고 국회가 4급 공무원 대우이니 외국에 비할 때 몇분지 1이나 되는 지 한참 제산해야 할 정도이다. 기타 속기사무(강연회, 주주총회, 인터뷰 등)에서는 시간당 2000원 정도의 속기 요금을 받고 있는데 아무튼 속기호의 공부로 보면 고교졸업생으로 1년을 열중하면 초보 속기사는 될 수 있으니 이것을 보드라도 속기호의 공부란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닌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간혹 사회인 중에는 속기를 아주 경시하는 예가 있어 한마디 하겠는 때, 영어에 능통한 한국인이 "스태노그라피"가 되려면 속기 3개월 타이프 3개월 합하여 6개월 이하로는 불가능하니 "레포터"가 되려면 1년이 상이 걸릴 것은 확실하다. 그러므로 우리말 속기에서도 기본편만 공부하려는 "스태노그라피"라면 속기 공부 1개월 연습, 3개월 정도면 되겠고 속기사가 되려면 1년은 걸리니 속기호의 구성이 타국보다 앞서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말이 문명 국어치고 얼마나 어려운가는 외국인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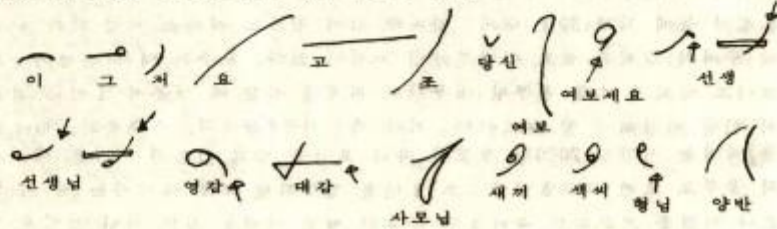
"스태노그라피"와 "레포터"를 혼동하는 오인이 없기를 바라며 끝으로 완성 속기사라 할까 실무속기 2,3년은 지난 속기사라야 속기부호가 자유자재로 구사되어 마치 축구 선수가 공을 자유자재로 굴리듯이 문제의 미를 갖추게 되고 어디로 가나 태연자약(泰然自若) 속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미쟁이도 기술자로 자취하려면 3년은 걸린다. 속자와 원고작성의 문화인이 몇달에 이루어지리라는 것은 좀 생각해 볼 일이 아닌가 하나 이것은 차차하고 "레포터"는 1년이면 가능하고 "스태노그라피"라면 1개월 공부에 몇 개월 기호 쓰기 연습이면 가능할 줄 알면 되는 것이다.

### 제 3 장 각품사(各品詞)의 기호

#### □ 11 □

#### — 대명사 기호 —

대명사는 품사 중 가장 어휘가 적다.  
여기서는 편편 약자와 함께 공부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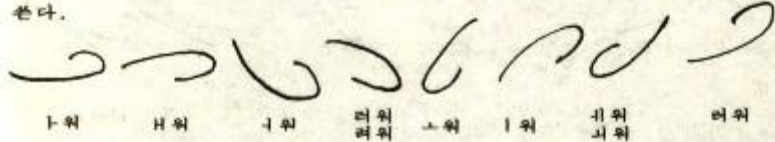


— 형용사 기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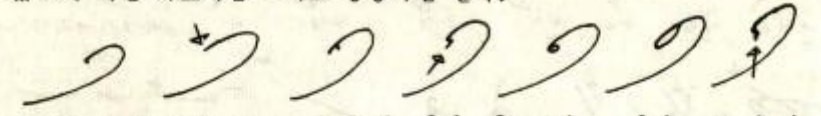
형용사는 어미(語尾)변화가 일정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니 이것만 알면 한시간이면 충분한 공부를 할수가 있을 것이다.

- 니, 니다, 니습니다.
- 위, 위서, 워라, 워다, 워습니다.
- 우나, 우니, 우시, 우서
- ◇ 사랑스러 { 음, 음다, 음고, 음니다.
- 운, 운 것,
- 울, 울 것이다.
- 응, 응므로


이러한 어변을 가지고 있는데, 속기에서는 15mm 시 열자 9개를 가지고 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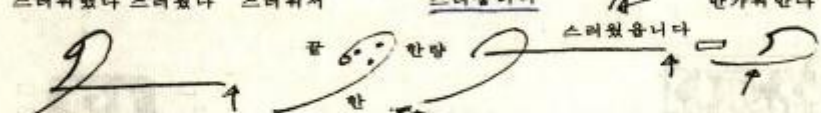
(1) 매워, 미워, 데워, 외워, 태워, 재워, 더워 등 한음자인 경우에는 위의 기호를 그대로 쓰며, "더러워"하면 "더+러워" "자랑스러워"하면 "자랑+러워"로 쓰는데, 어미(韻尾) 변화에 관한 예는 스러워 한가지만 보겠으나 다른 기호에는 그대로 응용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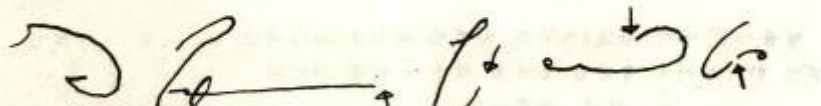
워, 비, 우뚝다, 운, 운 것, 뇌게 울, 울다, 울, 비기, 울기, 울, 울 것  
우시, 우셔



스러워했다, 스러웠다, 스러워서, 스러웁니다, 반가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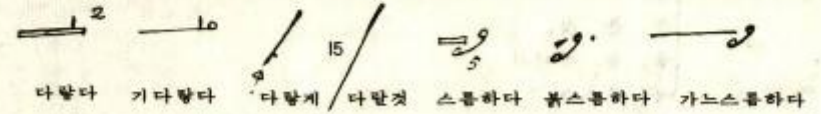


스러울기 짝이 없습니다, 스럽기, 부끄러워합니다, 가까워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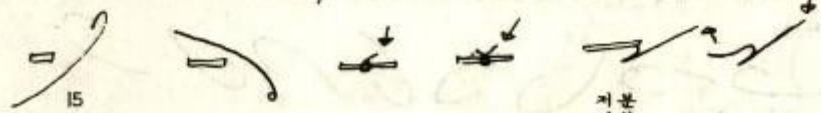


서럽다고, 외모울기 한이 없습니다, 새로운, 아름다운, 풍경

(2) 기타 형용사 일체



다달다, 기다달다, 다달게, 다달것, 스름하다, 볼스름하다, 가스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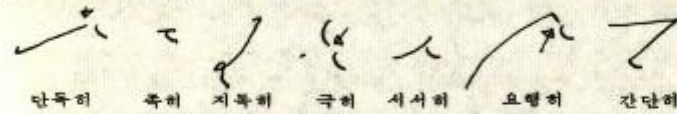
으스레, 적, 지근, 적지근, 저분, 이분, 너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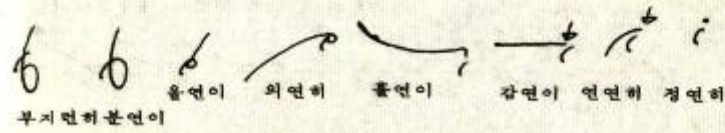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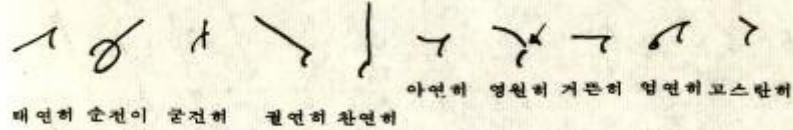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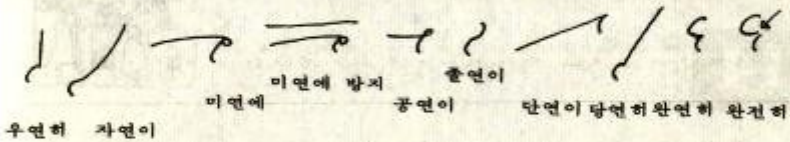
— 부사 기호 —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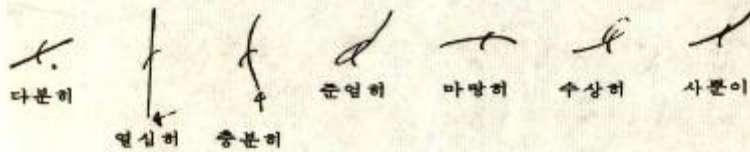
● 일반적인 "히, 이"는 2.5mm "히"자를 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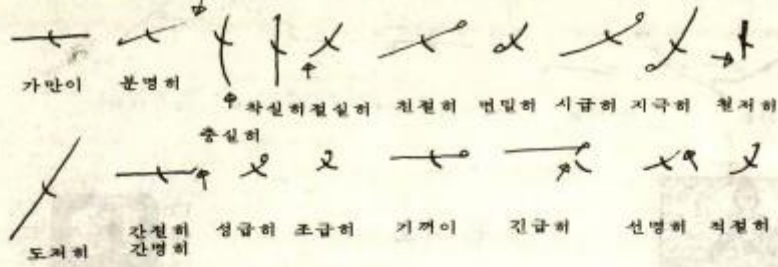
(1) "연하, 연애, L+히"는 순전히 2.5mm "피"자를 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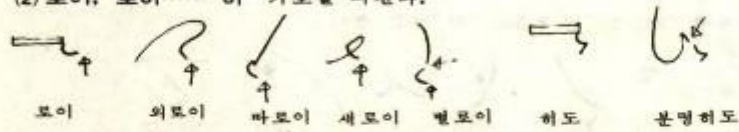
(2) ㅎ, ㅁ, ㅂ (음리를 제외한다)



(1) 만히, 명히, 근히, 빚히, 나히, 나히 등 2mm 허브 중간 교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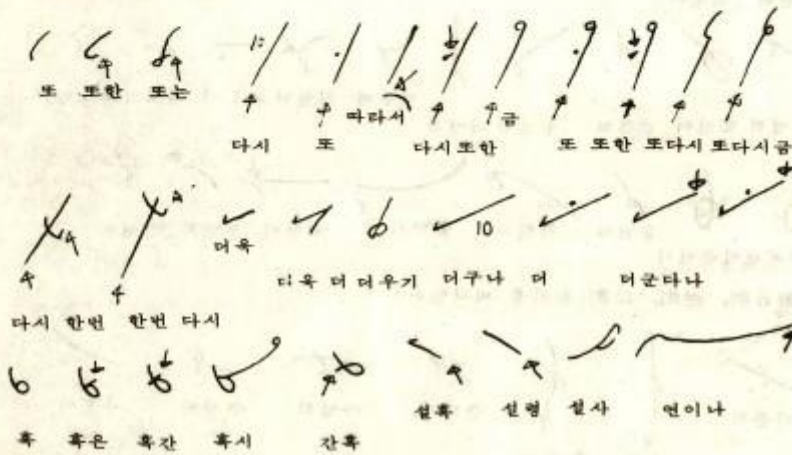
(2) 로이, 로히……“히” 기호를 배친다.



※여기 기재된 것 외 자작해 쓸 것은 물론이다.

14

— 접속사 기호 —



연고로 연인주      그리      그리      그리      그리      그리      그리  
 그러나      그러나      그러나      그러나      그러나      그러나

그리할수록      그럴수록

그리도      그리므로      그러면      그렇지      그리하듯      그렇듯      그럼니다

그렇습니다      그랬읍니다      그리합니다      그러합니다

그래도      그랬오      이리      저리      이리저리      이리나      이리      요리  
 이리나      저리나      이리저리      저리나      저리

조리      꼬리      이리고      고형제도      그렇기까지      그리하도록      그렇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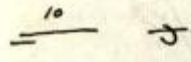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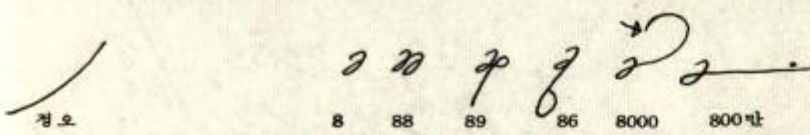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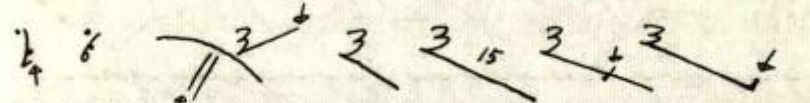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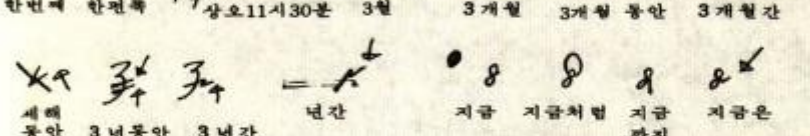

— 수사 기호 —

□ 15 □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년월일, 주소, 도량형 등은 일제 위치를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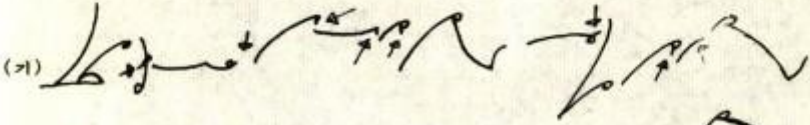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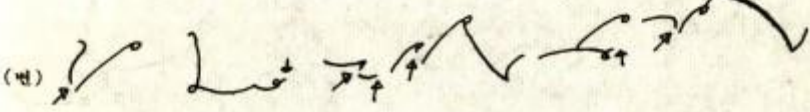

 10 5  
 여러시간 여러 차례 오전 오후 상오 하오  

 경오 8 88 89 86 8000 800만  

 한번에 한편쪽 상오11시30분 3월 3개월 3개월 동안 3개월간  

 세배 동안 3년동안 3년간 년간  

 지금 지금처럼 지금 까지



— 문장 예문 —

□ 16 □

이상 속기호는 기본 문자에서 여기 수사(數詞)에 이르기까지 그 약자적 도정(道程)이 아주 뚜렷하다. 이점이 뇌리(腦裏)에 스크린처럼 나타나야 한다. 그때야 공부를 했다고 할 수 있다. "기본, 번자, 보, 약자"의 네 과정으로 나누어서 일부 시험해 보도록 한다.

(가) 
  
 (변) 

(도)

(악)

(기)

(도)

(기)

(악)

(기)

(배  
도)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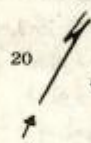


(본  
문)



위의 문체에서 보면 현시의 속기호는 기본자에 비해 약 30%의 자수가  
↓했음을 알 수 있고, 다시 기호가 가진 간편성을 합치면 파시 기본자 보  
다 잡철의 속도성을 내고 있음을 알겠으니(물론 언어에 따라 일정하지는  
않으나 여기 예문은 비교적 평균적이라고 볼 수가 있으니) 여러분은 지금  
까지의 속기호로써 얼마의 속도를 낼 수 있는지 짐작이 갈 줄 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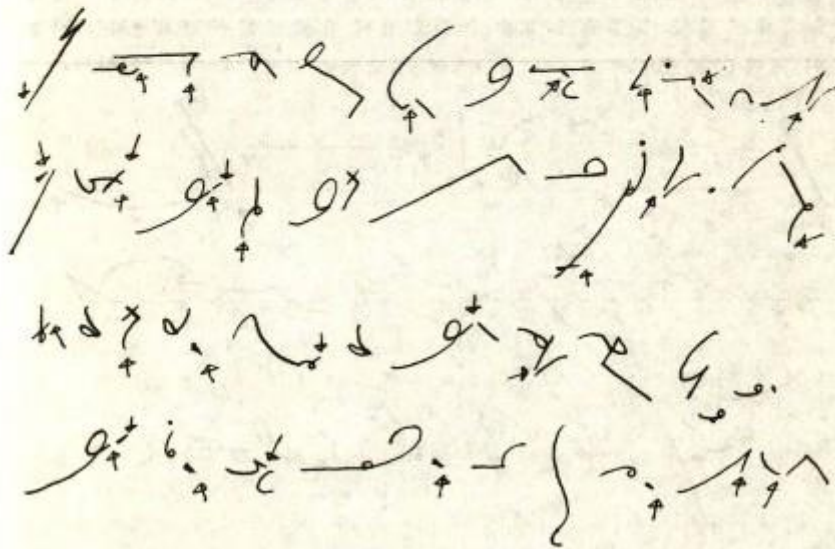
※ 아래 페이지의 속기문을 번역하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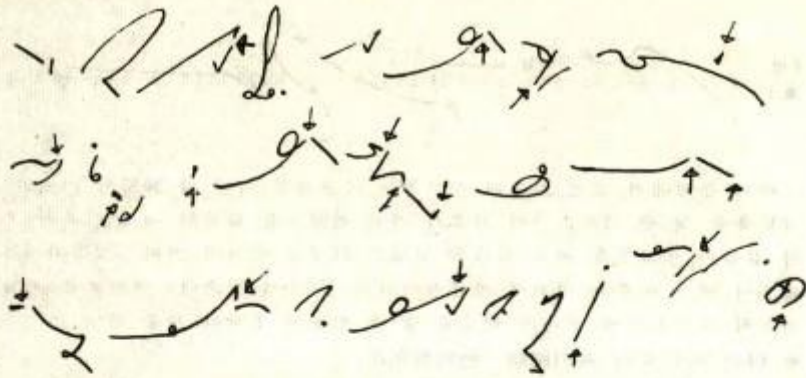


속기 시작 기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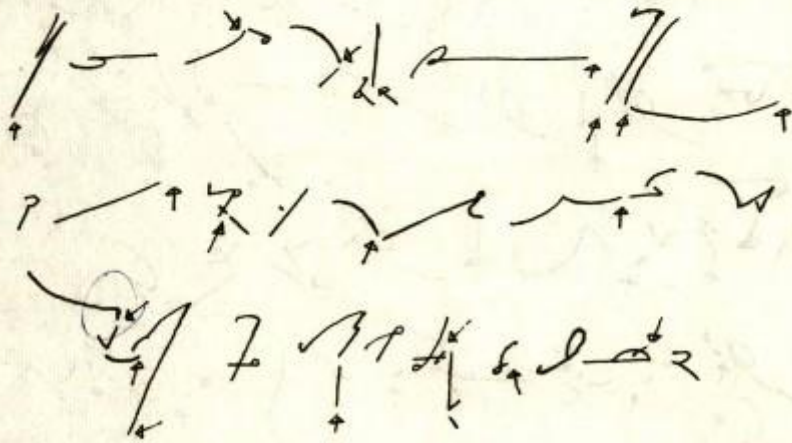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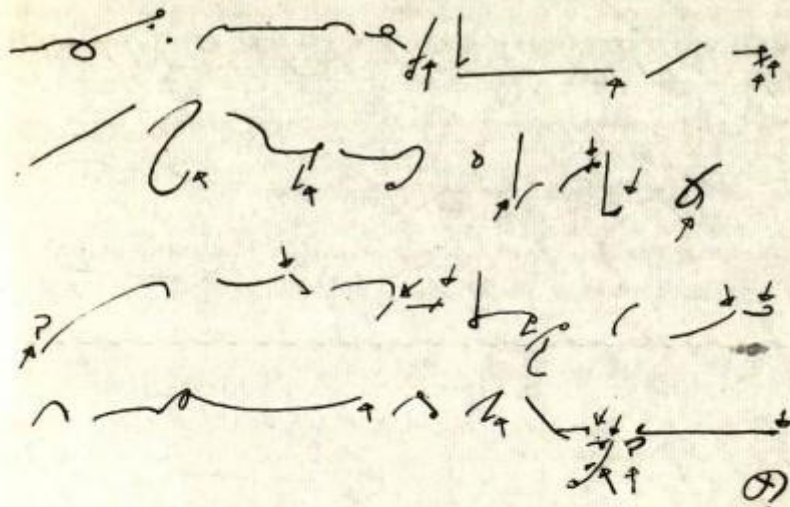
속기문 끝 기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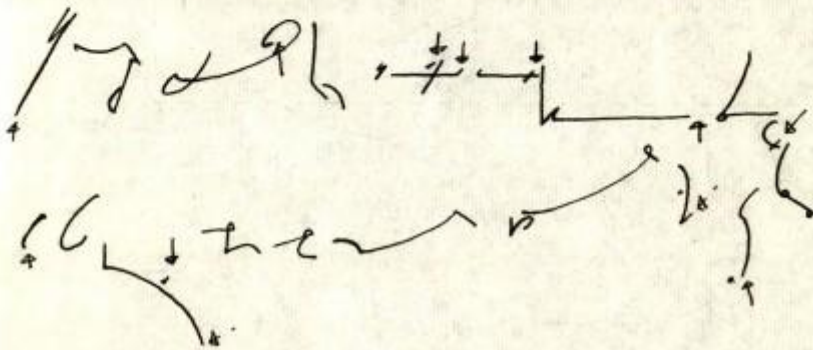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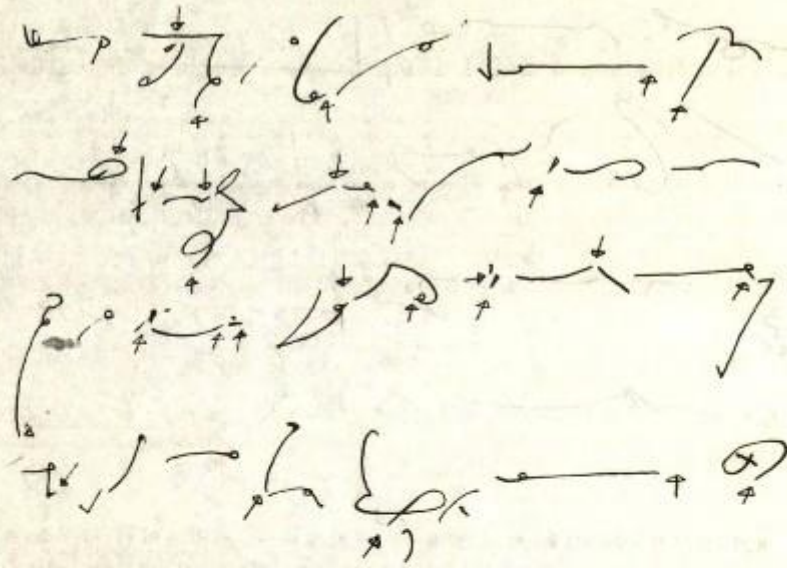
그날그날의 인류 생활을 표현하고 사회 각층과 온 겨레의 여러 사실을 보고 해명하는 신문은 우리의 사회 생활을 지도하고 규정지어주는 구실을 한다. 이렇게 생각할 때의 우리는 현대 생활의 절대적인 영향이 있을 때 신문의 특질을 이해할 필요를 느끼게 되는 것이다. 신문은 정신적인 내용과 기술적인 경영 방법과 경제적인 사업 행태하고 세가지 요소의 통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문의 특질을 이해하려면 먼저 정신적인 면 즉 신문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뉴우스 본질 문화면의 기사들이 어떠한 수단으로 어떻게 독자에게 전달되는 것인가를 알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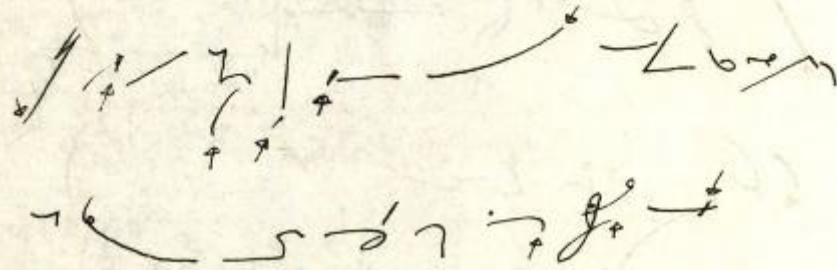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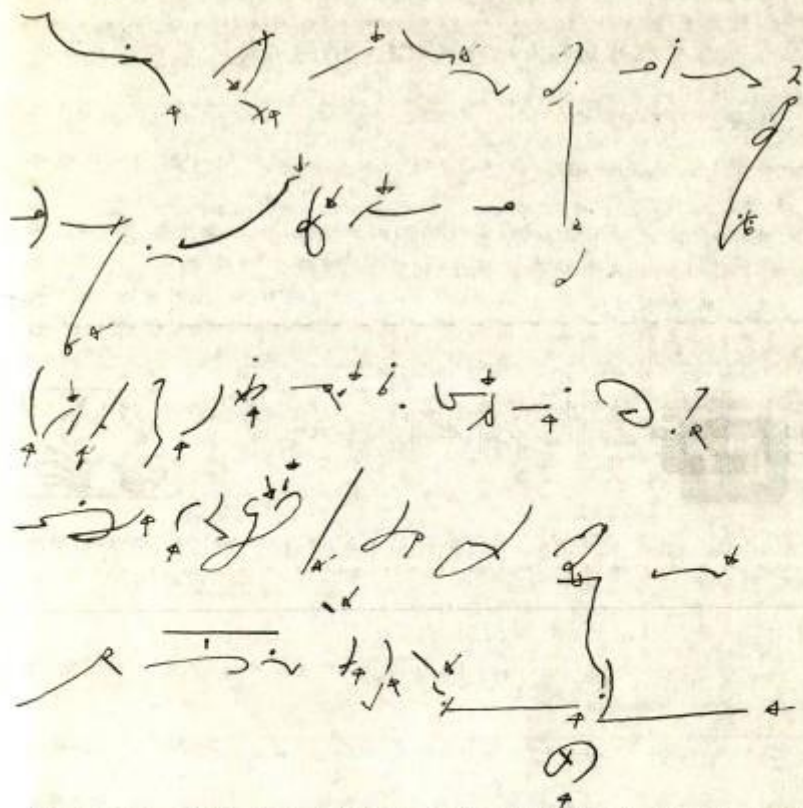
내가 산에서 양(羊)을 치고 있을 때 얘기입니다. 며칠씩이나 사람을 통  
 구경을 못하고 다만 양떼와 사냥개만을 상대로 홀로 남아 있어야 했습니  
 다. 이따금 약초를 찾아 여기를 지나가는 일도 있었고 또는 숲 굽은 사람  
 의 검은데테한 얼굴이 눈에 띄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도  
 외로운 살림을 했던 나머지 종체로 입을 여는 일이 없는 순박한 사람들이  
 어서 남에게 말을 거는 취미도 잊어버렸거니와 또 산아래 여러 마을이나  
 여기에서 어떤 화계거리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주요치 않은 일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는 일은 없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중에서 꼭 필요한 것이라면 그것이 때와 장소에 구애되지 않고 반드시 몰달적 흥미를 부지부식 중에 아기시키는 것은 예사인 것으로 압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와 같은 일은 인생에게 주어진 본능적인 것이어서 제 아무리 경망한 사람일지라도 여기 어긋남이 없이 자신사라고 하는 것은 세대로 계몽이 없어도 그것은 자각적으로 마치 축전의 추각과도 같이 재빨리 알아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봐요 그때 그것이 좋은 일인가요. 제가 가사 나갔다가 후 늦게 왔다고 해서 너무 심하게 골것이 무엇 있오. 이것 정말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나는 알 수가 없으며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단 하루라도 어찌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그 점을 나에게 좋게 알려주시기를 바라는 바이며, 그밖에 나더러 하고 싶은 점이 있으시면 해보셨으면 언제나 그 충언을 달게 받을 작정으로 있어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해결책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절절 끝지만 마시고 꼭 와주신다면 일정한 주전을 세워서 어여시 해나가볼 생각밖에 없습니다. 만약 소기의 목적대로 달성아니 되더라도 저는 별로 섭섭히 생각않겠습니다.

## 제 4 장 약자법 (略字法)

### ☆ 고등 약자법 ☆

약자법이만 전술(前述)한 바와 같은 방식으로 다른 단어를 약자와 할 수 있는 일종의 공식이다.

약자하면 그 기호가 그대로 굳어진 것이지만 법하면 응용을 전제로 하는 것이니 이점을 혼용하고 공부해야 한다. 따라서 이하 책에 수록되는 속기호는 해당 약법에 의한 기호의 예이지 약법에 의해 될기되는 언어의 그 전부가 아니라는 점을 잊지 말고 각자(各自) 학습상 오인(誤認)이 없어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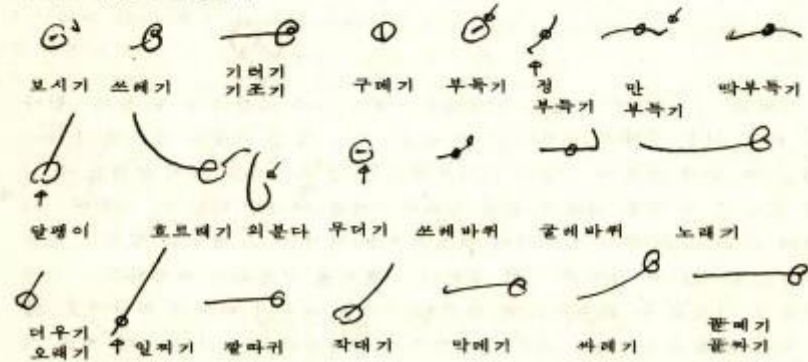
□ **17** □ - 명사(名詞)중 1가 끝자인 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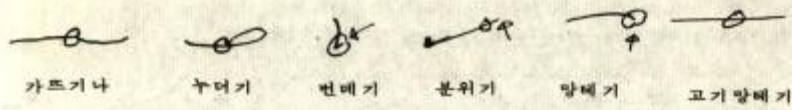


이 기법은 원래가 순수한 우리말을 상대로 해서 작성이 된 것인데, 한자어로 이용을 해도 무방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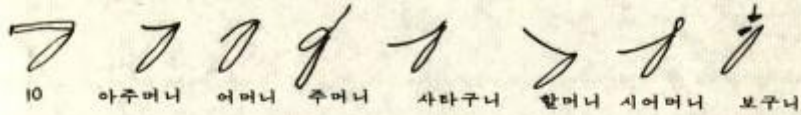
#### (1) 기(귀, 키, 쉰)가 끝말인 것

3mm 원을 자미(字底)에다가 가하는데 특히 4 음자나 구별을 해야 할 경우에는 중간 교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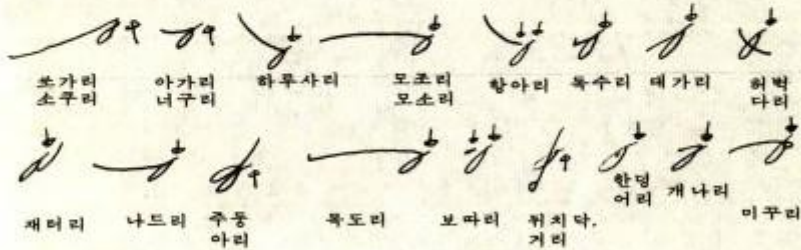
(2) "니"가 끝말인 예……10mm "쟁"자를 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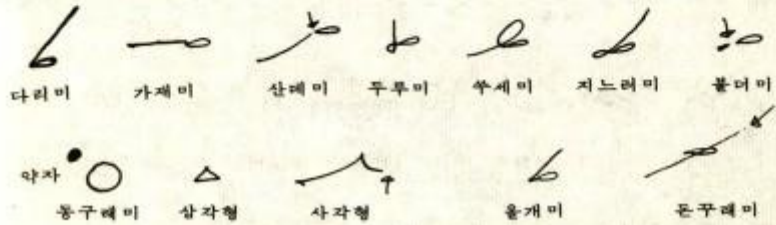
(3) "님"이 끝말인 예……파+아의 형식으로 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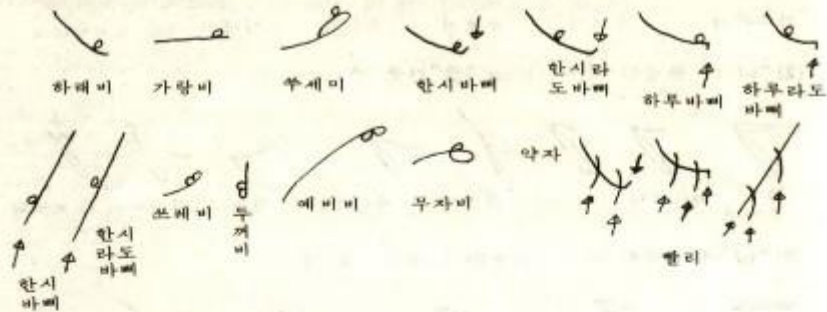
(4) "리"가 끝말인 것……5mm 쟁+ㄴ 기호를 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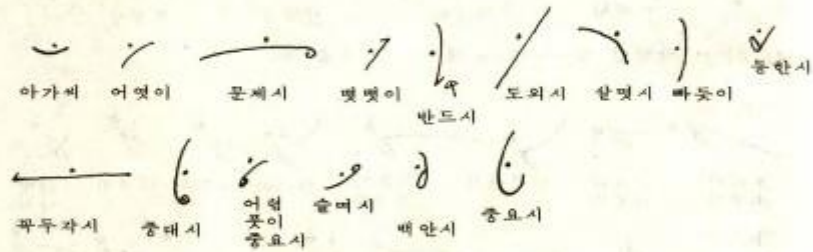
(5) "미"가 끝말인 예……"넙"자를 씀



(6) "비"가 끝말인 예……에 위치 반대에 소원을 함



(7) "시"가 끝말인 예……"시" 위치를 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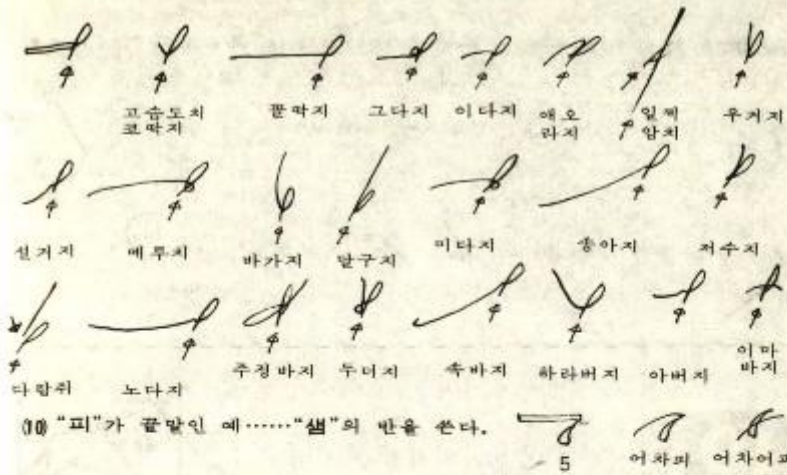


(8) "이"가 끝말인 예……5mm 원을 자미에 붙인다.



(9) "지(치취)"가 끝말인 예……셈+늬를 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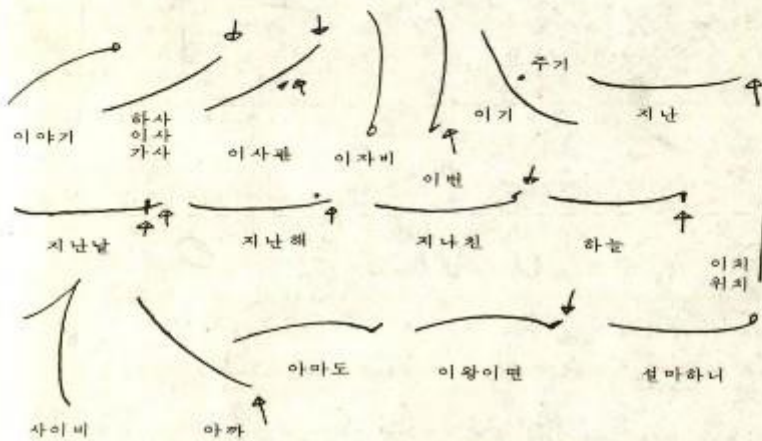




— 토 기호 이용 약자법 —

18

토기호 중 약자로 쓸 것은 다음과 같다.



※대로……

문자그대로

관자

※○○로……복용도의 “로”기호로 교차한다.

극도로 진실로

서로 스스로

가카스로 참말로

십십 푸리로

예사로 바로 앞으로

정말로

는고로 오로

자고로 연고로

악자

10

바야호로

□ **19** □ — 상형(象形) 약자법 —



☞ 이 것은 한자에서 상형자의 일례(例)이다. 이러한 식의 약자를 상형 약자(象形略字)라 한다.

Z Z Z (Z with arrow) (Z with arrow) (Z with arrow)    가운데 한 가운데 그가운데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켈트 켈트기 여객기    크리스마스 카드 크리스마스별    이하    강(江) 한강 임진강  
 산(山) 백두산    유엔 유엔군 유엔사령부 태극기  
 위집어쓰다 물러방다    삼각형    동구대미    피라미 산봉우리    크리스마스 선물



— 고유 명사(固有名詞) 기법 —

20

(1) 인명(人名), 지명(地名) 등 고유 명사는 첫자의 쓰고 아래에다 직선 을 그어서 고유 명사임을 표시하고 끝에 고유 명사의 끝자를 쓰는 식으로 약 자화한다.

이승만      루스벨트      아메리카      아프리카      모스안젤스      도쿄

10      뉴욕      톨슨      백린      파리      모스크바      일본      중국      미국

인도      독일      소련      홍콩      불탄서      불국      이태리

15      월남      베트남      파키스탄      이스라엘      만주      한국      대한      대한

(2) 정부 기관, 관직 도(道) 약자 기타

○○부(部)      국방부      내부부      ○○부 장관      ○○부 차관      ○○부 장관      ○○부 대통령

○○청      ○○청장      ○○처      총부처      참모총장      참모차장



20 의정부 동두천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 중로 을지로 성동 성북

3 광주 대구 중주 춘천 20 아리 진제 경주

16 서울특별시 성동로구 25번지 노랑진 국회의원 국회의원가원 대의원

3 ○○로(路) 중부로 시장북로 북문로 서문로 남문로



— 일부음 약자법 —

□ 21 □

번지에서 여러분은 국민, 골고루, 진민 등 여러 약자를 무조건 공부했는데 그 출처를 살펴보면 구 7口 | L에서 口 |, "골고루"에서는 ㄹ, 고 "진민"에서는 ㄴ口 |가 빠진 것을 알 수가 있다 고유명사에서도 같다. 외에도 또 약자에서도 이와 같은 예는 많음을 알 것이다. 이와 같이 단어 중에서 일부분을 빼고 쓰는 예를 가리켜 일부음 약자법이라 한다.

이것은 순전히 기억에 있는 그 자체를 이용한 것으로서 로마 시대의 이자 속기호가 역시 이에 속했을 것이라고 믿어지며 가장 이해가 빠른 약자법(상형 약자도 같다)이며, 또 약자의 대부분이 이에 속하는 것으로서 가

행 "발"하면 우리는 발의 형태 또 심지어는 속식의 종류가 막연히 연상되는데 이런 한계를 넘어서 꽃밭하면 각가지 꽃이 연상될 것이며, 다시 범위를 더 좁혀서 가을의 꽃밭하면 누구나 맨 먼저 연상하는 것이 "국화" "과" 따위일 것입니다. 정거장 하면 우선 차표를 사는 많은 사람들, 일면 ( 列)로 늘어선 여러 가지 모습, 기차 그리고 역원들, 화물들 이렇게 연달아 우리의 두뇌는 쉬지 않고 정거장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개개인의 추억이 상기된다. 이것이 바로 속기 약자에서 말하는 연관성이라는 것이다. 국민할 때 국민과 아주 틀린 기호를 약자도 정하면 이때까지 자기 기억에 있는 국민이란 기호는 깨끗이 잊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니 결국 잊으려는 노력, 새기호를 배우는 노력 이 두가지가 작용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일부를 약자에서는 국민이라는 기호 중 일부를 약한 것이니만큼 약한 부분을 잊으려는 노력만 필요하니까 여기에 소위 연관성이 작용을 해서 그만큼 암기하기가 수월하다.

한가지 더 첨가해 말해줄 것은 약자법이니까 필요한 단어를 자의로 약자화한다는 것인데 너무 많이 작성은 하지 말라는 말이다.

왜냐하면 이 책에 수록된 약자들은 현 속기사들도 이를 다 쓰지 않고 있다. 그것은 번자와 기본 문자를 쓰는 것이 나중에 반문하기가 편해서 자연히 많은 약자를 껴리는 결과인데 실상 약자란 자주 쓰이는 말에 한해서는 편하지만 자주 쓰이지 않는 약자란 불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니 우선 여러분은 책에 나오는 약자를 완전 소화시키는데 주력을 하고 기외 필요한 것은 각자 법에 의해서 편의껏 작성하되 그것이 일상 자주 쓰이는 말인지 분간을 해서 되도록이면 개수를 적게 할 것을 일러 두겠다.

(1) "가" 열중에서...

Examples of '가' characters with stroke order and labels:

- 계속 (Gyesok)
- 중립 (Jungnyup)
- 끝고부 (Kutgobu)
- 기인 (Gin)
- 계몽 (Gyemong)
- 급기아 (Gupgi-a)
- 가장 (Gajang)
- 교섭 (Gyosep)
- 구태여 (Gutae-yeo)
- 중지 (Jungji)
- 귀속재산 (Gwisok-chaesan)
- 강습 (Gangsup)
- 강습회 (Gangsup-hui)
- 강연회 (Gangyeon-hui)
- 국제연합 (Gukje-yeonhap)
- 경쟁 (Gyeongjaeng)
- 과업 (Gwaeop)
- 과업 (Gwaeop)
- 간첩 (Gancheop)
- 공무원 (Gongmuyeon)
- 규정 (Gyujeong)

(2) "나"행 중에서...

내외, 노획, 노동, 논급, 남쪽, 남을

농촌, 농어촌, 농산물, 논쟁

(3) "다"행 중에서...

동원, 대다수, 다대수, 단순, 대부분, 동용분

독후, 동원, 동산, 부동산, 동등, 동용, 동명, 당원, 단결

(4) "마"행 중에서...

모양, 모름지기, 모순, 만약

망명, 무류표, 당선, 목장, 무능, 면적

(5) "바"행 중에서

불가분, 불충분, 부동명, 비록, 발생, 본진, 벌서, 비판

보안법, 발급, 법률, 빙과, 인류, 분류, 분리, 법안, 본법안

(6) "시" 행 중에서...  
 스승, 수준, 심지어, 수학여행, 신용, 선거, 소식, 심정, 습관

(7) "아" 행 중에서...  
 예산, 예산안, 우주, 약간, 언급, 언급위원회

운동, 억압, 운동, 일직, 아직, 아직도, 육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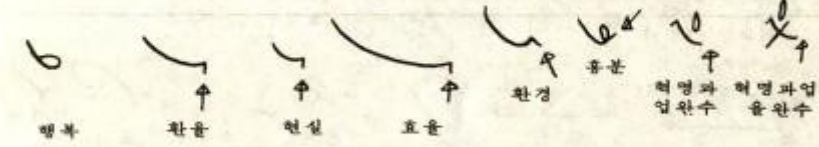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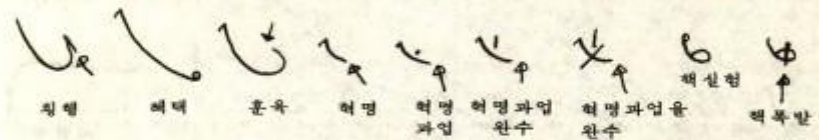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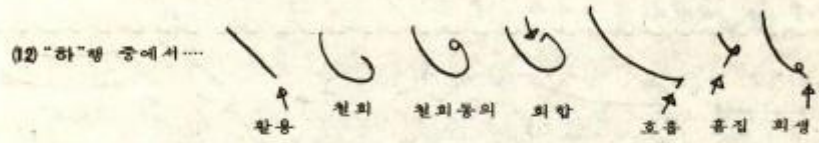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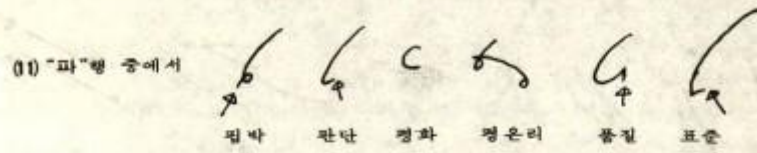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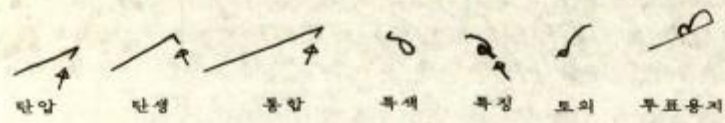
(8) "자" 행 중에서...  
 직접, 재산, 준비, 진흥, 심중, 중소기업, 재점, 재자리점음

(9) "차, 카" 행 중에서...  
 출현, 중문, 최고회의, 국가재건최고회의, 체육, 단체제, 천부담만부담

찬성, 찬동, 초월, 추가경정, 추궁, 크나크, 카나리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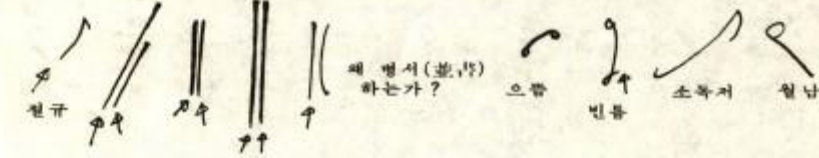
(10) "타" 행 중에서...  
 특히, 특별리, 특별, 투표, 투표함, 투표구, 부제자, 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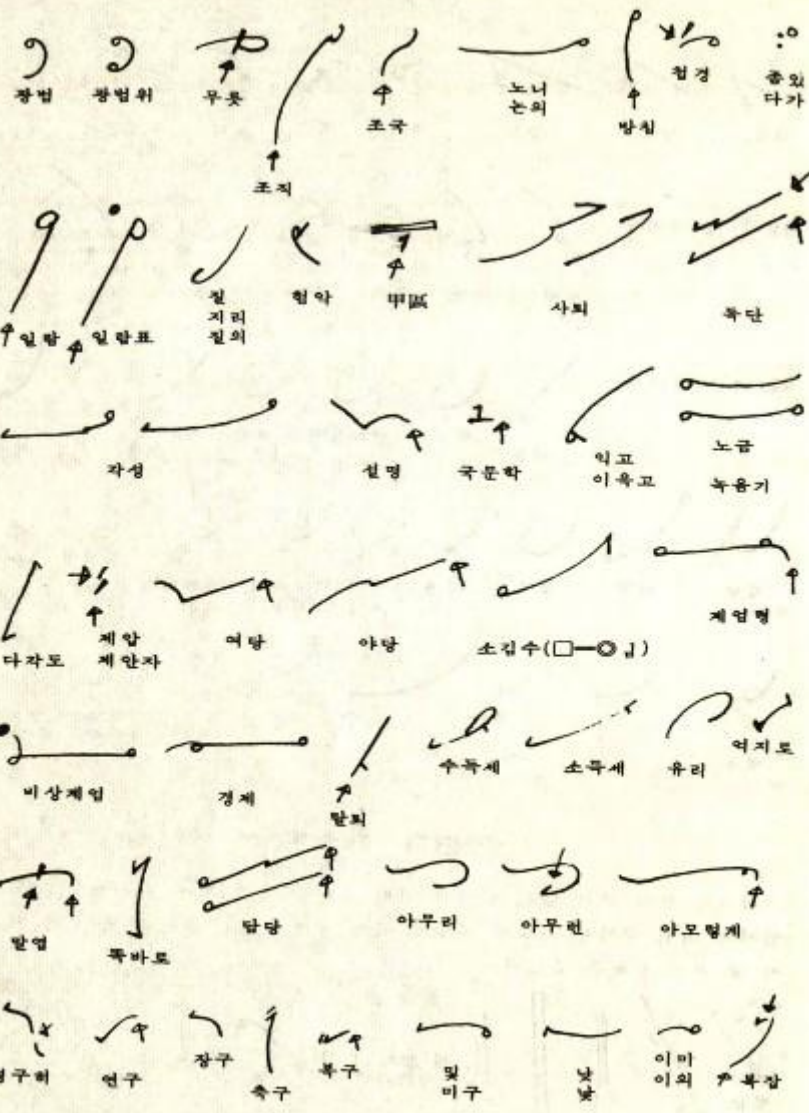




☆ 변자 테스트 ☆

자기가 현재 쓰고 있는 변자가 과연 음계 이용이 되어 있는가? 또는 변자에 대한 약자는 어떻게 확안을 해야 좋겠는가? 하는 점을 보기 위해서 몇 가지 실례를 들겠다.







(1) 왜 새삼스럽게 테스트해야 하나?  
 번자가 효과적인 역할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약자가 요구되는나  
 안 되는나 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 (2) 이상 몇몇 번자 기호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점을 느꼈는지!
- ① 유음은 적극 활용하라...이육교, 논의, 진의 등 예(例)에서
  - ② 체결 (동남향 직선끼리 서지는 곳)을 없애도 좋을 때는 없애라 담당, 작성 등
  - ③ ㉠법을 초음에 이용할 수도 있다...범인 등
  - ④ ㉡ 위치가 바뀌는 수가 있다...피+㉡이단 말은 없다. 이렇게 쓰이지 않은 음자는 악자로서 이용하기 가장 적당한 말이다.
- (3) 다음을 번자로 써 보아라(이 속기호는 2면 끝에 실리겠음 P. 221)
- 결단, 생활, 속기사, 방법, 출혈, 편찬, 입증, 매일, 임금, 보편적, 전령  
이윤, 문무, 감독, 용육, 신사, 법권, 유구, 훈련, 허용, 순천향, 번속,  
운수, 백성, 형용, 양양, 추상, 규속, 화정, 영구차, 총력, 진차, 지면,  
면장, 음과, 가운



<한서배 영운 강습회에서>



<네스드는 여러번 써  
보는 것이 효과적이다>



— 동행 기호의 예 —

☆ 3 음자 약자법 ☆

원칙적으로 동행 기호를 중간 교차함으로써 약자와하는 것인데 약간 예외를 둔다.

<3 음자>	<기법>	<예문>
○○ㄱ		 개경포 애당초 지엄소개소 보도소 입후보 입후보자
○○T		 기한부 운전수 중앙당부 지청구
○○H		 담배대 아무개 아낙네 무지개 풀밭내 장독대 쏘시개 이우시개
○○코 ○○롱고 ○○널고		 기어코 결단코 터놓고 밀어놓고 처놓고 무턱대고
○○내		 무가내 풀밭내 단시일내 비린내 피비린내 막무가내
○○부		 과부대 원자력 방청객 불청객
○○숙 ○○복		 해수욕 미수복 일광욕

○○ ○○		미역국	푸국수장국	까마득	까마아득
○○		망할놈	죽일놈		진방진놈
○○우습		너털우습	비우습		기막힌우습

23

— 기타의 예 —









< 3 음자 >	< 기법 >	< 예문 >
○○ㅏ		운전사    제리사    속기사    선교사    재출마
○○ㅑ	○ 측면 자를 소원으로	현수막    휘주막    물지자    한층막
○○ㄷ ○○ㅅ	○ 측면 자를 다원으로	손바다    밭바다    한가다    꽃방석    비단방석
○○ㅓ	ㄴ + ㅏ	벌안간    어연간    다초간    상호간    삼시간    외양간

 불원간  
  무죽간  
  고기간  
  가부간  
  상출간  
  우명간







 난장판  
  새까만  
  새파만  
  새하얀  
  좌우간

○○안






 예산안  
  법출안  
  건의안  
  토의안  
  동의안  
  동의안전

○○갈




ㄹ+ㅅ

 최수갈  
  저짓갈  
  이맛갈  
  곤달갈  
  서릿갈  
  주름갈

○방울

 유리알  
  예주알  
  크주알  
  첫수갈  
  분방울




○○길

 지름길  
  오출길  
  끝복길

○○점



○○씨

○육번가  
불 소원  
으로

 자궁암  
  배추씨  
  석굴암

○○남

ㅌ+ㅅ

 손지갑  
  돈지갑

○○남

ㅅ+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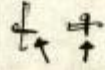
 목욕탕  
  의사당  
  성황탕  
  대구탕  
  출행탕

		 꼬부랑	 선동랑	 에배당	 시궁창	 구석방
○○삼	2.5	 원점반상	 우동상	 일동상	 이동상	 자개상
○○ ○○ ○○	◎ 북을 소형으로	 서울역	 시루벽	 빈대벽	 새벽벽	 방구석
		 부스럭	 천러덕	 가부덕	 누른적	
○○	"한것이 라고"로 교차	 시꺼먼	 어수선	 八仙		
○○	○ 앞 + 7	 장마철	 가을철	 비단결	 연필필	
○○ ○○ ○○	"참" 번자 + □	 발다름	 진한숨	 부스럼	 세겨름	
		 꿈새춤	 얼겨주춤	 우람습	 알가름	



○○서 ○○서	○○미물음	연거머 은익머 인력머 의남머 신참머 성명머
		싸움머 자전머 보고머 안식머 알구머 표준머
○○권	권번자+人	입장권 계승권 선거권 피선거권 참정권
○○서 ○○소	미치지 않는 "거듭부호"	이발소 경찰서 세무서 교도서 소방서 형무소 관공서 보건소
○○원	"으"+人	고아원 양노원 창경원 미장원 정양원
○○성		감수성 번데성 조심성 정당성 타당성
○○절		3·1절 광복절 개천절
○○품		생활품 생활필수품 가공품 고공품 생활

○○  
○○



네모끝



물너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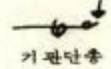
박덩쿨

○○  
○○

"중"변자  
교차



기관총



기관단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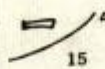


연발총



마발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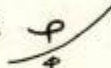
○○인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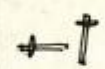


기막힌



눈물 어린

○○일



쓰라림

홍부림

이사짐

속사짐



앙까님



매마침



마침



마침내

○○짓



이친짓

새우짓

생프짐

머무지짐

머무지짐

○○짓



곤쟁이짓



어리굴짓

○○질



삿대질

밭근질

마당질

곤두박질

헛감질

줄다름질

○○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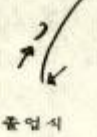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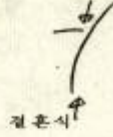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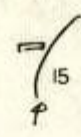


달음박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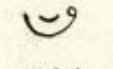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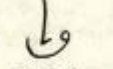


서방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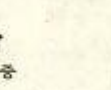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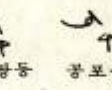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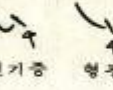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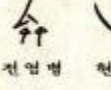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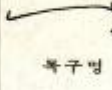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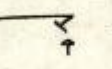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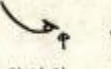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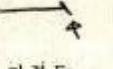
○○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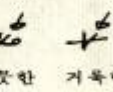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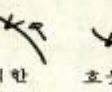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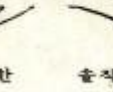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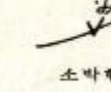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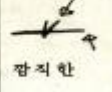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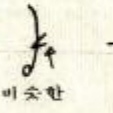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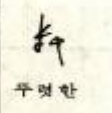
○○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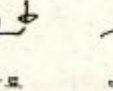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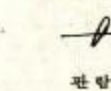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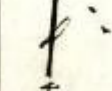
○○으  
○○으



○人한  
○기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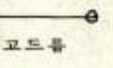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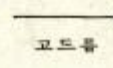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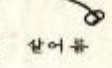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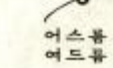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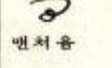


○○료  
○○류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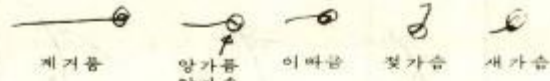


○○음

○○기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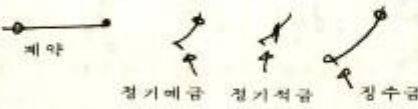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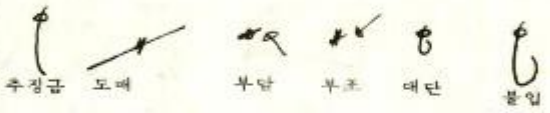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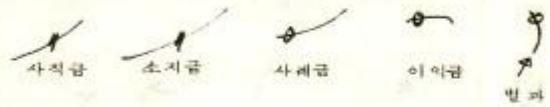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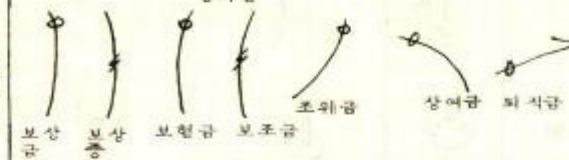


○○품



○○금

소원  
거나  
교차  
한다



○○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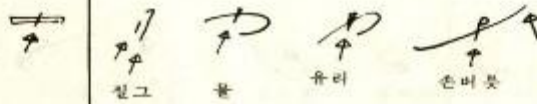


○○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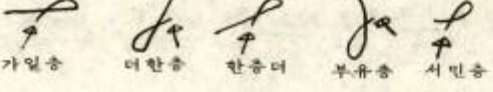
○그뜻

○노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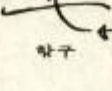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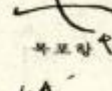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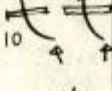


○○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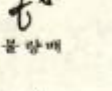
특변 "유"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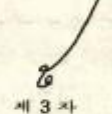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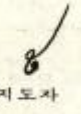
○○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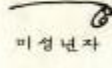
○○배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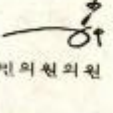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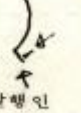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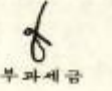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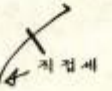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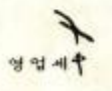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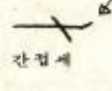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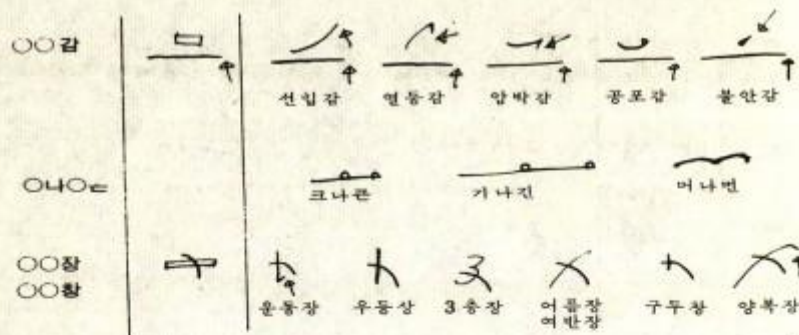
○○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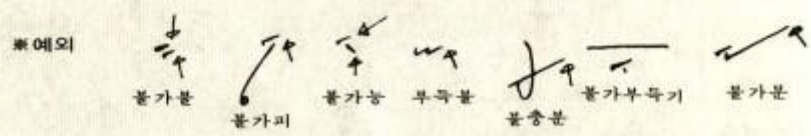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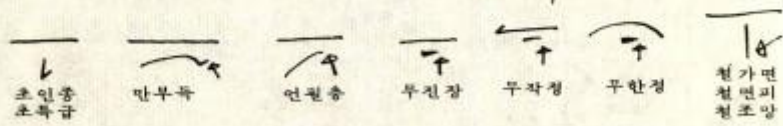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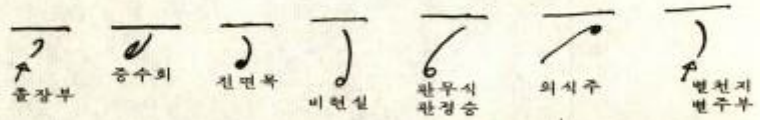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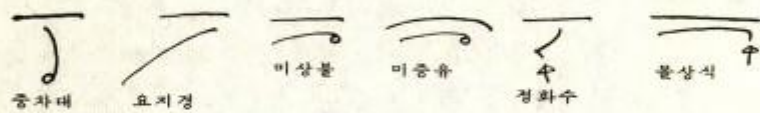
○○세

○○세금





※ 이상 외에 중차대(中且大)와 같이 세개의 음자가 합쳐서 사용이 되는 말과 단어위나 아래에 한자가 더불어 3음자를 사용이 되는 한자어는 4음자 기법과 같이 쓴다.



●(總)○○약자...  
 ●출결기 ●퇴각중 ●선 ●선거원 ●등원

5  
 ●사퇴 ●책임자 ●지휘자 ●감독자 ●문적 ●공적  
 ●진적 ●출적 ●출동 ●퇴각 ●인원 ●사명부 ●사적 ●퇴적

3음약자는 번자나 마찬가지로 하나하나 완전히 암기해야 한다. 그래서 이상 소개된 기법 해당어가 나오면 서슴치 말고 일차 약자화해봐서 쓸 수 있는 것은 누우트 정리와 함께 최대한 써야 한다.

흔히들 두음자로 된 단어는 받침이 없이 쓰는데 이 3음자가 언어 도중 일어나오면 당황하는 예가 많은데 이는 평상시 3음자에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자어에 있어서는 대개가 이음자 단어에 한자가 붙어서 3음자를 구성하고 있어 쓰기가 용이하지만 순수한 우리말에서는 원래 3음자어가 많아 자칫하면 열을 올려 새 나가면 손이 딱 멈춰지는게 보통이니 여러분은 그런 일이 없도록 연마하기 바란다.

연습 도중 가령 금혼식하면 이는 ○○式이니까 번자 "금"에다가 ○○式 기호를 쓰면 되는구나 하는 직각적인 느낌이 들도록 공부해야 한다.

예를 더 들어보면 햇바닥하면 ○○약 반역자하면 ○○꺾 뒷판목(○○ㄱ) 백안시(○○시) 쇠가죽(○○ㄱ) 도시락(○○ㄱ) 손아귀(○○기) 비상시(○○시) 비구승(○○승) 보루통(○○통) 무퇴한(○○한) 짝적한(○○한) 풍수해(4음자식) 누진세(○○세) 불구자(○○기이나 번자로 씀이 좋다) 의문시(○○시) 의아시(○○시를 쓰면 의아시와 구분이 안 되니 이아시로 써야겠구나) 콩나물(○○물이지만 번자를 쓰나 ○○물을 쓰나 비슷하니 당연히 번자로 써야겠군) 외태품(○○품) 가설비(○○品) 가설비(○○비) 목발물(○○물) 고위층(○○층 또는 4음자식) 결단성(○○性) 후닥닥(○○ㄱ) 충공기(○○기 또는 4음자식) 단경기(○○기) 후반기(○○기) 권위자(○○자) 공천자(○○자) 선입감(○○感) 모리배(○○배 불필요) 경사

지(○○地) 거스름(○○卍) 자비심(○○心) 처기암(○○岾) 꽃방구(○○  
 T) 방청객(○○客) 누룽지(○○地) 권구풍이(○○이) 지리산(○○山) 삼  
 진강(○○江) 기원중(○○中) 어수선(○○線) 인기척(○○척) 나드리(○  
 ○리) 도리깨질(○○질) 방앗간(○○間) 세현절(○○절)……

이런식으로 약자법적 기호가 있느냐 없느냐 있으면 변자로 쓰느냐 보다  
 약자 기호가 속도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우선 독자적으로 알아차리고난 후  
 에 노우브를 일차 검사해서 이것은 세도 잘못 번역할 염려가 없구나 유의  
 어(類意語) <뜻이 비슷해서 실증판구 잘못 번역하기 쉬운 말 업무(실무)  
 의아심(의구심) 현대(현재) 살인(상인-傷人)>등은 어떤가! 하는 점을  
 보살피서 정확히 처리했 두면 비로소 그 기호는 자신의 기호가 되는 것이  
 오히려 약자법이 뜻하는바 가치를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앞서도 속기 공부는 언어 공부와 우리 문장 공부다라는 말을 필자는 강  
 조한 바 있다. 우리말의 3음자가 이 정도 다양(多様)으로 사용되고 있다  
 는 실에도 속기 공부를 하는 사람만큼 진실히 느끼는 사람은 그다지 흔  
 하지는 않다 4음자도 역시 그렇다. 하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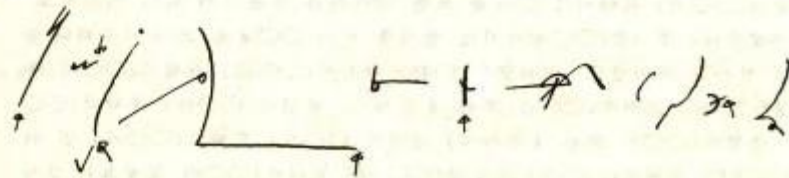
※ 속기 공부 즉 언어 삼식 공부-기호 공부임을 여러분은 이제는 충분히  
 깨달았을 것이다. 그리고 속기호 공부란 결국 삼식이 풍부한 사람일수록 비례  
 적으로 습득 시일이 단축된다

는 점도 아울러 스스로 인지(認知)하게 있을 줄 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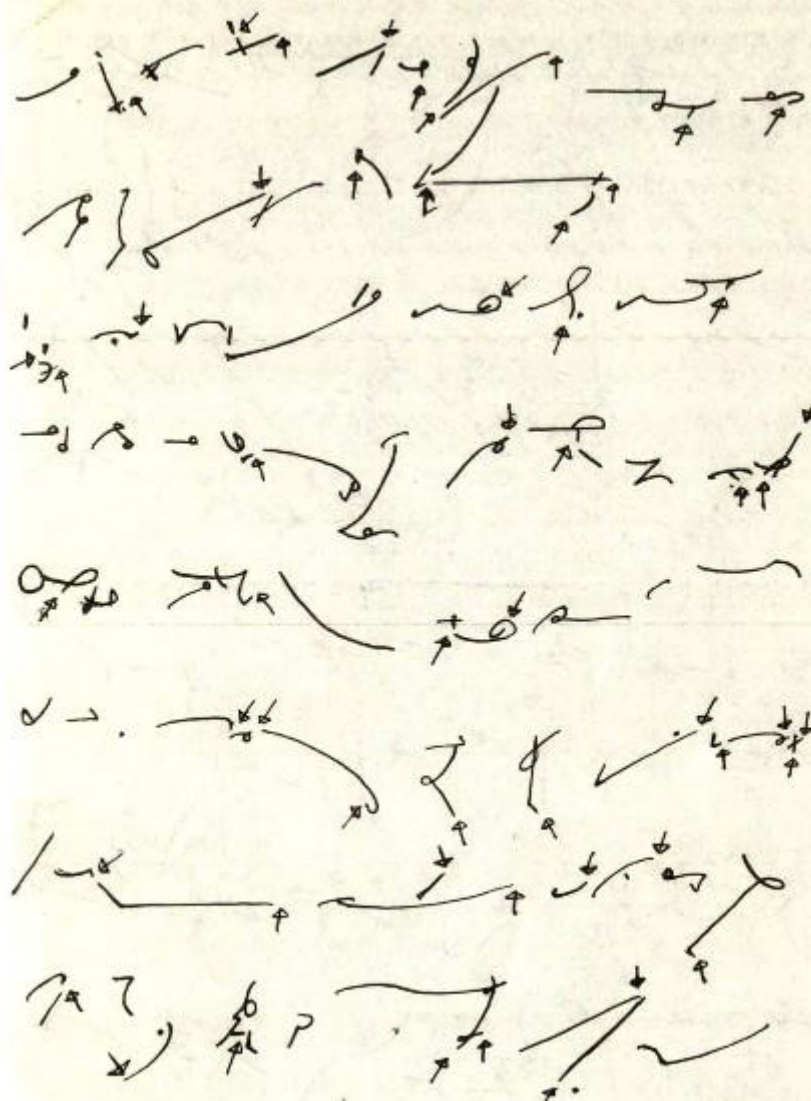
앞으로 여러분의 공부는 새로운 것은 특수 약자뿐 이제는 공부도 종점  
 (終點)이 멀지 않다. 어서 종점으로 하고 달리기 전에 지나온 길을 다시  
 한 번 되살려보고난 후에 새로운 마음으로 마지막 쫓겨를 올려보자

### ☆ 토 테스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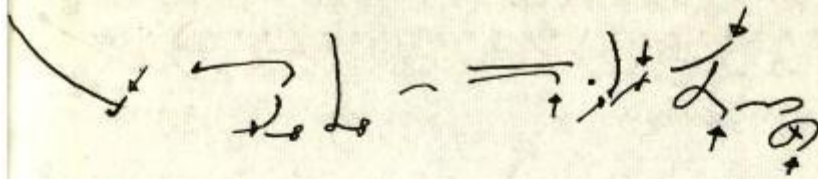
여러분은 보에 막힘이 없는지? 다음 속기문을 읽어 보시라  
 (이 번역문은 제 2편 끝에 실려 있다 P. 2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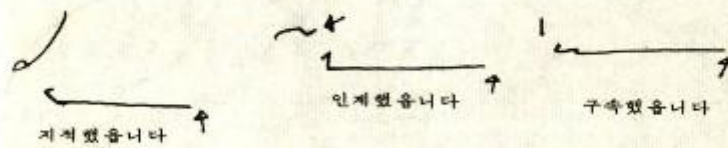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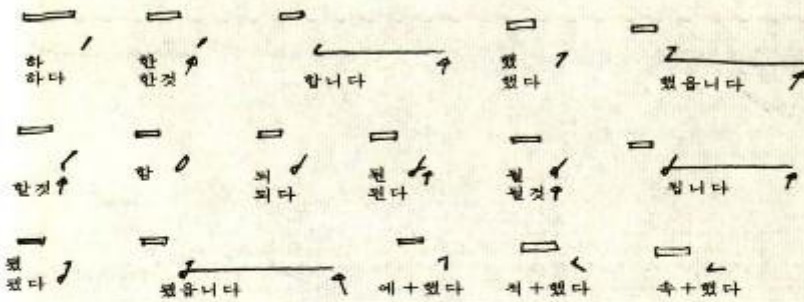


Handwritten musical notation on a page, consisting of several lines of notes and rests. The notation is written in black ink on aged, yellowish paper. It includes various rhythmic values, stems, and beams, typical of a musical score. The notation is somewhat dense and appears to be a single melodic line.



※ 점+한 기법 (二) ※

변자에 배운 것을 확충해서 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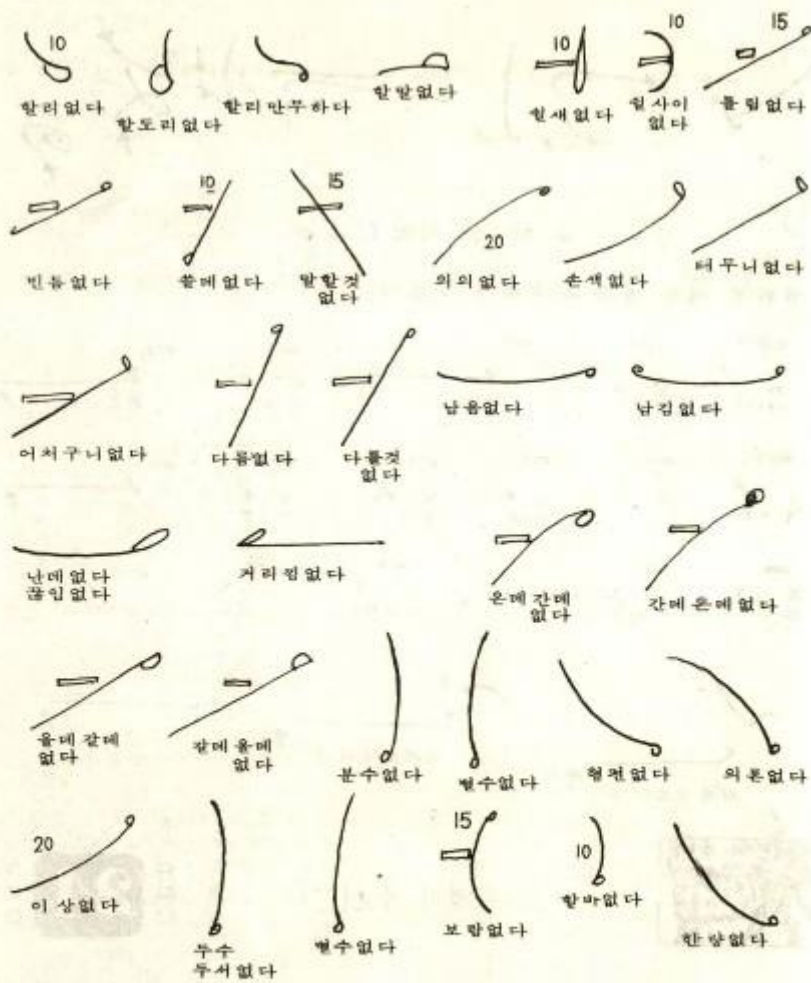


부정사 기호(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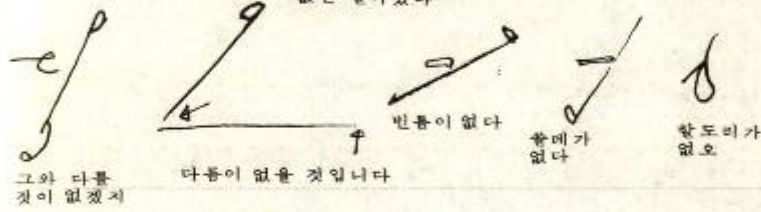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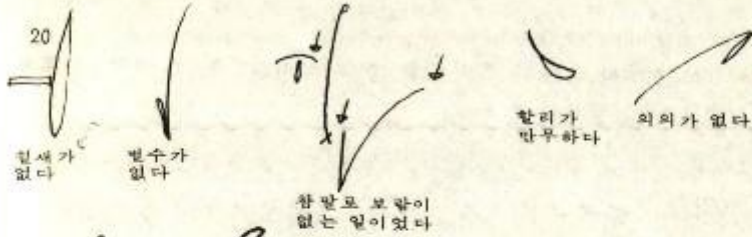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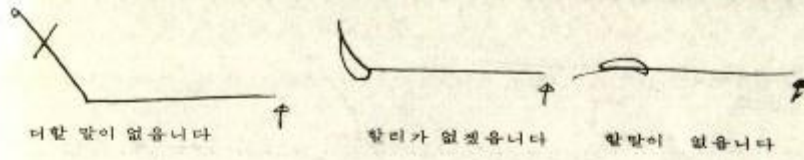
24

◇ 관련 약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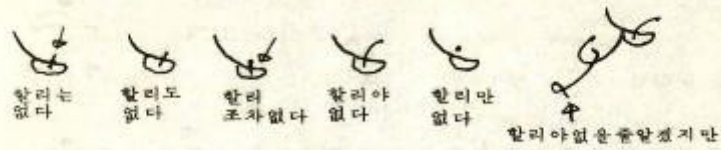
(1)명사(名詞)에 오는 없다 기호 즉 "가 없다, 는 없다, 도 없다"등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을 줄 안다. 이 외의 몇 가지 약자를 소개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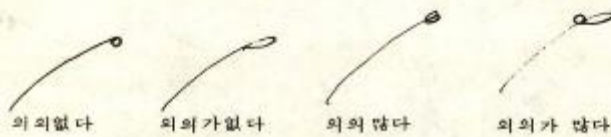
(2) 이상 약자에 있어 중간에 "이"나"가"모가 들어갈 때는 원을 더 크게 해서 구별을 한다. 단 "말할 것 없다"는 자두(字頭)에 소원(작은 원)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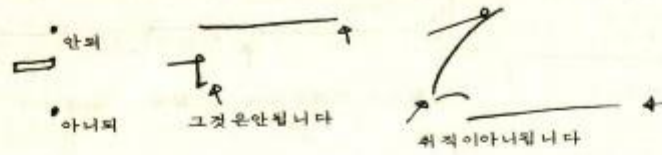
(3) 그밖에 토가 중간에 들어갈 때……“지않” 기법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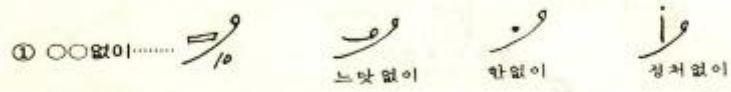
(4) 이십 없다 약자를 많다 약자로 변경하려면 동해 1 기호를 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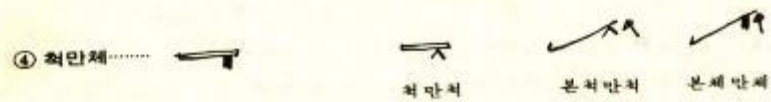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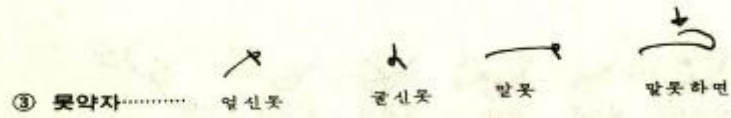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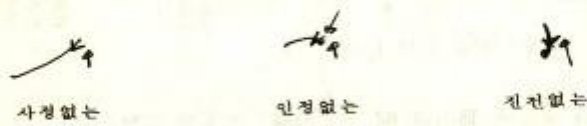
(5) 안되, 아니되 위치.....자미 직상 직하 5mm 위치



(6) "아니"의 효과적 이동....."아니 할 수 없다"하면 "할 수 없다" 기호를 가지고 "아니다" 식으로 쓴다.



② 점+없는..... 3mm "세크"로 자미를 자른다.



☆ 속기 상식(速記常識) <四> ☆

◇ 속기 발달 사고(史考)

이조 실록(李朝實錄) 중 태종(太宗) 때를 보면 “양촌(陽村) <권근(權近)의 호(號)> 정 경토(定經吐)”란 말이 나온다. 이조 중기의 최 세진(崔世珍)이 쓴 책 용제총화(慵齋叢話)에도 역시 “권 양촌 정 구결(口訣)”이라는 어구가 있다. 무슨 말이고 하니 신라 시대에 이두(吏讀) 문자가 이조에 와서는 한문에 토를 다는데 사용하게 되었다는 말이니 <주: 신라 시대에 신문왕 시대 A.D.582년 학자 설총(薛聰)이 이두 문자를 정리하였었다고 사기(史記)에 나와 있다. 이것을 보더라도 한자에 이두를 사용한 역사는 꽤 오래인 것이다> 여기에 그 일례를 들면?

鵲 鷦可 能言爲飛 不離飛鳥爲孫 猩猩是 能言爲飛 不離禽獸是飛獸

약자 丁 ㄴ ㅈ ㅊ ㅋ ㆁ ㄹ ㅍ ㅍ

즉 “앵무농언, 불리비, 성성농언, 불리금수”라는 문에다가 권양촌이 우리의 토를 삽입해서 “앵무가 농언하나 불리비조이며 성성이 농언하나 불리금수이니라” 이렇게 동자들이 서당에서 소리 높여 독서하는 환경은 지금도 볼 수 있는 터인데 요는 여기 구결 문자에 있어서 약자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약자 제정의 이유는 이두 문자를 그대로 쓰면 한자로 오인하기 쉬운 폐를 없애려는 것과 쓰기 편하게 하기 위한 것임은 물론이다.

이밖에 한자에도 많은 약자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한자 자체가 획이 너무 많아서 일상 기자(記字)에 불편성을 덜라는 것이 목적인 데 그렇다면 “體”자를 “休”자로 “爲飛鳥獸”를 “ㄴ ㅈ ㅊ ㆁ”로 쓰듯이 영어에 있어서도 단어를 적당히 줄여서 일종의 약자체(略字体)를 만들 수가 있고, 이 약자들을 가지고 요명 속기를 했다는 점도 시인이 같 것이다.

이러한 약자 속기가 기원전(紀元前) 로마의 “키케로”의 제자 “타이모”에 의해서 처음으로 시도(試圖)되었다는데 이 고적이 16세기(1588년) 영국의 한 고고학자 “브라이트”씨에 의하여 발견되었고, “브라이트”씨는 이 사실에 흥미를 가지고 자신이 “약자식 속기법”을 연구 발표했으나 이것이 즉 약자 속기의 시초(始初)인 것이다. 한편 동양에서는 어떠한지?

옛 왕조에 있어 사관(史官)들이 조판회의 기록이나 재판 기록에 어떠한 기자를 구사했는지 전함이 없으니 유감된 일이다.

내려와 1837년 역시 영국인 "아이작·핏덴"은 교직에 있으면서 약자 속기에 몰두한 끝에 약자식 기자(記字)라는 언어의 완전 속기란 불가능이란 단정을 내리고 드디어 기호식 속기법을 창안했는데 현재 각국의 속기가 이 "핏덴"식에서 힌트를 얻어 작기 창안된 것이다.실로 "핏덴"씨는 세계 속기 탄생의 위대한 공로자인 것이다.

※ 주: 비록 1837년의 창안이나 영어 속기에는 구미 각국에서 아직도 "핏덴"식이 왕자의 위치에 있고 미국에서는 오히려 "그레그"(Gregg)식이 환영을 받고 있는데 "아미버서리"(amiversary)식과 "심플리필드"(Simpli-field)식이 있는데 이중 전자는 "레포데"(속기사)가 배우고 후자는 "스벤노그리퍼"가 배우고 있다.

일파식은 <일파(逸波 張蒸齋)창안> 1946년 6월에 공포된 우리말 최초의 완전 속기 법식이며 동년 가을 학원 설립, 그 1, 2기생이 입학 의원국의 속기목을 완비케한 선구적 공로자들이다.

※ 주: 일파식 속기 학원은 현재는 휴원 중이고 1.4후퇴시 부산에서 "대한 속기 고등 기술 학교"가 민의원 지속 기관으로 탈속되어 일파식을 교학 그 10기생이 수학중 5.16혁명으로 중단 불원간 재 개교가 될 가능성이 짙다.

### ☆ 특수 약자 ☆

별명 무규칙 약자라고 하며 일정한 약자법을 내세워 응용을 할 수 있게 한 전기(前記) 약자들과는 달리 한 단어 한 약자식으로 된 것인데, 여러분은 여기 수록된 것이외로는 작성 사용을 삼가야겠다. 왜냐하면 이 약자의 다용(多用)은 번역 불가능의 요인이 되는 고로 절대 주의해야 한다.

□ 25 □

— 각 행중 기호 —





(1) "가"행

중에서.....

구락부	부소속 구락부	결정	작성	교포
결단	기독교	속기독교	기독교	기독교도 신도
경애	경애하는	경애하는	경애하는	경애하는
경애하는	여러분	동포	여러분	간민속군
경애하는	경애하는	경애하는	경애하는	경애하는
시민	여러분	선사	여러분	신사속녀
				경애하는
				여러분

꽃아와 같이 "경애하는 ○○○ 여러분" 할 때 ○○○은 첫자를 가지고  
표차하고 "여러분"은 "L"을 쓴다.

친애하는	존경하는	사랑하는	존경하는	구체적	감피
			유년작여러분		

결산	교육	값어치	구태타	교통보통

(2) "나"행

중에서.....

나라	너무나	누구나	너무도	아무
아무나	아무도	남단주의	농산물	임여농산물

(3) "다"행

중에서.....

달변	대표	대차	대차	대차	대차	도대차
		대표	대차	대차	대차	

목재  
 내편전  
 덕택  
 10 몽명  
 10 당국  
 15 공화국  
 10 동시에

15 단재  
 다음

(4) "마"행  
 10 마침내  
 15 문제  
 무질서  
 민중  
 민성

말씀 하세요  
 말씀하세요  
 5 문화  
 문화인  
 문명  
 문명인  
 명인  
 말씀여쭙

말씀사피  
 만천하  
 10 물가

(5) "바"행  
 10 비로소  
 15 발견  
 56 백성  
 15 발달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불구보고

포악부도  
 부락말씀  
 드리  
 드리 (보고)  
 보고해드리  
 보고해올리  
 만공

반공회관  
 반공청년회  
 10 박사  
 10 비악적



① 법(法) 용어.....

법, 개정법, 개정안, 개정법안, 개정법률안, 개정법률, 본법, 본법안, 수정안, 수정법안, 수정법률안, 개안, 대안, 개의안, 동의, 동의안, 수정동의안, 동의, 동의안, 동의안지, 안건, 개의안건, 결의, 개정법률안, 법중개정안, 법중개정안

지방자치법중 개정법률안, 선거법중 개정안



② 관련 약자.....

의사일정, 의사변경, 의사 변경동의, 신상발언, 원상발언, 반대발언, 규칙발언, 의사진행, 가결, 부결, 가부, 일청, 이청, 청

개정, 거수표결, 표결, 에부십니다, 에부지겠습니다

가부 붙었습니다      가부 붙습니다      의의없습니까      의의없으  
시지요

의의가  
없다면      의의가없  
으시다면      의의가  
없으면      발언권  
응답      질문  
질서유지

조용  
하세요      장내성돈      발언신청      파석정돈      의정단상      발언요청

발언요청      찬성      찬성입니다      찬성합니다      긴급동의

대체로운      일목의      이목의      삼목의      10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말씀을 해  
주세요      말씀해주시기를



③바행중에서.....      15      15      의장

비표      부의장      의장      어느것이 바물까?

(6) "사"행

중에서..... 선거 세월결정 인쇄 소위 생활 움직 속성  
 생각쓰였 선택 수업료 속기사

(7) "아"행

중에서..... 은것 옹호 유지 유지력 일중머 용합 인사 팔꿈

이 제냈는데 이 제시고 이 제쳤나 이제실 이제서 이제서서 묻하셨는데  
 이제실것

요망 요청 인류 입증 역사 연합상패 원풍 원포

(8) "자"행

중에서..... 음민심 지방방법 지배 지중 집현 습격 제안자

자유 분위기 음모석 음모독 음 조곰 참 조고 양계 조고 만치 조고마하계

마치 자그만치 중내 장본인 경화 자리 종합 정신 전쟁

(9) "차"행  
 중에서... ↑ 차라리  
 15 차제  
 5 책임  
 10 부책임  
 10 준공기  
 10 준공  
 10 출현

(10) "파"행  
 중에서... 북상  
 15 빈칸  
 15 북수  
 10 평생  
 10 평등  
 10 혁신

(11) "하"행  
 중에서... 한층더  
 15 행정부  
 15 효도  
 10 후보자  
 10 입  
 15 허가

20 효과  
 10 형식  
 10 호소  
 10 학교  
 10 햇빛  
 15 하룻머  
 10 현행  
 10 후회

15 회제  
 15 특별회의  
 15 회의  
 15 본회의  
 10 청도  
 10 침매

한겨름  
 . 나가  
 한겨름  
 . 나아가  
 한겨름  
 . 만나가  
 한겨름  
 . 더나가  
 한겨름  
 . 만더나가  
 한겨름  
 . 을나가  
 한겨름  
 . 을더나가

15 회  
 15 대외  
 15 국외  
 15 선수권  
 15 대회  
 15 총회  
 15 발표회  
 15 음악회  
 15 경연대회

<sup>3</sup>  
 회석 (會席)    회석상 (席上)    회석상    회견석상    기자회견석상    신문기자회견석상에서  
 단상    단상에서    의정단상에서    핵실험    핵무기    핵실험    합류    화분  
 화물운임    화물요금    화물열차    화물차    화물차간(車間)

□ □ **26** □ □

— 4 음자 이상 단어 약자 —

단어	기호	예문
○○조약	<sup>10</sup> ㄷ	안보조약    안전보장이사회    불가침조약
○○동맹	<sup>10</sup> ㄷ	북대동맹    동맹국    동맹국가간
○○연맹	<sup>5</sup> ㄷ	국제연맹    반공연맹
○○법원	<sup>4</sup> ㄷ	대법원    가정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당국	<sup>4</sup> ㄷ	행정당국    사직당국

○○일보



동아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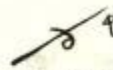


조선일보



한국일보

○○시장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



중부시장



병화시장

○○통신



합동통신



통신사



경세통신사

○○조합



금공조합



협동조합

○○회사



회사원



회사사원



회사



회장



부회장

회사이배인



전부



중면



감사역



이사



상무이사



전부취제역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병원



세브란스병원



한일병원

○○운동원



선계운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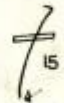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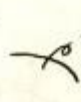
공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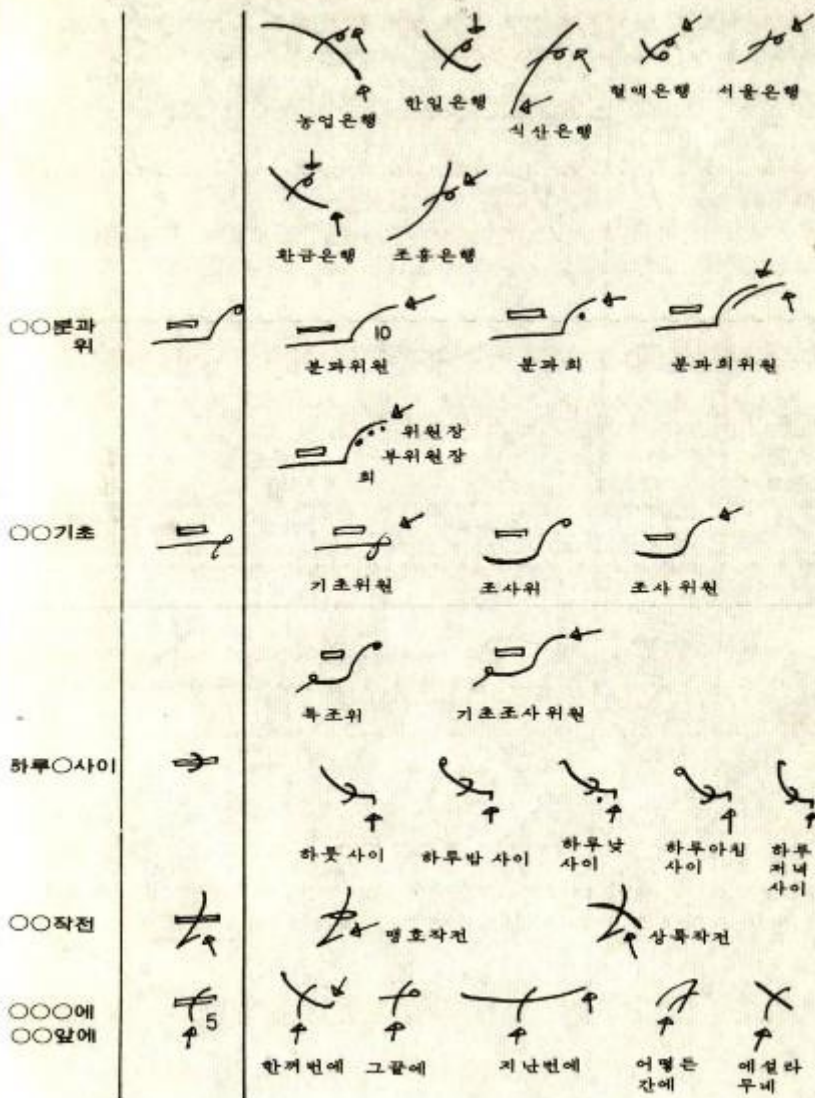


지하운동원



○○극장				
○○책임제				
○○선거법				
○○보훈				
○○공화국				
일대○○○				
○○기관 ○○지간				
○○지표				
○○주간				
○○사절단				

			
		위문단원	
○○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사령부			
		군사령부	유엔군사령부
○○지역			 
		작전지역	구역    작전지역
○○관광단			
		관광단원	설악산관광단원
○○지책			
		미봉지책	호구지책
○○주의		 	 
		공산주의    민주주의	제국주의    이기주의
○○시대			
○○지대		석기시대	은습시대
○○은행		   	한국은행    중소기업    상업은행    산업은행



	아하본간에	하우간에	순시간에	창출간에
○○자금				
	자	연계자금	선거자금	사업자금
○○지경				
	지	황홀지경	요지경	
○○교육				
	교	외무교육	군사교육	강제교육
○○시세				
	시	불가시세	양동시세	주박시세
○○부대				
	부	특무부대	주력부대	
○○분자				
	분	공산분자	악질분자	선동분자
○○예산				
	예	추가예산	추가경정예산	본예산

○○발전				
		화력발전	수력발전	발전합
○○설명				
		제안설명	보증설명	대중설명
○○제도				
		사회보장제도	시험제도	
○○우편				
		항공우편	보통우편	
○○대표 최고위				
		자유당 대표최고위	○○간치	환갑간치
				생명간치
○○전술				
		인해전술	○○노리	관공노리
○○상태				
		기아상태	아사상태	공백상태
○○새끼				
		장논의새끼		

여기 4 음자 약자는 앞서 3 음자 약자와 같이 개인적 이용을 원하는 약자이다. 그리고 이상으로 로고그램의 부분적인 용부는 그 전부가 끝난 셈이다. 이 전부가 일단 암기가 된 사람은 이 기호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올바른 속기 용부가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을 따름이다.

☆ 약자 작성 요령과 속기문 분석 ☆

전편(全篇)을 통해서 학습한 바와 같이 15개의 선의 다각적인 이용으로 속기호가 구성 되있는 것인만큼 미리 각도의 연습없이 속기 문체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것이니 성급한 연습, 무리한 연습을 하지 말고 여러분이 걷는 이 길을 수백 수천의 선배(先輩)가 걸었고 현재 활약중인 수많은 속기사들이 이 사실을 거울삼아 매일매일 규칙적인 연습을 해야 한다.

다음에 4 음자 약자도 처음 보는 해당어는 필히 노우브 경리와 암기를 게을리 하지 말고 또 유음을 잘 살려야 한다.

또 위치 이용 약자도 그렇다. 안하면 안된다라면 "변"에는 안 된다 위치가 있으니만큼 꼭 위치를 이용해야 하고 "가치"를 "가기"로 쓰지 않는다 면(AB, AC선은 동행 기호 이용) 이것은 공부가 부족한 증거이다.

다음에는 말의 뜻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는 점이다. 가령 투융자(投融資)란 말을 예로 들면 이것은 3 음자이지만 그 뜻은 융자금의 투입을 말하는 것이나 절대로 ○○ 기법을 써서는 안 된다. "투"자 위에 직선을 긋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지 않으면 "투"자와 "융자"(특수변자)를 씌어 올고, 다음에 "징계사법"한다면 4 음자이나 함용 4 음자는 아니니 "법"변자를 이용해서 지+법(일부음 약자) 즉 "침"자가 기호로 나타난다. 재일교포=재경보 편성=퍼서 평선=퍼서 수평선=수퍼서(퍼서란 단어가 없으니 반침 약으로 쓸 수 있다) "가보치"도 그렇다 ○○치를 써보니 불편하니까 "치"를 독립적으로 써서 결국 특수 약자가 생긴 것이다. 예비회답이라면 카이로회답 같이 고유명사가 아니니 ○○회답을 쓸 수 없고 예+답(복번)으로 할 수가 있다. 식량(시+식) 이외(토 이외다) 권위자<그+토 이자(20mm)>등 요는 전편(全篇)을 통해서 작 기법에 약힘이 없으면 합리적 약자의 구성은 손쉬운 것이다 하지만 개인의 약자 작성은 되도록 여제할 것을 권유하며 이치에 맞지 않는 편의적 기호는 그 당장에는 이용이 될 수 있어도 며칠 후면 까맣게 잊는 것이 예사이니 절대로 피해야 한다.

● 다(AB 직선) 다( AF 직선) 행자는 경우에 따라서는 겸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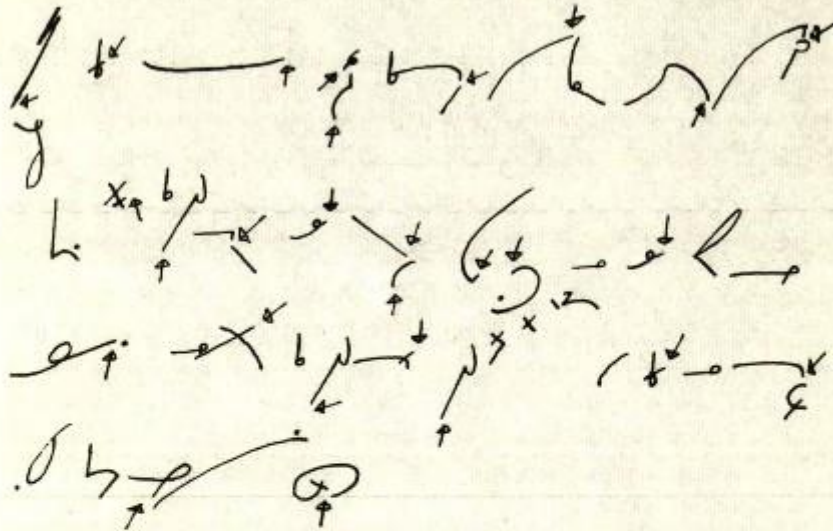
.....AB, AC선이 겹쳐지는 단어에서는 속기 문자가 아래로 길게 면어서 씌어 상 불합리성이 노출되기 때문에 이 때는 ㄷ=트식으로 써도 좋다.

● 반복어 기호로 두 단어를 동시에 써서는 안 된다. 가령 "거기에 대한 간명한 해답을 요구합니다. 누구나 알아 들을 수 있게 간명한 해답을 해주십시오" 한다면 나중에 번역할 때 간명한 해답인지 그냥 해답인지 알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이때는 X X표로 써야 한다.

— 예와 연습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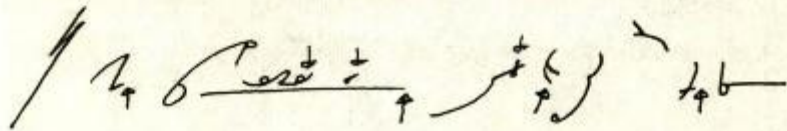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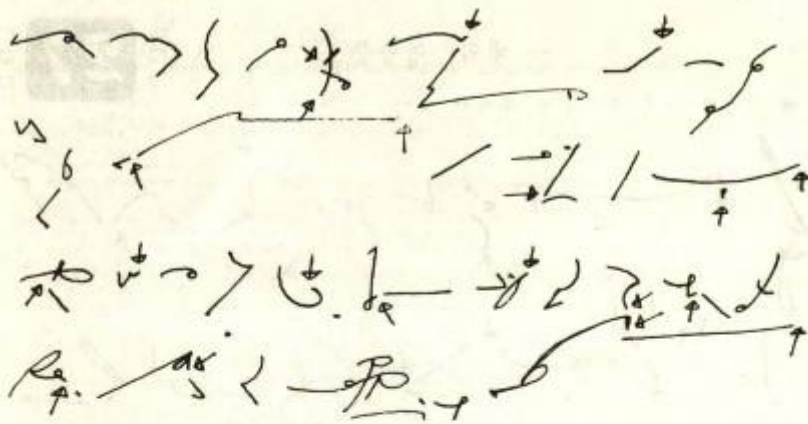
※ 그러면 다음 속기문을 분석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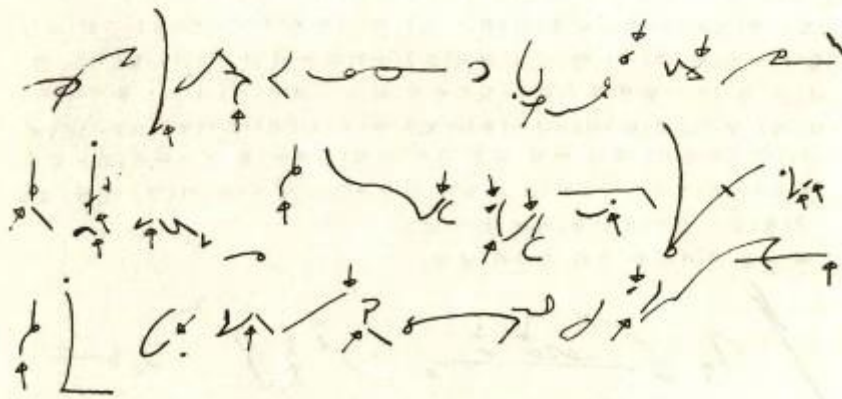
우리(변)는(토) 지난(보 이용악자) 학교(복약) 시대(복수)에(토) 우리  
 (변) 말(기본)을(토) 존중(변)하고(토) 사랑(기본)하여(아할(토) 까닭(토)  
 을(토) 공(변)부(기) 한 일이 있다(토) 우리말을 우리 배(기) 말(변) 겨  
 례(변)의 (토) 정신(복) 활용(일부음략)외(토) 표현(기)인(토) 동시에(복)  
 그(기) 정신생활(복)외(토) 기초(복변) 수(기)단(변)이다(토) 그(기)뿐(보  
 아니라 (부정사) 우리 배달 말은 배달 거래(반복어)를 거래되지(보) 했으  
 며(토) 또(접속사) 우리는 그 말과 더불어(토) 역사(복)적(변) 운명(반친  
 약)을(보) 같이(보이용)하여 왔다(토)

※ 다음 속기문을 각자 분석해 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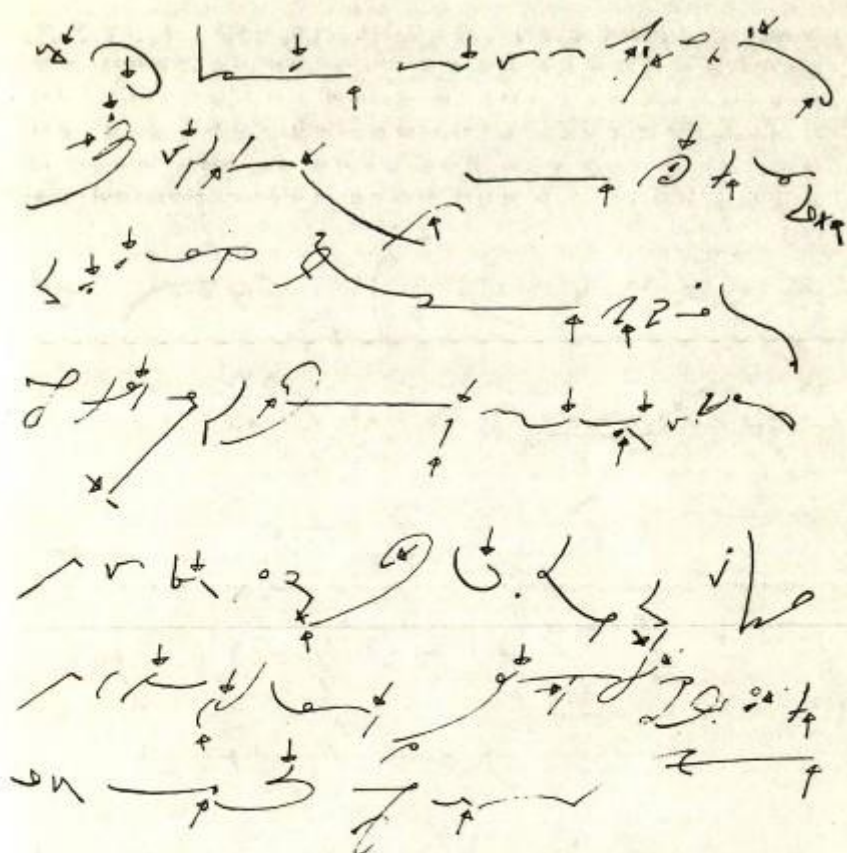




어떤 느낌을 느낀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사태는 급속히 전진되고 있어  
 저는 우리가 미구에 명령을 받을 어느 출격에서 만약 돌아오지 못하게 되  
 거면 이 편지를 당신에게 보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한달이  
 다 지나갈 무렵에 당신은 허다한 훌륭한 친구가 그리웠듯이 저도 영국 공  
 군의 지휘의 유능한 동지들에게 저의 임무를 완수하고 만났다는 것을 수  
 락하여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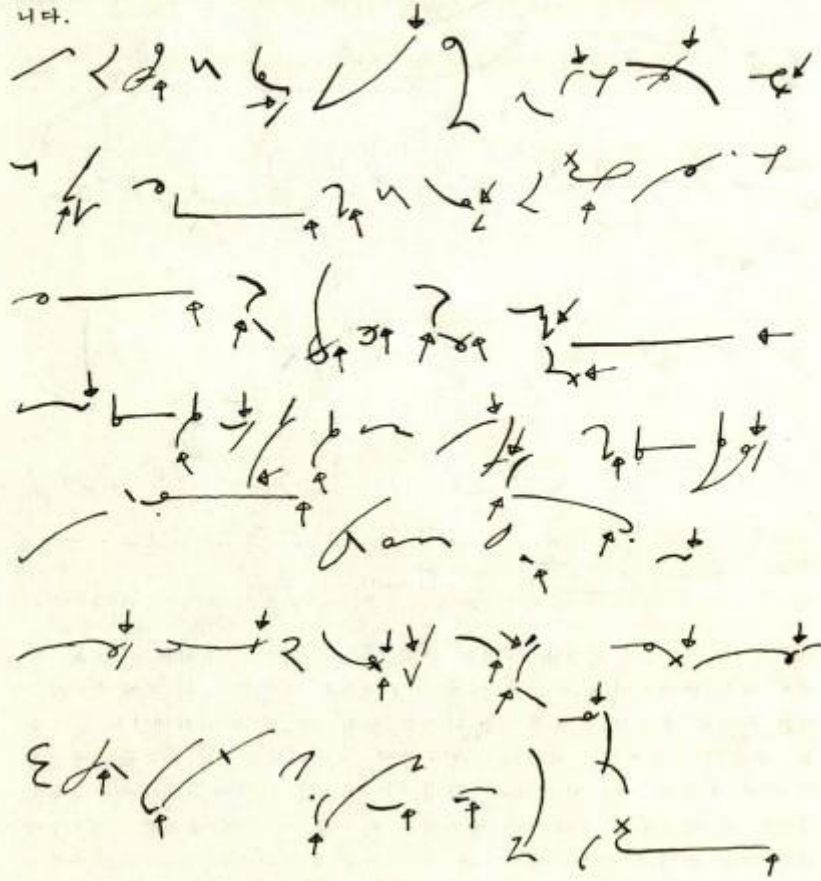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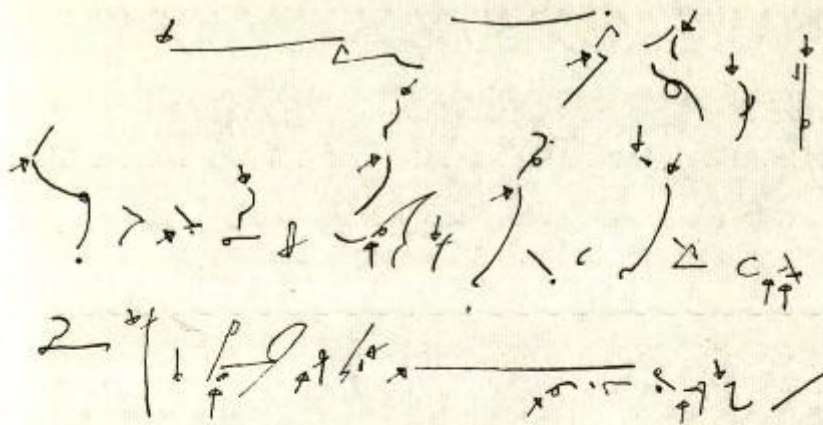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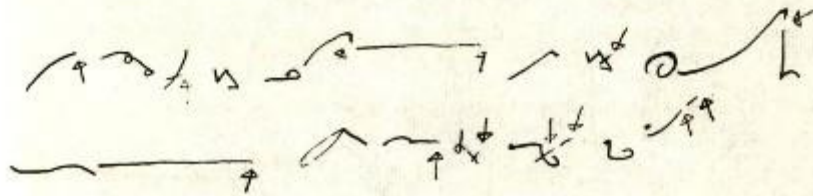
무엇보다도 이번 전쟁에 있어서 저의 임무가 가장 중요했다는 것을 아  
 시게 됨은 당신에게는 위로가 되겠고 우리들의 정황은 멀리 북해에까지도  
 미쳐 우리의 호송선과 보급선을 위하여 안전 보장에 이바지하였고 한 번  
 은 우리의 정보가 파산한 구조선에 탄 사람들의 복수를 견지하  
 는 데 주된 구실을 하여 왔습니다. 당신에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만은 만약  
 당신이 이 사실들을 냉정하게 들으려고 하지 않으신다면 당신은 저를 실망  
 하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의 힘이 자라는데까지는 저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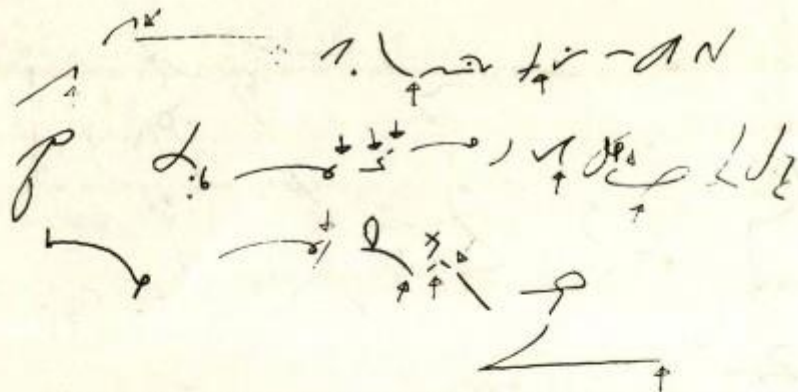
부과된 임무를 수행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도 그 이상 할 수 없게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그만 못하다고 자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연달아 일어난 난관에 당신이 부닥치셨을 때라면지 그리고 당신이 우리 나라의 어느 사람이라도 못지않은 훌륭한 지혜를 지어제 닦아주신 점으로 본다면지 그리고 또 언제나 장래의 희망을 잊으시지 않는 모습을 견지하신다는 것을 본 때마다 저는 늘 당신의 놀라우신 기력을 앙모(仰慕)하여 왔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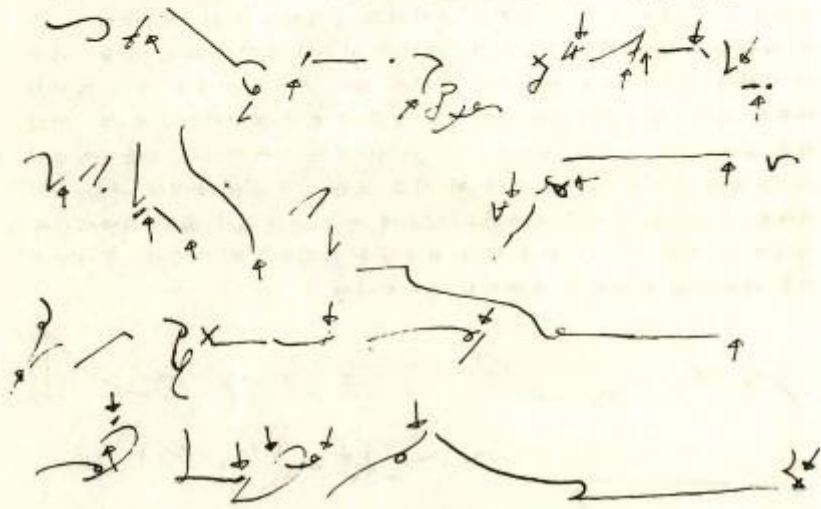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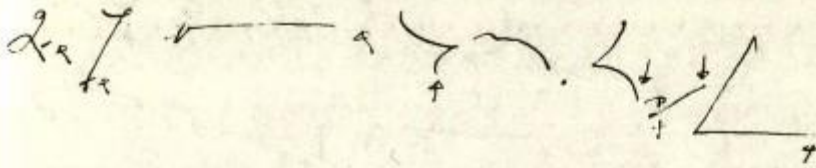
그리고 저의 죽음은 당신의 심혈을 다 하신 보람이 헛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는 아주 딴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희생도 저의 희생과 같이 위대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국에 봉사하는 사람은 영국에서도 아무것도 밟아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나라를 오직 우리의 먹고 잡자는 곳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유죄케 하는 것입니다. 역사에 이름이 쟁쟁한 모든 것을 내놓는 사람의 희생은 실로 영제국에 끼친바 있어 거기서는 모든 것이 평화와 자유의 표현이었고, 어떠한 곳보다도 높은 문명이 발달하였으며 또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만 그러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는 역사가 있는 뒤 처음 보는 기독교와 문명에 대한 가장 거대한 조직적인 도전이 직면하고 있으며 저는 저 자신이 옳은 시대에 태어나서 그 시대의 문명 속에 저의 전진광을 투입하도록 충분히 훈련받은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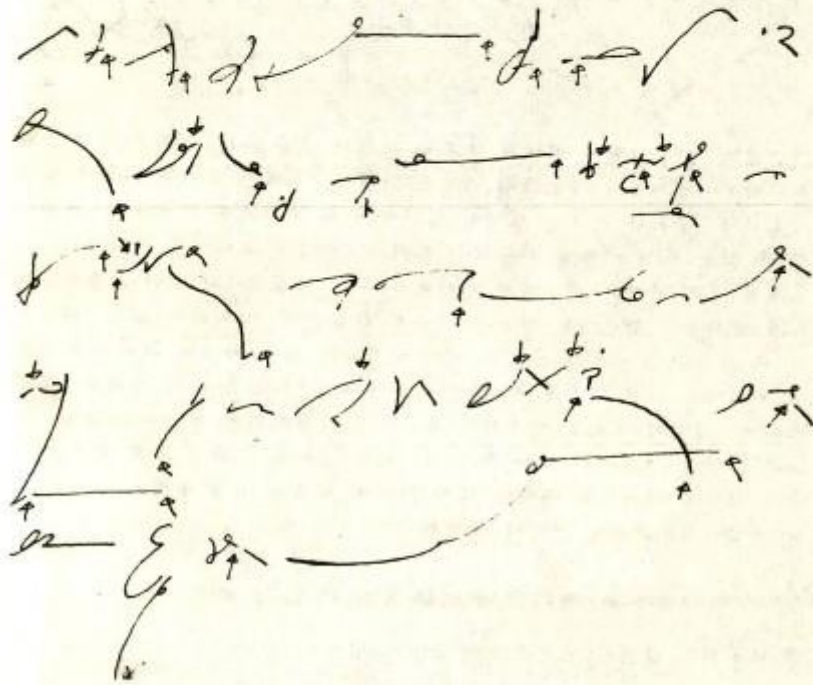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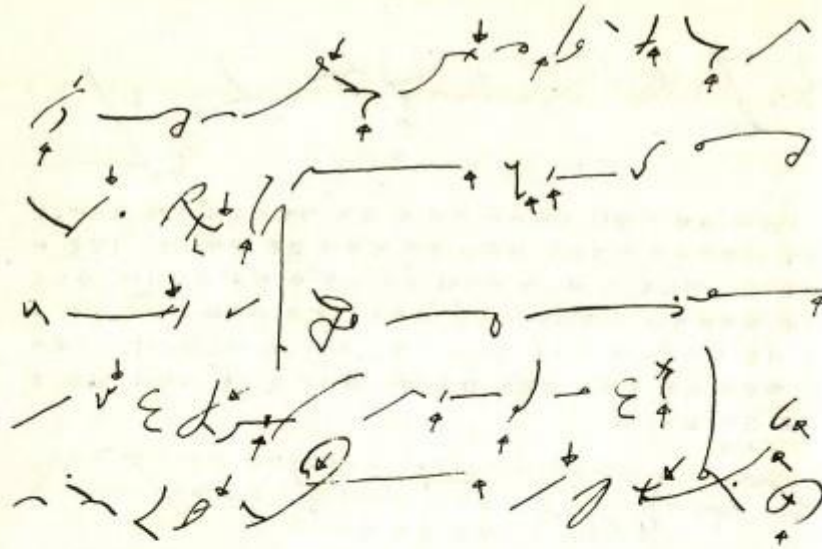
이런 의미에서 저는 당신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는 아직도 하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전쟁에 이진 다음에는 몇 해 동안은  
 국내 전선은 단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항의가 있더라도 저는 역시  
 이 전쟁을 대단히 유력한 것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바이며 모든 개인은 마  
 치 저 고대의 순교자들과도 같이 자기 주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어버리  
 고(리고+7=1리고) 모든 것을 감행할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가도 제가 한 영국 사람으로서 살아 있으며, 한 영국 사람으로서 죽었다는 사실은 결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일도 간섭할 수 없으며 극복할 것도 고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저를 슬프게 하는 안 됩니다. 당신이 진실용 그리고 충직과 정교가 많은 모든 것을 믿으신다면 비전을 확신하는 것은 위선이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죽음이 위한 공부는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의 이상한 자량이 있을 뿐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밖에는 죽음을 대하지 않겠습니다. 우주는 무궁한 것이어서 한 사람의 생명이란 자신을 희생함으로써만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격과 성격을 길러서 이제 우리로부터 절대로 빼앗아 갈 수 없는 무엇을 품에 지니기 위하여 이 세상에 보내어진 것입니다.

오직 먹고 잠자고 번영하고 생산하고 하는 사람들이란 실사 그들의 생애가 평화롭다 할지라도 짐승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리하여 젊은 나이로서 이 세상에 있어서의 사명은 이미 달성되고 저는 하나의 그리고 하나뿐인 유한만을 가지고 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당신을 모심으로써 당신의 노년을 행복하게 해드리는데 불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평화와 자유 속에 살아가실 것이요 그리고 제가 직접 그 평화와 자유에 이바지할 것이며 또한 이점에 있어서 저의 생명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머니 안녕히 계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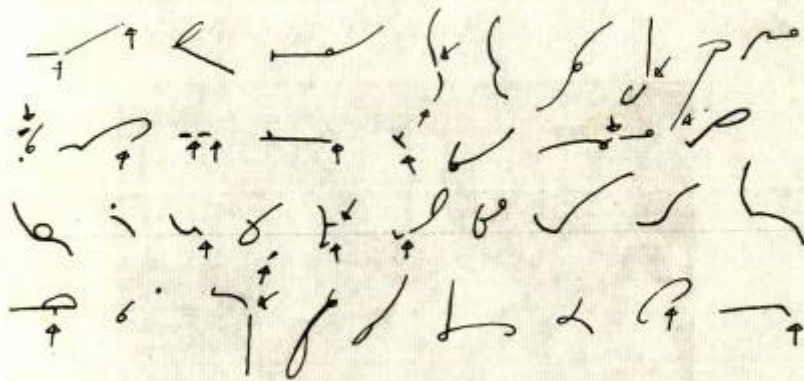
— ※ 속기문 분석을 알아보지 말라 ※ —

① 속기문의 분석이 완전무결치 못하면 번역은 불충이다. 즉 자기가 쓴

기호인데 무슨 기호인지 모른다는 결론이 된다.

- ② 발언 속도가 빠르면 속기할 때 머리와 각도가 빳나가기 쉬우며, 속도에 몰려서 빠뜨리고 쓰는 수도 있고, 유음삭 또는 지레짐작해서 또는 오청(誤聽)으로 오기(誤記)하기가 쉬운만큼 더우기 문제의 분석이 불완전할 때는 번역이 불능이다.
- ③ 번역 불능의 속기호는 속기호가 아니라 무용의 기호이다. 분석이 아니 되는 속기호란 있을 수가 없으니 분석이 되는 기호를 안 되는 기호로 만들지 말라.

— 2 편의 번역 속기호와 번역문 답문 —



부록불 정식으로 토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철저히 규명을 해야 하고 또 짜를 사람은 짜르고 시정할 것은 시정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진작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 잡아 가두나 그말이에요 외심을 받을 행동을 해야 될게라 구속한 까닭은 뭐가? 당신이 가져가지 않았소, 똑같은 수법이다 똑 같으나 그 다음 여기에서 그 현재 판례로 되 가지고 있는 것이 의원 규칙에 넣을 것이 뭐뭐 있으나 하는 말씀같이 들었는데 여기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거 거짓말 같은 얘기가 되어 놓아서 절대 그러한 말이 없을 것이라고 그렇겠지마는 순창(淳昌)10만 군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췌이나 하면 선거위원회 이름으로 합동 연설을 개최한다 해가지고 벽보를 부쳐가지고 사람을 모아놓게 해가지고는

동일 장소 그 테이블 그 시각에 합동 연설을 개최하지 않고 개인 연설을 먼저 시킨다 그 말이에요 이게요 하기가 막혀서 참 벌어진 입이 다물어 지지 못할 때요 고무신을 주고 이 정치 캠페노릇을 하고 불법 이런 것을 할 무소부득해 가지고 억지로 당선된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그런 메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씨를 지지하는 운동원이 단상에 뛰어 올라와 가지고 밭질을 차고 주먹질을 내려드리고 마이크를 앞에 때려 부수고 난동을 부었다. 말이에요 이것을 바로 경찰에다가 이야기해서 입건 조치하라고 했던 바 하루 저녁 경찰서에 가뒀놓고서는 그 이른날에 죽 나왔다(왔다를 15mm로 해서 1왔다 1왔다로 씀)말이에요. 어쨌든 나왔느냐 하니 이 사람은 얘기가 영장 발부를 안 해주니까 할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못하겠거든 목을 잘으느니 베느니 이 불상식한 발언은 삼가주세요 이말이에요.



<농공 연습 풍경>



## 제 3 편 실용편



☆ 각의 분과 위원회에서 숙기하는 숙기사의 모습—중앙 ☆

<여러분도 이런 곳에서 숙기할 수 있다>

□ **1** □

— 속어 지식을 넓히자 —



여러분은 신문 오락면에서 퀴즈 풀이할 때 본 일이 있을줄 간다 퀴즈에 비하면 여기 후속어의 경우는 일반 상식 문제니까 비할 바가 아니나 아무튼 후속어를 많이 알아둔다는 것은 속기상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이다.

이 후속어는 비단 4 음어 속어 뿐이 아니다 천차(탄다) 낙엽이(진다) 봉어(뉘는다) 수영(꼭는다) 이런 것이 모두가 후속어에 속하는 예인데 이렇게 후속어가 짧은 것은 문제가 안 되고 아니 면 글썽(연기나라) 든지 아닌 밤중에(홍두깨) 따위 구(구)는 물론 얼마든지 이용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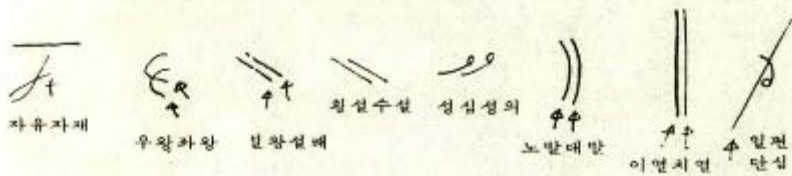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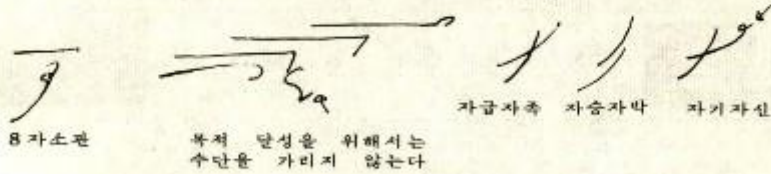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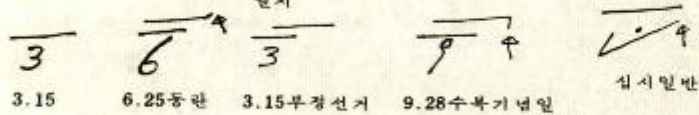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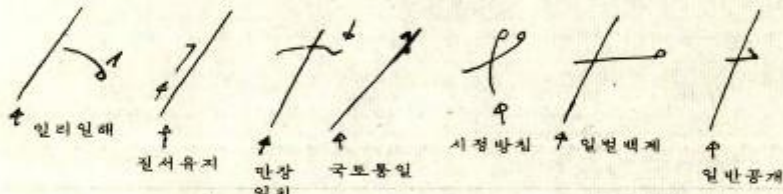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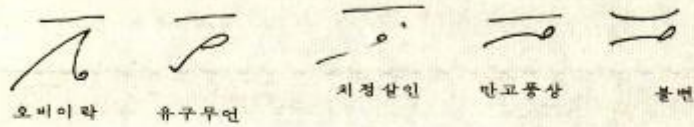
◇ 다음 4 음자의 후속어를 세 넣어 보시오.

- |        |       |        |        |           |
|--------|-------|--------|--------|-----------|
| 波瀾( )  | 百折( ) | 意氣( )  | 想像( )  | 奇想( )     |
| 遇之( )  | 明若( ) | 雪上( )  | 一瀉( )  | 呼風( )     |
| 走馬( )  | 一片( ) | 油頭( )  | 一杯( )  | 落花( )     |
| 난생( )  | 豪言( ) | 知名( )  | 논코( 다) | 完全( )     |
| 身体( )  | 窩囊( ) | 情狀( )  | 消息( )  | 경영난에( 하다) |
| 適材물( ) | 에 한다) | 天井( )  | 우물안( ) | 所賦( )     |
| 自手( )  | 公平( ) | 馬耳( )  | 牛耳( )  | 모순( )     |
| 風前( )  | 好衣( ) | 皮骨이( ) | 天地( )  | 계 빈다)     |
| 理路( )  | 整型( ) | 自初( )  | 青天( )  | 不問( )     |
| 咫尺( )  | 百尺( ) | 甘言( )  | 虛無( )  | 三千里( )    |
| 酒池( )  | 百年( ) | 氣高( )  | 垂楊( )  | 血氣( )     |
| 人面( )  | 言敢( ) |        |        |           |

☆ 기법 요령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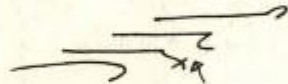
1. 관습적인 것.....상에 직선
2. 후속어가 둘 이상인 것.....직선과 곡선(ㄱ, ㅁ속 등 이용)
3. 후속어가 앞말의 반대어인 때.....반의어 기호 사용
4. 첫자와 세째자가 같은 것.....서로 교차

5. 두째자와 네째자가 같은 것.....서로 교차
6. 네째자가 "식, 칩, 속, 축, 축, 찰, 입, 됨, 열, 면, 먹, 투"인 때..... 첫자와 끝자 교차
7. 후속어에 숫자 "-"이 들어 있을 때.....숫자 일로 교차
8. 후속어에 "방침"인 때.....방+口으로 교차
9. 첫자가 숫자 "-"인 때.....일자와 끝자 교차
10. 3.15 6.25 동기념일도 4 음자식으로 쓴다





※ 목적 달성의 예는 속어 약법상 가장 이상적인 경우이다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물론 이런 예어는 혼치가 없으나 뉴우스 방송, 또는 국회 용어 등 사용하는 용어는(거의 규칙적으로) 이와같이 약자화가 가능한 용어가 직장에 따라서 생기게 된다.

□ **2** □

— 영어 속기 이용 약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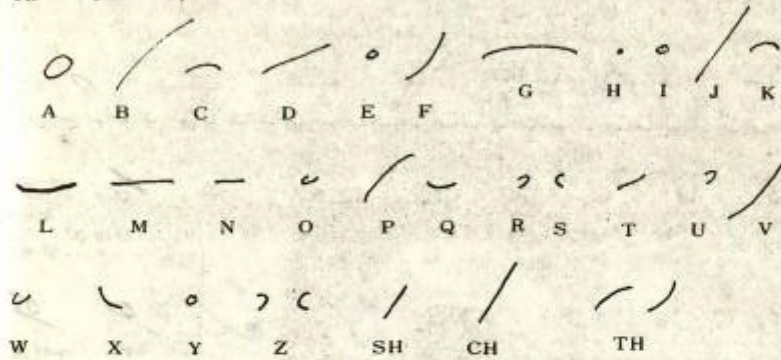


날도 날어 가는 외래어(특히 영어)를 좀 더 효과적으로 적기 위해서 그 비식의 기본 문자 및 그를 이용한 일파식 약자 몇몇을 설명한다

※ mm는 2, 4, 8, 12의 4종이다.

- |                 |                 |                 |
|-----------------|-----------------|-----------------|
| A..... 4 mm "원" | B..... 12mm "포" | C..... 4 mm "머" |
| D..... 8 mm "타" | E..... 2 mm "원" | F..... 8 mm "자" |
| G..... 12mm "모" | H..... 번자 "점"   | I..... E        |
| J..... 12mm "도" | K..... C        | L..... 8 mm "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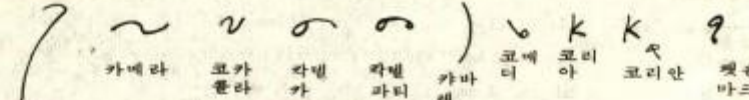
M..... 8 mm "가"    N..... 4 mm "저"    O..... "코자" 보(바) 기호  
 P..... 8 mm "파"    R..... 4 mm "너"    S..... 2 mm원의 반(불 다 씀)  
 T..... 4 mm "터"    나..... O의 반대    V..... 12mm "조"  
 W..... O    X..... 4 mm "허"    Y..... E  
 Z..... S    Sh..... 4 mm "어"    ch..... 8 mm "다"  
 Th..... 4 mm "어, 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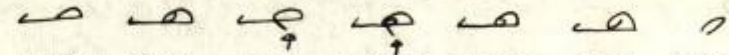
(1) 기본문자+에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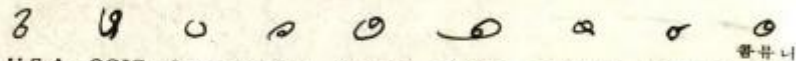
(2) ㅏ ㅣ 음은 4mm원 안에 소직선이 덧붙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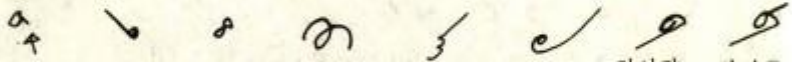
(3) 이상 기본 기호의 원리를 살려서 약자화한 것을 몇 가지 소개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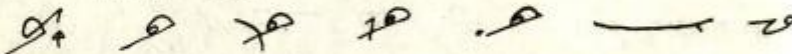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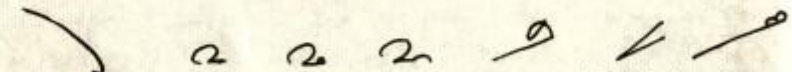
KBS


  
 벨리군    벨리군    벨리군    벨리군    벨리군    벨리군    벨리군


  
 USA    OSIS    USA    OSIS    USA    OSIS    USA    OSIS    USA    OSIS


  
 코잇손    에코노    이메    올림피    오아시스    오토바이    타이피    타이프


  
 타이플    타이루    영문타이프    국문타이프    한글타이프    노이로제    녹아울


  
 레스딩    레디오    라디오    라디오    다이제스트    도란지스타    메모그


  
 바리게트    북싱    베이스볼    메디칼센터    이스    이스터    미세스

에  
 로  
 디  
 갓  
 세  
 지  
 마  
 이  
 크  
 로  
 폰  
 사  
 보  
 다  
 츄  
 아  
 이스

아  
 이스  
 케이  
 크  
 스  
 튜  
 스  
 미  
 셧  
 셧  
 페  
 리  
 마  
 취  
 아  
 울  
 라  
 인  
 뎀  
 부  
 펜  
 스

알  
 바  
 이트  
 ICA  
 AID  
 아  
 리  
 바이  
 후  
 라이  
 앓  
 셈  
 부  
 리  
 악  
 세  
 샤  
 라  
 아  
 코  
 디  
 온

사  
 스  
 펜  
 쇼  
 스타  
 스  
 카  
 트  
 손  
 크  
 락  
 손  
 스  
 테  
 이  
 손  
 텔  
 레  
 비  
 손  
 TV

스트  
 라이  
 시  
 네  
 마  
 스  
 코  
 루  
 스  
 텐  
 레  
 스  
 스  
 케이  
 팅  
 포  
 세  
 지  
 스  
 리  
 젝  
 터  
 박  
 테  
 리  
 아  
 모  
 이  
 스  
 카  
 울

마  
 이  
 올  
 던  
 푸  
 램  
 카드  
 무  
 라  
 다  
 나  
 스  
 푸  
 로  
 그  
 램  
 푸  
 로  
 필  
 페  
 니  
 실  
 림  
 마  
 이  
 싱  
 스트  
 램  
 트  
 마  
 이  
 싱

파  
 스  
 포  
 드  
 피  
 크  
 니  
 크  
 하  
 우  
 우  
 유  
 유  
 출  
 케이  
 크  
 메  
 지  
 모  
 니  
 댄  
 슬  
 로  
 강  
 스  
 타  
 디  
 오

퍼  
 스  
 트  
 세  
 콘  
 드  
 원  
 투  
 프  
 리  
 포  
 어  
 파이  
 부  
 릭  
 스



□ **3** □

— 실무 속기 요령 —



(1) 실무로 들어가기 전에

초기에는 글꼴 직접 눈으로 보고 쓰는 식이 제일 타당하다. 문자를 보는 동시에 보고그림이 머리에 떠오르는 이득이 있고 또 정당한 속기 문자를 쓰기 위해서는 보고 쓰는 연습을 거쳐야 한다. 속기책과 자기 노우



드는 늘 옆에 놓고 조금이라도 미심하면, 곧 시정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2) 속기호에 대해 자신이 생겼을 때**

라디오를 상대하거나 타인(他人) 보고 읽어 달래서 쓰든지 녹음기를 이용한다든지 (동지들이 있으면 함께 공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해서 듣고 쓰는 연습을 매일 몇 시간씩 꼭 해보야 한다.

**(3) 연습지 종이를 아끼면 안 된다**

종이를 아끼다 함은 속기 문자를 쓴 위에다가 겹쳐서 쓰고 쓰는 식인데 이것은 속기호를 암기할 때는 필요하지만 속기를 할 때는 못 쓴다. 그리고 일단 쓴 속기는 반드시 반문을 해서 막히는 데가 있으면 꼭 이유를 알고 시정해 나가야 한다. 가령 "업무" 할 때 "비"이 길어지면 실무가 되어 업무 실무의 분간이 안 된다. 또 죽석 악자는 안 쓴다.

**(4) 1초에 다섯자를 쓰는 속기**

1초에 다섯자를 쓰는 속기니 속기 도중 자칫해 판 생각을 하거나 속도에 몰려서 빠뜨렸다 해서 당황하거나 자포자기하면 안 된다. 어디까지나 자신을 갖고 침착해야 한다. 메시에 자신을 갖는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속기에서는 어풀어풀하면 몇 십자를 빠뜨리게 된다. 평상시 3000을 연습했다면 실지로는 그 실력이 발휘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언제나 300점 자기 실력을 알게 평가하면 된다.

**(5) 연사의 말이 가장 똑똑히 들리는 곳**

그것은 바로 앞자리다. 속기사는 부득이란 외는 쪽 앞자리를 택할 것이며, 연사와 연계를 미리 알았을 때는 대략 어떠한 말이 나올지 짐작이 가니까 그 방면의 예비 지식을 가지고 일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같은 실력자가 들이 있으면 들이 가는 것이 좋겠다.

**(6) 원고는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서 달라진다.**

- ① 언어 그대로 해달라면 녹음의 재성같은 원고를 만들게 되는데 이것은 극히 속기 외는 아주 드문 일이다.
- ② 언어를 문장과 해달라는 것……언어는 그대로 쓰면 문장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연자(演字)의 말에서 중복된 것 또는 말이 아니 '되는 것들을 삭제하고 보를 적당히 고쳐서 문장으로 만드는 것인데, 물론 이에겐 원고 작성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된다. 잡지나 신문에 실리는 경우에는 원고 작성이 아주 요령적이고 문장적이어야 하니까 더욱 조심해야 된다.

(7) 한자를 많이 알아야 한다.

편시는 아직도 한자를 무시하고는 글을 쓸 수는 없고, 또 남의 문장을 볼 수도 없고 공부를 할 수도 없다.

(8) 몇 사람의 이야기 즉 죄담 같은데 가게 된다면

출석자의 악도를 그려놓고 새를 붙여 놓는다 또 2사람 이상이 동시에 발언을 할 때는 조금도 당황하지 말고 한 사람지만 할 것이다.

(9) 연설 도중에 일어나는 박수, 웃음, 고함, 야유 같은 광경 역시 기록해야 한다.

그 용어는 소박수, 대박수, 장내웃음, 고함치는 이 있음 등 적당히 사실대로 표시하면 된다.

(10) 속기사는 물가짐이 정중하고 물차림이 깨끗하며 언어가 공손하여 남에게 주는 인상이 신사적이어야 한다.

친구끼리 같이 갔다 해서 서로 농담을 하거나 불편을 노골적으로 표시하지 말고 매사에 정중해야 한다 속기사는 대중의 주시 아래 일을 하느니만지 남의 지탄거리가 되지 않아야 한다.

(11) 번역상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언어 오는 것이 좋고, 또 발언자의 말중 자기 식견 외의 것인데 중요한 말이 있었다면 나중에 발언자에게 설명을 구하면 된다. 어림짐작으로 얼버무리서는 절대로 안 된다. 차라리 (형취 불능 이라고 쓰면 썼지 멋대로 쓰지는 말아야 한다) 자칫 개인의 잘못이 전체 속기인의 수위가 되니까……

(12) 녹음기가 있고 또 녹음을 할 수만 있다면 녹음을 해 두는 것이 좋겠다.

□ **4** □

— 실무 속기 문체 —



여러분의 속기 문체는 물론 여기 예문어 문체와 같이 균형이 잡히고 미려(美觀)하지는 못할 것이고 쓰는 기호도 각자 약간씩 틀려서 꼭 같지는 않다. 그렇다고 그런데 구애할 것은 없다. 다만 번역이 되는 기호를 쓰라는 것이다.

자기가 써 놓고 자기가 모르는 기호는 아무리 빨리 써도 소용 없는 것이다. 또 속기사가 되려면 몇 차례 권태기 (속도가 오르지 않고 제자리 걸음하는

시기)를 지워야 한다. 이 책의 속기호가 완전히 암기된 사람은 누구나 2700까지는 별 고생 없이 써지지만 그 후는 일사천리식으로 써지는 것이 아니다. 100자 200자 올리기에 연습지가 수백장 수천장 쌓여야 하니 이때 자칫하면 나는 이상 더 속도가 올라가지 않는게 아닌가 하고 실망하는 세가 많으나 실은 그렇지 않다. 3900 이상은 누구나 쓸 수가 있는 기호이나 꾸준한 연습없이 써지지 않은 것이 또한 속기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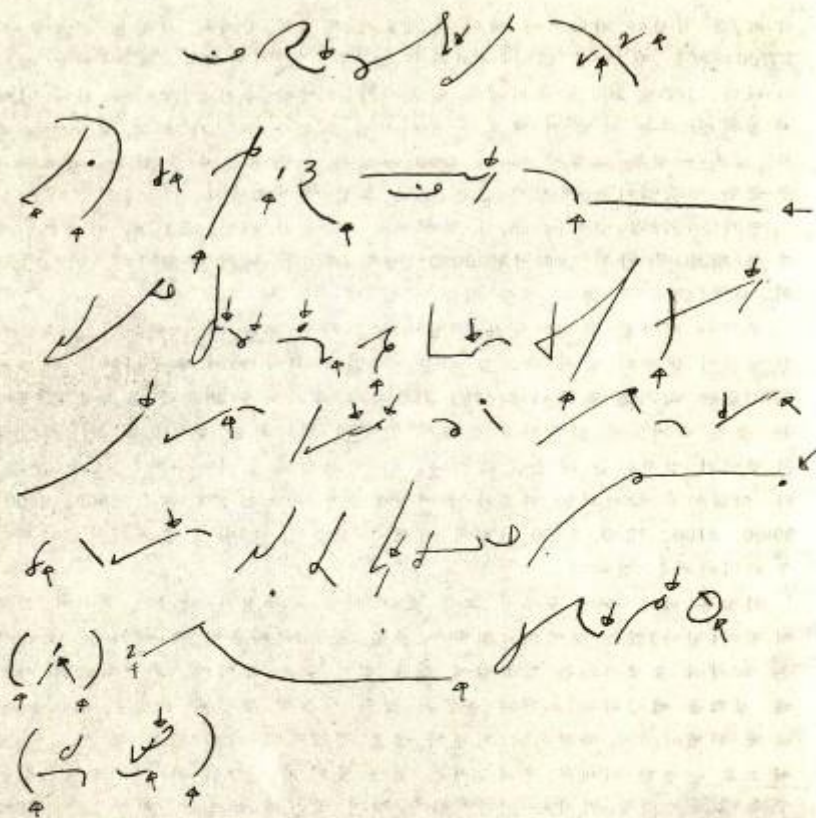
연자(演者)의 언어(言語)가 청취되는 그 순간 지상(紙上)에 써지는 이 경지(境地)에 가지 않고서는 3000이상의 속기는 어려운 일이다. 이 경지의 체득(體得)은 오직 연습 밖에는 없다.

우리는 한글을 쓸 줄 몰라서 말보다 느리게 쓰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한글자의 구성이 말의 속도를 따를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속기호는 속기호를 위해서 작성된 기호이다 속기호가 3600의 속도를 못낸다는 것은 속기호에 익숙하지 못해서 발언에 해당되는 속기호를 이것인가 저것인가 망서리는 때문인 것이다. 이 망서림이 없어져나가는 도정(途程)이 연습이고 망서리는 기호가 줄어들수록 속도는 2700에서 2800, 2900, 3000, 3100, 3200, 3300 이렇게 서서히 상승(上昇)되어 속기사의 자적이 구비되어가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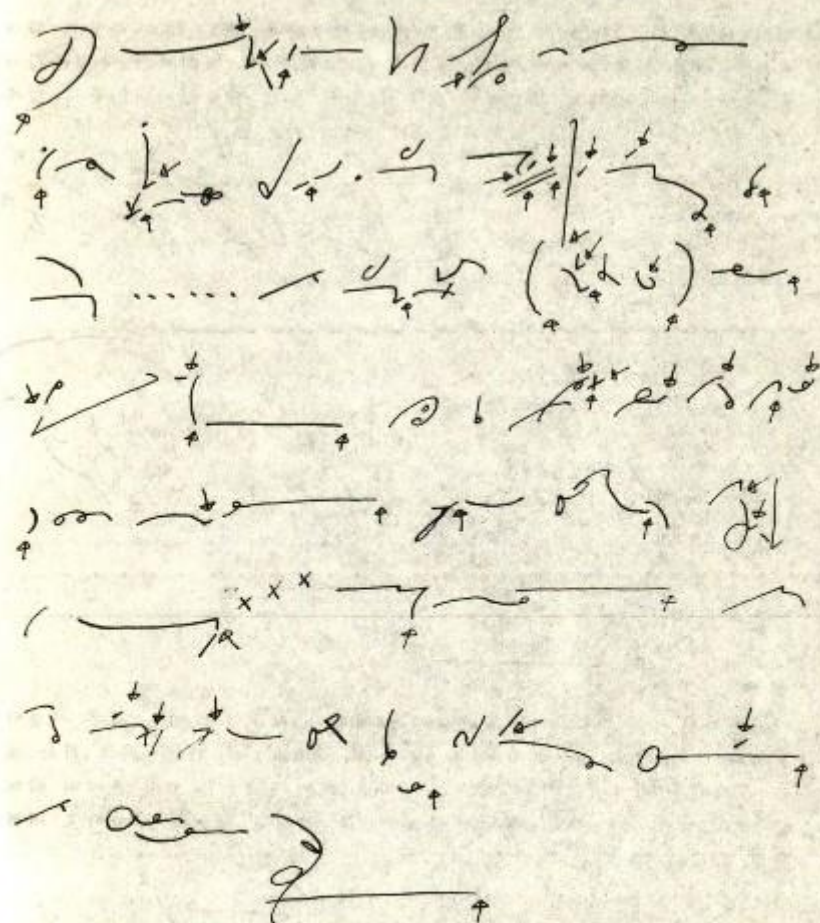
이것은 비단 속기 공부만 그런 것이 아니다 세상사 매사가 순서가 있고 익힘이(연마)있는 것이다. 일확 천금을 꿈꾸는 마음씨 즉 성사에 조급성은 매사에 불성이라는 결실밖에 얻는 것이 없는 것이다. 차근차근히 자기에 실력을 배양하는 노력과 불굴의 정신 이것이 결핍된 사람은 언제나 남에게 뒤떨어지지 마련이니 치열한 생존 경쟁속에 처해 있는 이 사회에 일원으로 탄생한 이세의 우리로서는 일단 뜻하고 시작한 바에야 남과 같은 수는 있을지언정 뒤지는 어리석음은 겪지 말기를 끝으로 재삼 부락하며 이하의 예문이 여러분의 속기 완성상 좋은 참고문이 되기를 아울러 바라는 바이다.

### ☆ 속기 예문 ☆

◇ 1958년 8월 11일 국회 임시 회의 속기록(29회 29호)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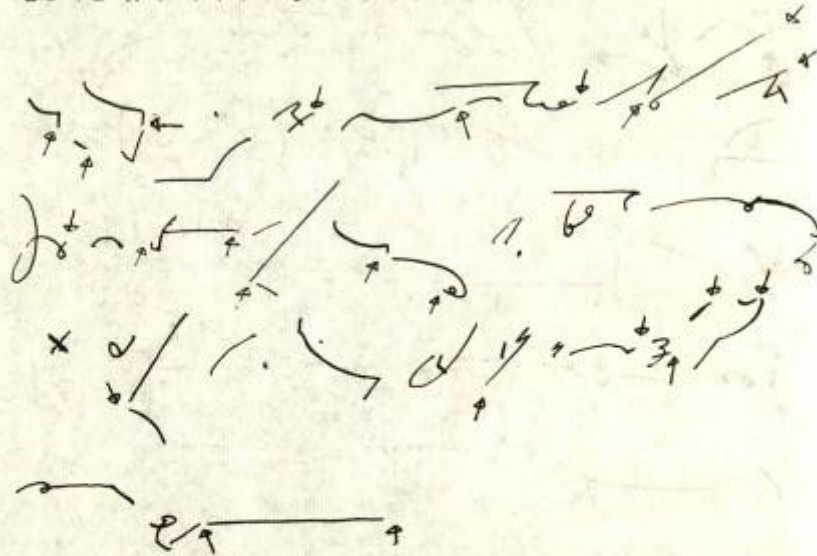


임시외환특별 세법안 제 1 례회 상오 10시20분 부의장(韓熙錫).....  
 다음은 의사 일정 제 3 항 임시 외환 특별 세법안 상정합니다. 질의를 하  
 시겠는데 정부측에서는 부총부장관 대신에 차관이 출석하셨습니다. 발언  
 통지를 하신 분이 다섯 분이 계시는데 종전의 예에 의해서 두분 또는 세  
 분이 질의를 한 뒤에 답변을 듣기로 하는데 의의없습니까 (없소하는 이 있  
 음) 없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 요한의원 말씀하세요 (재부부 안 나오  
 셨어요 하는 이 있음) (朱耀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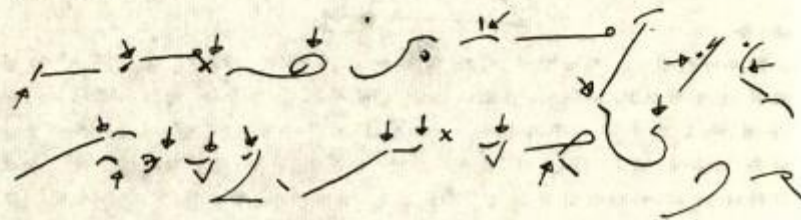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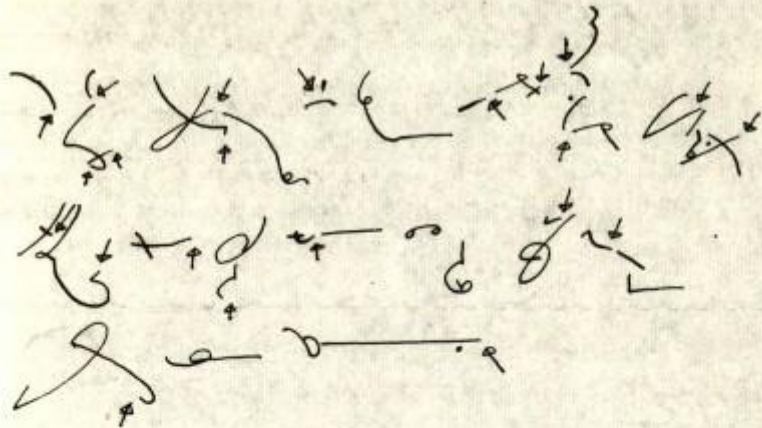
주요한의원.....지난번에 제가 발언을 시작을 하다가 이 문제가 한국 경제에 전반적으로 관련이 있으니만큼 당해부서인 재무부 담당자뿐만 아니라 될 수 있으면 부총부라든가.....그런데 재무부장관이 안 나오셔서 (장난 나온 다음에 해요 하는 이 있음) 그냥 질문을 해도 무방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우리 야당 의원들은 연사가 없는 연석에서 연설하는 것은 법외 경

힘이 많습니다. 개구리나 참새를 향해서 연설해본 일도 있고 하늘을 향해서 연설해본 일도 과거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부총부차관을 개구리나 참새하고 비교하는 것은 대단히 실례 말씀입니다마는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니까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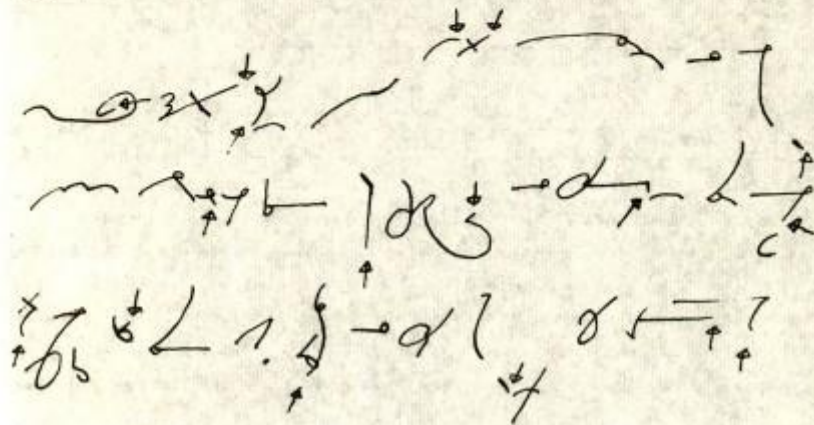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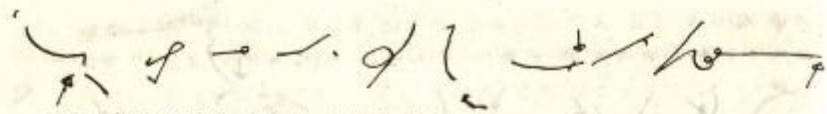
현실적인 환율로 고쳐야 된다고하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  
올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이 500대 1의 환율이라고 하는 것  
은 어떠한 신성불가침의 목표라고 생각올 해서 500대 1. 절대 유지타 이러  
한 구호를 세워가지고 오늘날까지 근 만 3년 되는 날짜를 경과하고 내려  
왔던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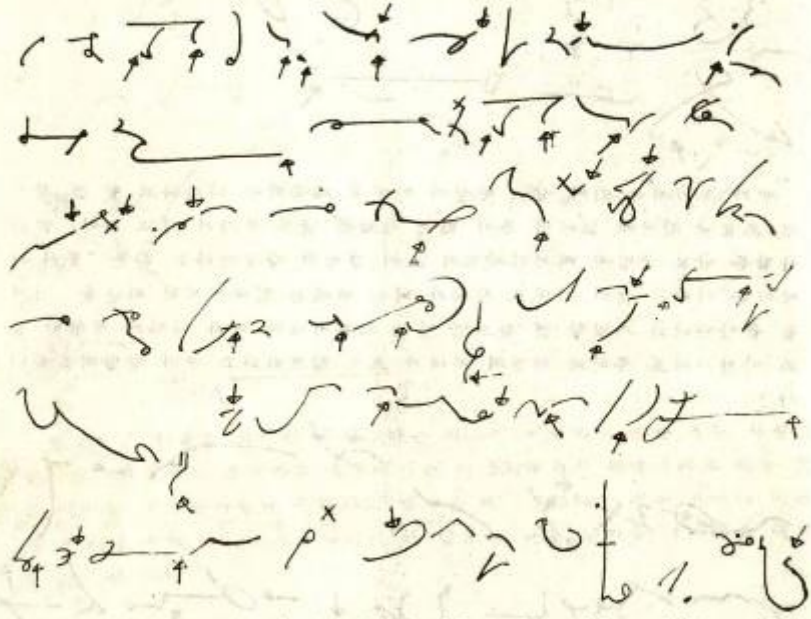


제가 보기에는 이와 같은 현상이 이대로 계속되어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날 한국에 있어서 돈이 많은 사람은 날로 부자가 되고 돈이 없는 사람은 날로 궁핍에 빠져가지고서 소위 경제의 양극화라고 하는 "플라 리 제이션"이라는 것이 이대로 진화가 되는 때에는 한국경제의 파탄을 가져 올 뿐만 아니라 자칫할 것 같으면 옛날 자본시대의 여러 나라가 경험한 것 과 마찬가지로 폭력과 혁명의 시대가 오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하겠습니 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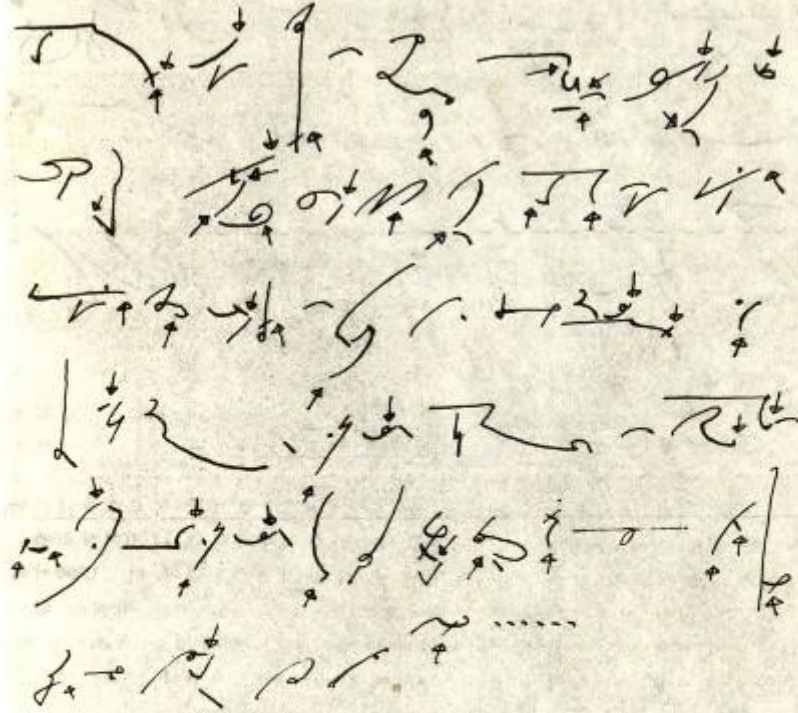
이와 같은 30명의 제벌이 양성되었다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고찰해본다 할 것 같으면 그 자본가들이 자기의 기술과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서 혹은 자기가 어떠한 신발명을 해서 그 자본을 축적한 것이 아니다. 순전히 500대 1의 환율의 덕택으로 그 거대한 자본을 축적했다고 나는 단언해 마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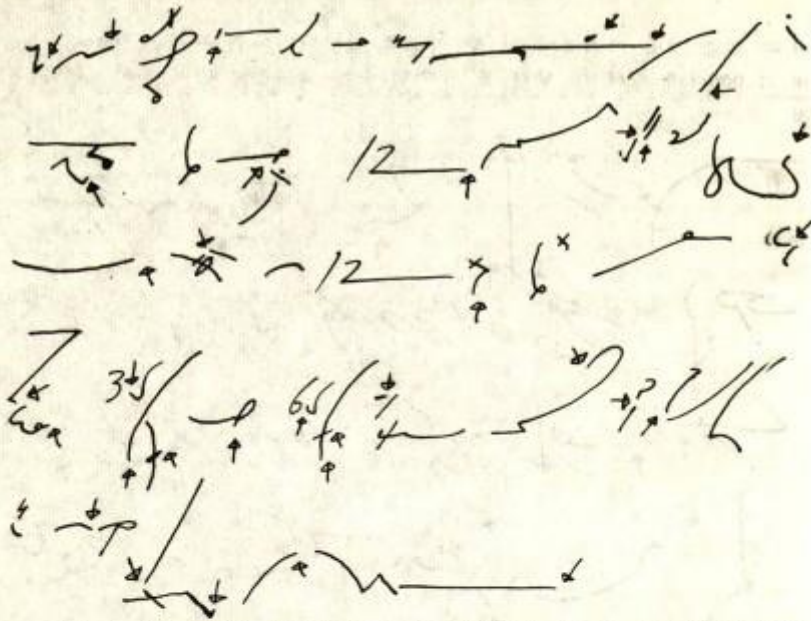
또 그 다음에 500대 1의 비현실적인 환율은 무슨 일을 조장했는고 하니 한국에 있어 부기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경제계에 부기를 조장한 해서 500대 1의 환율을 얻기 위해서 어떤 때에는 한국은행이 마치 도박장과 같이 되어 버리고 어떤 때에는 선착순으로 이것을 판다고 해서 마치 경마장에서 표를 사는 사람이 아우성치면서 불리 팔인 것과 마찬가지로의 현상을 일으켜가지고 500대로 "달라"를 획득하기 위해서 가지가지의 부패현상이 일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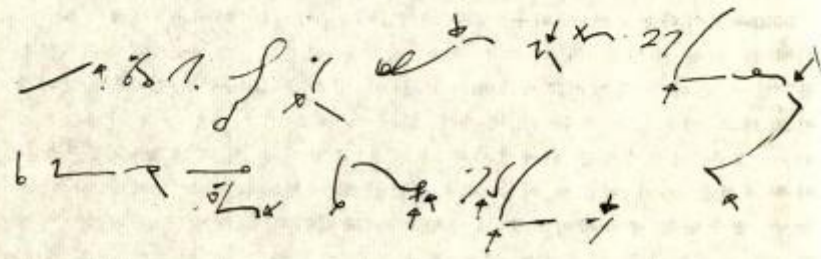
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다 잘 아실줄 압니다. 다른 사람은 800대나 900대 1,000대에 의해서 "달라"를 획득할 수가 있다는데 어떠한 특권만 가질 것 같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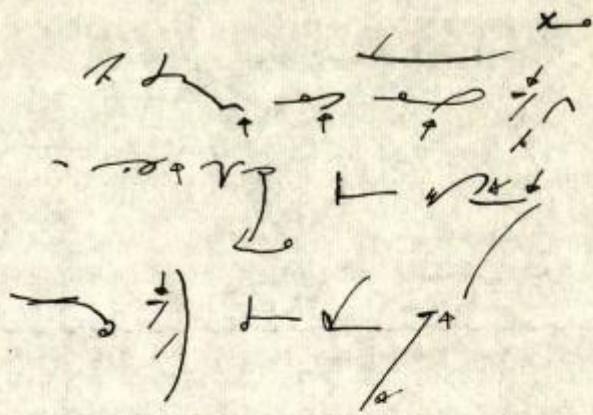


500대 1 이라는 한 달라를 얻을 수 있다는 이 견지하에서 약삭빠른 모리배가 갖는 수단을 세 가지고 혹은 뇌물을 받친다. 봉대문짜 같은 명함을 얻어 온다 이래가지고서 500대 1 의 이 달라를 10만달라 100만 달라를 얻으려고 아우성을 치는 이 시기에 있어 가지고 이러한 부기를 조장하는 것은 나아가서는 한국정치의 부패를 조장하게 되고 오늘날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 의원특세법안이 제안되었다고 하지만 과연 오늘날 공무원의 봉급제이스를 4 만환으로 올린다고 오늘날의 환기가 숙정될 수 있겠느냐? 저로서는 크게 의문으로 생각하고 왜 이렇게 되었느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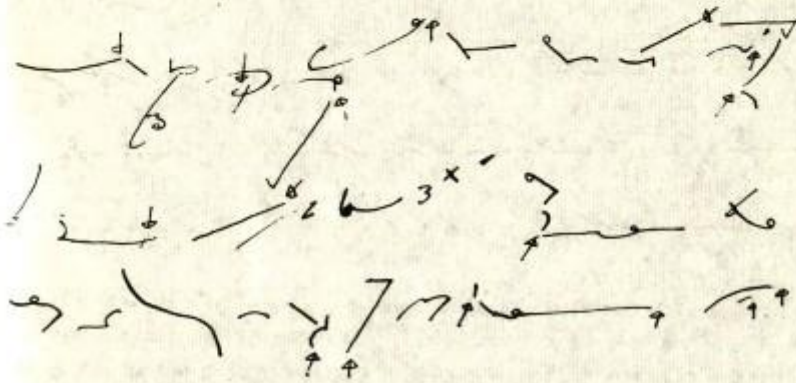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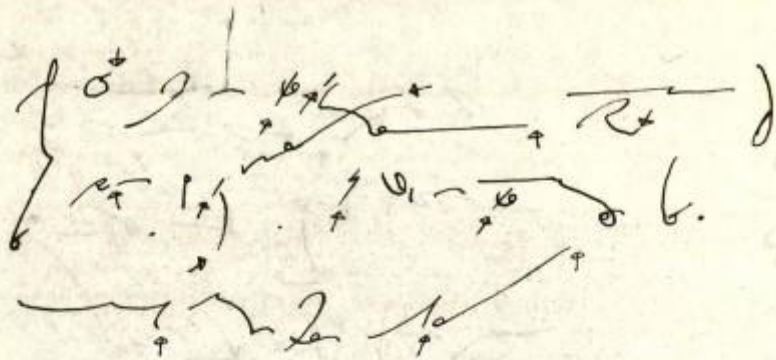
그것은 어떤 숫자에서 나왔는지 제가 자세히 그 근거를 모르겠습니다. 마는 요 일전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소기업에 대해가지고 1700여개소에 실질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지난 상반기동안에 이 1700여개소의 중소기업 전체가 완전히 가동하고 있는 것은 35퍼센트 밖에는 없나 나머지 65퍼센트는 문을 닫아버렸거나 그렇지 않으면 조업을 축소시켜서 근근히 명맥을 유지해서 나가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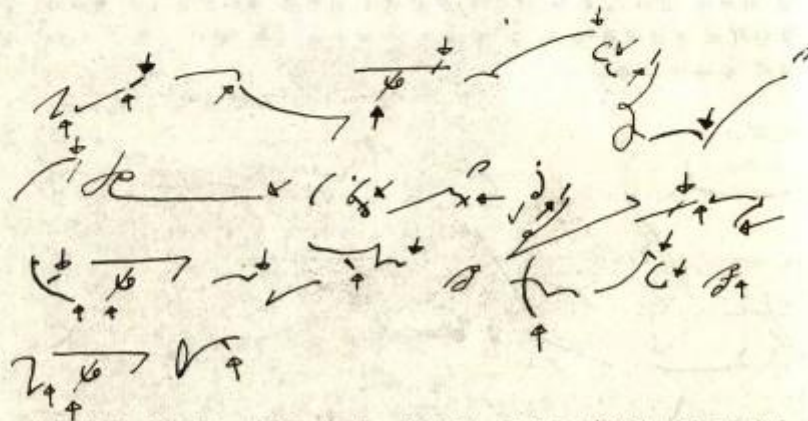


한편 쪽에서 어떠한 숫자로서 한국의 총생산이 국민의 총생산이 27. ㄹ트가 높았다고 하지만은 우리 국가경제의 기간을 이룰만한 중소기업은 75퍼센트가 문을 닫히거나 닫히기 직전에 있다 하는 이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그 말이에요. 그와 같이 문을 닫히게 되었고 문을 닫힐 직전에 있다고 하는 원인이 무엇인가 이것을 물어보았더니 첫째가 금융단이오 은행에서 돈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문을 닫힐 수밖에 없다 둘째가 판매가 부족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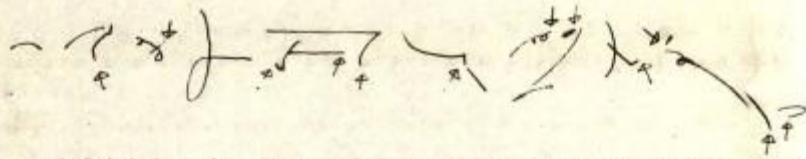


농촌에 구비력이 없기 때문에 물건을 만들어도 팔리지 않는다 세계가  
 세금이 너무 많다 인성되세로 해가지고서 자기가 벌어들인 돈보다도 배  
 나 3배나 되는 세금을 받아가니까 도저히 공장을 경영할 수 없다. 이 세  
 가지의 커다란 원인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 여쭙어보고 싶은 말씀은  
 소위 이 실수요자 제도라는 것입니다. 외환특세가 정부원안이 처음 제출되  
 었을 때부터 오늘 현재까지 이 실수요자 제도라고 하는 것이 중대한 논란  
 의 대상이 되어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 였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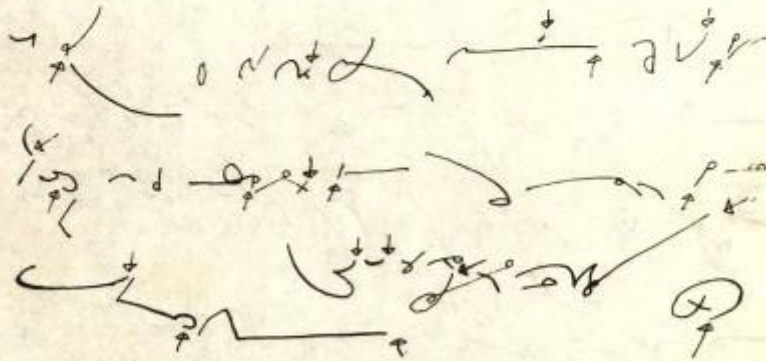


어떤 분은 말하기를 실수요제도는 이제부터 완전히 폐지에 버리고 말아  
 야 된다. 이런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한 편에서는 그러서는 안 된  
 다 잠진적으로 폐지를 하되 당분간 몇 가지의 항목만은 실수요자 제도를 인





고액납세자라고 하는 30명 2억환이상 16억환이라고 하는 막대한 세금을 정부에 일년만에 냈다고 하는 그 30명을 내가 가만히 분류를 해보았어요 그랬더니 대개 6가지의 업종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무엇이냐하면 설탕을 만드는 회사요 제당업자의 대표적인 삼성기업이 가장 최고액 16억 몇 천만원이라고 하는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직업자가 국내에 있는 자 방직업자 그 다음에는 알코올제조업자 양조업자 즉 술장사 술 파는 사람 세제는 석유판매업자 코스트에서 석유를 받아가져요 이것을 일반 국민에게 파는 석유판매업자 제분업자 지금 말씀드린 밀가루를 만드는 제분공장 그리고 끝으로 전기회사 이 여섯 가지의 종류가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제일 많이 내는 업자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벌써 짐작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 여섯 가지의 종류는 정부가 500대 1의 환율의 은혜보조를 받고 있는 업종이라 말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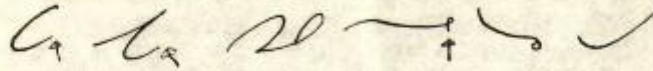
너무 지루하게 되어서 대단히 여러분께 죄송하게 되었습니다만 이것으로써 우선 질문을 끝을 내려고 생각을 하고 이다음 기회가 있을 때에는 제가 비료문제에 대해서 질문 겸 토론회를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우신 날 오때 경청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리는 바이입니다..

## ☆ 부 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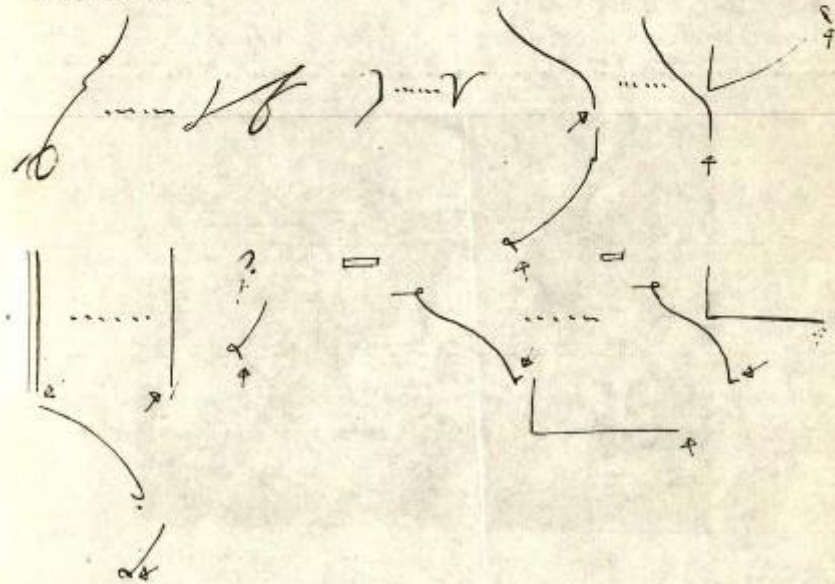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다. 자기가 쓰고 있는 속기 문제도 그것이 기자(記字)인 이상 좀 더 균형이 잡힌 유려(流麗)한 맛이 풍기는 자체(字體)를 이룩한다면 금상첨화적이 될 것이 아닌가.....

### (1) 운필(運筆)에 대한 관심

각 단어의 기호가 흐르는 물결처럼 파상(波狀)적 현상을 나타낸다면



별문제지만 그렇지는 않다. 이제 AB, AC선에서는 후속 기호가 AF선이 AF선에서는 AB선이 후속되어 ㄱ/ㄷ/ㄹ/ㄴ/ㅈ/ㅊ 식으로 된다면 여러모로 잇점(利點)이 있을 것이고 20mm선도 때에 따라서는 균형을 잡치는 예가 있으니 이러한 때 일부러 균형이 잡히도록 쓰려는 것이 자연한 관심사일 줄 안다. 예를 들면




물론 고정된 약자를 분리할 수는 없으나 피도둑이면 운필(運筆)이 스프스  
스하면서 번역이 되는 기호를 자기 나름으로 이용하는 것도 좋은 일이다.

**(2) 동지간에 친목을 갖자**

후배는 선배들의 경험담의 가장 반가운 교훈이며, 격려이다 기회 있으  
면 서신이나 직접 찾아서 서로 친목을 가지는 것이 좋으니 선배들이 가장  
많은 국외 속기과를 심방하기를 권장한다.

※ 한자(漢字)에 능한 사람은 한음(漢音)을 가지고 훈음(訓音)의 약자로  
 쓸 수가 있다.

위치..... 자미 지상 2mm   (천)일어나 일어나다

 그림자(影)  회오리바람(颯)  표끼리(象)  숫가락(筴)  복숭아(桃)

**(3) 미리(mm)의 변화에 대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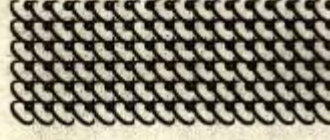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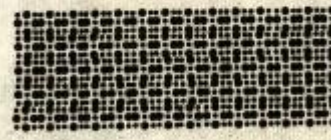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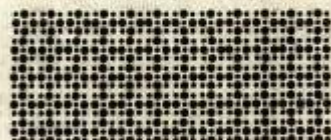
속기문의 연습이 익숙해지면 여기 속기 문제와 같이 전체적으로 "미리"  
가 적어지는 경향이 생기는데 환영할 바이니 별로 문제 삼지 않아도 좋다



<차근 차근 실력을 배양하는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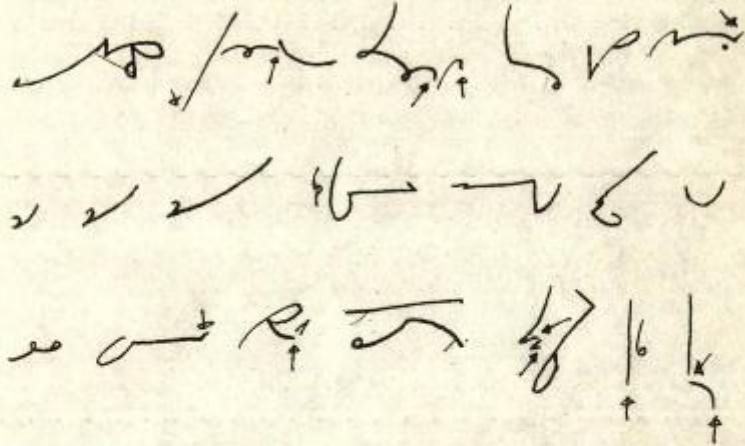
☆☆☆ 선과 점을 이용한 여러 가지 무늬 ☆☆☆





## 기본편 실력 테스트

(1) 다음 속기문 밑에 한글도 번역하여라



자  
르  
는  
감

(2) 다음 시조 두 수를 후면(後面) 속기문란에 속기하여라

- ① 이외에 철벽하고 은한은 삼경인데 일지춘심을 자꾸야 알다마는 다정도  
명인양 하여 감 붓 들어 하노라
- ② 오백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산천은 외구하되 인물은 간에 없다.  
어스버 때 명 언필이 잠이런가 하노라
- ③ 국민 교육 현장 첫머리 "우리는... 지표도 삼는다"와 끝 "반공민주정신  
에... 새역사를 창조하자"까지를 속기하여라

이 실용 속기의 애용자(愛用者)는 속기에 관한 문제 등을 제곳이 세 보내면 저자(著者)인 장 기태(張基燾)선생의 원사 지도(添削指導)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00원어치의 우표를 동봉(同封)해야 함>

보낼곳 서울특별시 대경로 1가 국회 속기과 내 대한속기협회

장 기태 님 "친견(親展)"이라고 봉투에 쓸 것

속기문

1

2

3

25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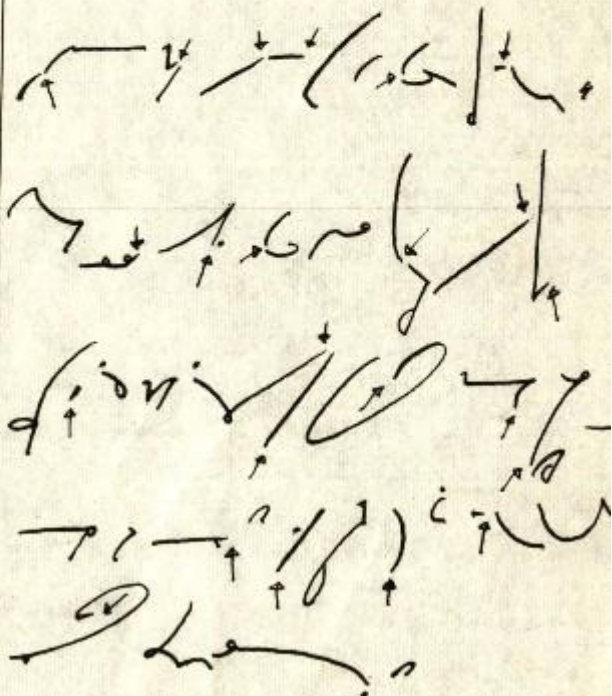
## 고등편 실력 테스트

(1) 다음 속기호를 기(基本) 변(變字) 토(吐) 약(略字)의 비중류로 구분 표기하여라



(선구자들의 힘이 신포른 것임을 새삼 느꼈다)

언어가 국민을  
단결시키고 또 국  
내외 정치 문화에  
큰 영향을 끼치  
는 것은 사실이다.  
국내 어느 지방  
이든지 통할수 있  
는 표준어를 제정  
해서 국어를 정리  
통일시키지 않으  
면 국가의 공익  
어포서 그 가치를  
확감(減)하게 된  
다. 따라서 국어의  
발전과 문화 향상에  
적지 않은 지방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2) 다음 단어 밑에 속기호 약자를 써 보아라

기계화(機械化)	명명	자본금	가격통제	
고행(苦行)	이익	분배	활용	수산업
사기를 진작(振作)	구태의연	폐택	태극기	
경악	연락	고립적	번갯불	다람쥐
표현	표준			

(3) 별지(別紙)에 신문 사설이나 논문을 1분간(250자)속기하고 속기호 밑에 한글로 번역한 것을 이 첨삭 지도와 함께 송부하여라

이 실용 속기의 새술사(愛習書)는 속기에 관한 문제 등을 제곳이 써 보내면 저자(著者)인 장기태(張基泰)선생의 첨삭 지도(添削指導)를 받을 수 있습니다.<단 100원어치의 우표를 동봉(同封)해야 함>

보낼 곳 서울특별시 태평로 1가 국회 속기과 내 대한 속기 협회  
장기태 님 "친견(親展)"이라고 봉투에 쓸것



良書の源泉

# 實用圖書

自動車  
運轉免許試驗總整理  
啓蒙自動車學院編

初級編・技術書院發行  
알기쉬운  
자동차운  
轉  
著  
第一自動車技術學校長

寫眞教室  
創作寫協運營委員  
朴達根 著

寫眞藝術  
創作寫協運營委員  
朴達根 著

標準  
實用英語會話  
崔翰喆 著

常用  
英語會話  
崔翰喆 著

初級編  
바둑教室  
九段 梅原武雄 著

秘訣  
장기教室  
林濟民・尹應植 共著



實用教養圖書案内

松園文化社

良書의 源泉



附書·行書·草書

三体펜글씨書範

慶北書藝學院長 李東炫 著

본말은 書體

펜毛筆글씨教本

鄭周相 著

實用

포켓書體教本

鄭周相 著

한글 펜글씨

이봉현 著

出版의 세 知識

編輯과 校正

鄭長澈 著

各種

會議進行法

國會議事局長 權承煥 著

누구라도 볼 수 있는

圖解社交댄스

댄스同好會 編

라디오  
故障  
修理法

李鍾奇 著

實驗을 爲主로 한  
라디오 工作

李鍾奇 著

嶺南人工大講師

韓國抒情詩

나를 잊지 마세요

慶北大學校 教授

金春洙 著

日本抒情詩

구름은 흐르네

慶北大學校 教授

金春洙 著

神祕한 健康의 秘法  
요가美容體操

아시아 研究會 編

알기쉬운

一般電氣知識

尹泰允 著

首都工大 教授



